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4

연구보고 09-R19-3

##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 자율적 행동 영역

책임연구원 : 김기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맹영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장근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구정화(경인교대·사회과교육과 교수)

강영배(日本尚絅学院大学·현대사회학과 교수)

조문흠(Kent State University-Stark·교육학과 교수)

##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Ⅱ”

###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 협동연구총서<br>일련번호 | 연구보고서명                                   | 연구기관       |
|----------------|------------------------------------------|------------|
| 09-32-01       |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Ⅱ:<br>총괄보고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09-32-02       |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Ⅱ:<br>지적 도구 활용 영역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 09-32-03       |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Ⅱ:<br>사회적 상호작용 영역 | 한국교육개발원    |
| 09-32-04       |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Ⅱ:<br>자율적 행동 영역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09-32-05       |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Ⅱ:<br>사고력 영역      | 명지대학교      |
| 09-32-06       |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Ⅱ:<br>총괄보고서 부록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2. 참여연구진

| 연구기관   |            | 연구책임자      | 참여연구진                                                                                          |
|--------|------------|------------|------------------------------------------------------------------------------------------------|
| 주관연구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 선임연구위원 | 맹영임 선임연구위원<br>장근영 연구위원<br>구정화 경인교대 교수<br>강영배 尚綱學院大 교수<br>조문흙 Kent State<br>University-Stark 교수 |
| 협력연구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 김태준 연구위원   | -                                                                                              |
|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최동선 부연구위원  | 김나라 연구원<br>김성남 서울대 연구원                                                                         |
|        | 명지대학교      | 조아미 교수     | 김정희 홍익대 교수<br>설현수 중앙대 교수<br>정재천<br>세계독서코치협회 대표                                                 |

# 연구 요약

## 1. 연구목적

- 이 연구는 ‘자율적으로 행동하기(Act autonomously)’ 영역의 생애핵심 역량 지표 확정 및 진단조사 도구 개발을 통한 청소년의 자율적 행동 수준을 측정·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음

## 2. 연구내용

- 자율적 행동에 관한 국·내외 문헌 분석
- 자율적 행동 영역 지표체계 평가 및 수정
- 자율적 행동 영역 진단조사도구 최종개발 및 조사
- 진단조사 결과에 대한 자율적 행동 역량 분석

## 3. 연구방법

- 개념화 및 문항 개발을 위해 자율적 행동 관련 국·내외 선행 연구 분석
- 자율적 행동 영역 지표체계 평가 및 수정을 위한 해외자문가 대상 이메일 자문(Rychen, D.S.(OECD DeSeCo Secretariat), Kelly, F.(Senior Manager, Ministry of Education, NewZealand), 水原克敏(東北大교육학과 교수) 등)
- 자율적 행동 영역 진단조사도구 최종개발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 자율적 행동 영역 청소년대상 진단조사(대상별 3,000명씩 총 9,000명)

#### 4. 연구결과

- 자율적 행동에 있어 고학년 여학생이 높은 자율적 행동 역량을 발달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에서 부모의 학력이나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관계가 있으나 뚜렷하게 일관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초등학생 그리고 중고등학생 모두에게서, 학업 성적, 전반적 성숙도, 그리고 삶의 만족도가 핵심역량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변인간의 인과관계는 뚜렷하지 않으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핵심역량과 학교생활과의 관계가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자율적 행동역량 중에서 ‘목표 및 과제 설정’이 청소년의 진로설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결정적인 요소로 확인되었음. 이 결과는 학교급에 상관없이 나타났음
- 청소년기의 다양한 활동경험이 자율적 행동역량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 결과, 초등학생의 경우, 전반적으로 책임기와 운동하기, 그리고 중고등학생의 경우, 책임기와 운동하기와 더불어 단체 활동 참여 및 자원 봉사 활동이 핵심역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참가청소년 및 역량개발프로그램 참여 청소년들과의 비교 분석결과 다양한 활동경험이 핵심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확인했음
- 본 연구의 결과, 핵심역량 개발에 있어 청소년활동의 중요성, 교육환경의 변화 필요성, 자율적 행동과 관련한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측정도구의 보완 필요성을 제언했음

## 목 차

|                                         |    |
|-----------------------------------------|----|
| I. 서론 .....                             | 1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3  |
| 2. 연구추진체계 .....                         | 5  |
|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 6  |
| II. 이론적 배경 .....                        | 9  |
| 1. 청소년기 생애핵심역량의 개념 및 영역체계 .....         | 11 |
| 1) DeSeCo에서의 생애핵심역량 개념 .....            | 11 |
| 2) 생애핵심역량의 영역체계 .....                   | 12 |
| 2. 자율적 행동의 개념 .....                     | 16 |
| 3. 자율적 행동의 하위요소 .....                   | 18 |
| 1) 거시적 맥락 속에서 행동하기 .....                | 20 |
| 2) 목표와 과제를 수립하고 실천하기 .....              | 21 |
| 3) 권익의 한계를 알고 요구하기 .....                | 22 |
| III. 자율적 행동 측정도구 개발 .....               | 25 |
| 1. 자율적 행동의 지표체계 .....                   | 27 |
| 2. 자율적 행동의 측정도구 개발 .....                | 28 |
| IV. 자율적 행동에 대한 청소년기 핵심역량 진단 조사 결과 ..... | 35 |
| 1. 자율적 행동지표의 내적 일치도 분석 .....            | 37 |
| 2. 자율적 행동 역량의 차이 분석 .....               | 39 |
| 1) 자율적 행동 하위 역량의 성별 차이분석 .....          | 39 |
| 2) 자율적 행동 하위 역량의 지역별 차이분석 .....         | 40 |
| 3) 부모의 학력에 따른 자율적 행동 하위 역량의 차이 분석 ..    | 41 |
| 4) 가정의 경제적 지위에 따른 자율적 역량의 차이 .....      | 42 |
| 5) 자율적 역량과 학교생활 만족도의 관계 .....           | 43 |
| 6) 자율적 역량과 학업 성적의 관계 .....              | 43 |
| 7) 자율적 역량과 학교 내 문제행동과의 관계 .....         | 44 |

|                                                       |     |
|-------------------------------------------------------|-----|
| 8) 자율적 역량과 건강 및 시간 관리의 관계 .....                       | 45  |
| 3. 학교생활과 자율적 행동 역량의 관계 .....                          | 46  |
| 1) 학교생활 만족도와 자율적 행동 역량 .....                          | 46  |
| 2) 학교에 대한 인식과 자율적 행동 역량 .....                         | 51  |
| 3) 학교 문제 행동 빈도와 자율적 행동 역량 .....                       | 58  |
| 4) 진로계획과 자율적 행동 역량 .....                              | 65  |
| 5) 학업 성적과 자율적 행동 역량 .....                             | 72  |
| 6) 시사점 .....                                          | 81  |
| 4. 개인 활동과 자율적 행동역량의 관계 .....                          | 84  |
| 1) 초등학생 및 중고등 학생의 개인 활동 경험 비교 .....                   | 84  |
| 2) 데이터 표준화 .....                                      | 85  |
| 3) 초등학생 및 중고등 학생의 핵심역량 비교 .....                       | 85  |
| 4) 지역별 자율적 행동 역량 .....                                | 86  |
| 5) 성별 자율적 행동 역량 .....                                 | 88  |
| 6) 학년별 자율적 행동 역량 .....                                | 89  |
| 7) 부모의 학력과 자율적 행동 역량 .....                            | 91  |
| 8) 가정의 경제적 수준별 자율적 행동 역량 .....                        | 94  |
| 5. 상관분석과 계층적 회귀분석(HRM) .....                          | 96  |
| 1) 변인간의 상관관계 (초등학생) .....                             | 97  |
| 2) 변인간의 상관관계 (중고등학생) .....                            | 98  |
| 3) 계층적 회귀분석(HRM: Hierarchical Regression Model) ..... | 99  |
| <br>V. 요약 및 결론 .....                                  | 111 |
| 1. 요약 .....                                           | 113 |
| 2. 결론 .....                                           | 115 |
| 3. 제언 .....                                           | 116 |
| <br>참고문헌 .....                                        | 119 |
| <br>부    록 .....                                      | 125 |
| 부록 1. 청소년기 핵심역량 진단조사(초등용) .....                       | 127 |
| 부록 2. 청소년기 핵심역량 진단조사(중등용) .....                       | 138 |

## 표 목차

|                                                       |    |
|-------------------------------------------------------|----|
| <표 I-1> 청소년기 핵심역량 진단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 7  |
| <표 II-1> DeSeCo 생애핵심역량의 하위요소 .....                    | 15 |
| <표 II-2> 생애 목표와 과제를 수립하고 실천하기 .....                   | 22 |
| <표 III-1> 자율적 행동 하위요소의 측정지표 .....                     | 27 |
| <표 III-2>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 영역 최종 문항<br>(정오답형) .....      | 29 |
| <표 III-3>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 영역 최종 문항<br>(행동·태도) .....     | 30 |
| <표 III-4> 목표와 과제를 수립하고 실천하기 영역 최종 문항<br>(행동·태도) ..... | 31 |
| <표 III-5> 권익의 한계를 알고 요구하기 영역 문항<br>(행동·태도) .....      | 33 |
| <표 III-6> 자율적 행동(종속변수) .....                          | 33 |
| <표 IV-1> 자율적 행동 역량 척도의 1차-2차년도 신뢰도 비교 ...             | 38 |
| <표 IV-2> 자율적 행동 역량의 하위영역별 신뢰도 및<br>상관관계 분석 결과 .....   | 38 |
| <표 IV-3> 성별에 따른 역량 점수의 차이검증 결과 .....                  | 39 |
| <표 IV-4> 거주지에 따른 자율적 역량 차이 .....                      | 40 |
| <표 IV-5> 거주지 권역에 따른 자율적 역량점수의 차이 .....                | 41 |
| <표 IV-6> 부모 학력에 따른 자율적 역량점수의 차이 .....                 | 41 |
| <표 IV-7> 가정의 경제적 지위에 따른 자율적 역량의 차이 .....              | 42 |
| <표 IV-8> 자율적 역량과 학교만족도 .....                          | 43 |
| <표 IV-9> 자율적 행동 역량과 학업성적 .....                        | 44 |
| <표 IV-10> 자율적 역량과 학교내 문제행동빈도와의 상관관계 ...               | 44 |
| <표 IV-11> 자율적 역량과 건강관련 변인의 상관관계 .....                 | 45 |
| <표 IV-12> 초등학생의 학교 만족도와 자율적 행동역량<br>하위영역간 상관관계 .....  | 47 |
| <표 IV-13> 초등학생의 학교 만족도와 자율적 행동역량<br>세부영역간 상관관계 .....  | 48 |

|                                                      |    |
|------------------------------------------------------|----|
| <표 IV-14> 중학생의 학교만족도와 자율적 행동역량<br>하위영역간 상관관계 .....   | 48 |
| <표 IV-15> 중학생의 학교만족도와 자율적 행동역량<br>세부영역간 상관관계 .....   | 49 |
| <표 IV-16> 고등학생의 학교만족도와 자율적 행동역량<br>하위영역간 상관관계 .....  | 50 |
| <표 IV-17> 고등학생의 학교만족도와 자율적 행동역량<br>세부영역간 상관관계 .....  | 50 |
| <표 IV-18> 초등학생의 학교 인식과 자율적 행동역량<br>하위영역간 상관관계 .....  | 52 |
| <표 IV-19> 초등학생의 학교 인식과 자율적 행동역량<br>세부영역간 상관관계 .....  | 53 |
| <표 IV-20> 중학생의 학교 인식과 자율적 행동역량<br>하위영역간 상관관계 .....   | 54 |
| <표 IV-21> 중학생의 학교 인식과 자율적 행동역량<br>세부영역간 상관관계 .....   | 55 |
| <표 IV-22> 고등학생의 학교 인식과 자율적 행동역량<br>하위영역간 상관관계 .....  | 56 |
| <표 IV-23> 고등학생의 학교 인식과 자율적 행동역량의<br>세부영역간 상관관계 ..... | 57 |
| <표 IV-24> 초등학생의 학교문제해동과 자율적 행동역량<br>하위영역간 상관관계 ..... | 59 |
| <표 IV-25> 초등학생 학교문제행동과 자율적 행동역량<br>세부영역간 상관관계 .....  | 60 |
| <표 IV-26> 중학생 학교문제행동과 자율적 행동역량<br>하위영역간 상관관계 .....   | 61 |
| <표 IV-27> 중학생 학교문제행동과 자율적 행동역량의<br>세부영역간 상관관계 .....  | 62 |
| <표 IV-28> 고등학생 학교문제행동과 자율적 행동역량<br>하위영역간 상관관계 .....  | 63 |
| <표 IV-29> 고등학생 학교문제행동과 자율적 행동역량<br>하위영역간 상관관계 .....  | 64 |



|                                                     |    |
|-----------------------------------------------------|----|
| <표 IV-30> 초등학생의 진로계획 정도와 자율적 행동역량 .....             | 66 |
| <표 IV-31> 초등학생의 자율적 행동역량 세부영역 중<br>진로계획 결정변인 .....  | 67 |
| <표 IV-32> 중학생의 진로계획 정도와 자율적 행동역량 .....              | 69 |
| <표 IV-33> 중학생의 자율적 행동역량 하위영역 중<br>진로계획 결정변인 .....   | 69 |
| <표 IV-34> 고등학생의 진로계획 정도와 자율적 행동역량 .....             | 71 |
| <표 IV-35> 고등학생의 자율적 행동역량 하위영역 중<br>진로계획 결정변인 .....  | 71 |
| <표 IV-36> 초등학생의 학업성적과 자율적 행동역량 .....                | 73 |
| <표 IV-37> 초등학생의 자율적 행동역량 세부영역 중<br>학업성적 결정변인 .....  | 73 |
| <표 IV-38> 중학생의 학업성적과 자율적 행동역량 .....                 | 76 |
| <표 IV-39> 중학생의 자율적 행동역량 세부영역 중<br>학업성적 결정변인 .....   | 76 |
| <표 IV-40> 고등학생의 학업성적과 자율적 행동역량 .....                | 78 |
| <표 IV-41> 고등학생의 자율적 행동역량 세부영역 중<br>학업 성적 결정변인 ..... | 79 |
| <표 IV-42> 전반적인 성숙도와 삶의 만족도 .....                    | 85 |
| <표 IV-43>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자율적 행동역량 비교 .....             | 86 |
| <표 IV-44> 초등학생의 지역별 자율적 행동역량 비교 .....               | 87 |
| <표 IV-45> 중고등학생의 지역별 자율적 행동역량 비교 .....              | 88 |
| <표 IV-46> 초등학생의 성별 자율적 행동역량 비교 .....                | 89 |
| <표 IV-47> 중고등학생의 성별 자율적 행동역량 비교 .....               | 89 |
| <표 IV-48> 초등학생의 학년별 자율적 행동역량 비교 .....               | 90 |
| <표 IV-49> 중고등학생의 학년별 자율적 행동역량 비교 .....              | 90 |
| <표 IV-50> 초등학생의 부 학력별 자율적 행동역량 비교 .....             | 91 |
| <표 IV-51> 초등학생의 모 학력별 자율적 행동역량 비교 .....             | 92 |
| <표 IV-52> 중고등학생의 부 학력별 자율적 행동역량 비교 .....            | 93 |
| <표 IV-53> 중고등학생의 모 학력별 자율적 행동역량 비교 .....            | 93 |
| <표 IV-54> 초등학생의 경제적 수준별 자율적 행동역량 비교 .....           | 95 |
| <표 IV-55> 중고등학생의 경제적 수준별 자율적 행동역량 비교 ...            | 95 |

|                                          |     |
|------------------------------------------|-----|
| <표 IV-56> 초등학생의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            |     |
| 설명요인 분석 .....                            | 101 |
| <표 IV-57> 초등학생의 목표/과제수립하기 설명요인 분석 .....  | 102 |
| <표 IV-58> 초등학생의 권익의 한계 이해/요구하기           |     |
| 설명요인 분석 .....                            | 103 |
| <표 IV-59> 중등등학생의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           |     |
| 설명요인 분 .....                             | 105 |
| <표 IV-60> 중고등학생의 목표/과제수립하기 설명요인 분석 ..... | 106 |
| <표 IV-61> 중고등학생의 권익의 한계 이해하고 요구하기        |     |
| 설명요인 분석 .....                            | 108 |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추진체계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생활과 직업생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읽고 쓰고 말하는 기초능력뿐만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등 생애에 걸쳐 요구되는 역량(competency)이나 자질이 중시되고 있다. 이처럼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과학기술의 발달은 기존 산업사회에서 요구하는 개인의 능력과는 다른 능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하도록 교육하고 지원하는 것이 국가차원의 요구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OECD 등 국제기구를 비롯한 주요국들은 개인이 생애에 걸쳐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역량과 기술을 규명하고, 인적자원의 질적 표준과 국가학습목표를 제시하여 역량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 특히,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프로젝트는 핵심역량(key competencies)의 이론적 기초를 마련한 대표적인 선행적 연구로 주목된다.

OECD DeSeCo 프로젝트에서는 지식기반사회를 살아가는 개인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핵심역량으로 ‘도구를 상호적으로 사용하기(Use tools interactively)’, ‘이질적 집단과 상호작용하기(Interact in heterogeneous groups)’, ‘자율적으로 행동하기(Act autonomously)’ 등 세 가지 범주를 제시하고 각 범주의 하위차원으로 총 9가지의 핵심역량을 제안하였다(OECD, 2006). 이 중 ‘자율적으로 행동하기’는 자신의 생애를 관리하고 확대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자리매김하며 자율적으로 생활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거시적인 맥락 속에서 행동하고, 계획과 과제를 수립하고 실천하며, 권리와 이익의 한계를 알고 요구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OECD의 이러한 노력은 생애핵심역량을 개인과 사회발전을 결정하는 주

요 변수로 간주하고 청소년과 성인의 핵심역량을 측정함으로써 각 국가별 인적자원의 질적 수준을 가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1990년대 중반이후 교육과정이나 자격체계에 핵심역량을 도입하려는 연구가 진행되었다(정철영 외, 1998; 김미숙 외, 1998; 김안나 외, 2003; 나승일 외, 2004; 유현숙 외, 2004; 임언 외, 2004, 소경희, 2007; 윤명희·김진화, 2007). 지금까지의 논의는 크게 평생학습 차원과 직업교육 차원으로 구분하여 전자는 학교교육을 통해 획득해야 하며 평생학습의 기초가 되는 보편적 역량으로(유현숙 외, 2007; 한승희 외, 2004), 후자는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야 하는 직업기초능력(정철영 외, 2000)의 두 가지 틀로 구분할 수 있다(소경희, 2007). 이와 같은 연구는 역량에 대한 개념화 작업과 표준에 부응할 수 있는 학습목표를 재설정하고 국가차원의 질 관리 필요성과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나 청소년보다는 성인이나 취업자 중심으로 역량 요인 규명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청소년기 핵심역량에 대한 연구와 측정도구의 개발이 요구된다(김기현, 2008). 또한, 역량의 하위요소는 이론적 측면에서 근거가 명확해야 하며, 각 영역이 왜 요구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국제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OECD의 DeSeCo 프로젝트에서 제시한 세 가지 역량 범주를 기반으로 한다. 이들 세 범주는 상호독립적이며 개념화 및 측정도구 개발 정도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범위는 자율적 행동으로 제한하며 한국적 맥락을 고려하면서 청소년기 자율적 행동의 개념을 재정의 하고자 한다. 특히, 자율적 행동의 경우 DeSeCo에서는 개념과 하위요소에 대한 정의만 언급되었을 뿐 지표와 측정도구는 연구 및 개발의 필요성만 언급된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DeSeCo 프로젝트에서 제안한 ‘자율적으로 행동하기(Act autonomously)’ 영역의 생애핵심역량 지표를 확정하고 이 연구의 1차년도에 개발한 측정도구의 수정보완을 통한 진단조사 도구 최종 개발을 통해 청소년의 자율적 행동 수준을 측정·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 2. 연구추진체계

이 연구는 협동연구과제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YPI), 한국교육개발원(KEDI), 한국직업능력개발원(KRIVET), 그리고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참여하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YPI)은 전체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연구 추진을 총괄하였다. 이와 함께 역량기반 학습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청소년기의 핵심역량 지표 중 자율적 행동부문에 대한 최종개발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KRIVET)은 청소년기 생애핵심역량에 대한 개념화 작업에 참여하고 생애핵심역량 지표 중 지적도구 활용 부문에 대한 국내·외 자료의 비교분석과 최종개발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KEDI)는 청소년기 생애핵심역량에 대한 개념화 작업에 참여하고 생애핵심역량 지표 중 사회적 상호작용 부문에 대한 최종개발 및 분석을 담당하였다.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청소년기 생애핵심역량에 대한 개념화 작업에 참여하고 생애핵심역량 지표 중 종합적 사고력 부문에 대한 국내·외 자료에 대한 비교분석과 진단도구에 대한 개발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3개년에 걸쳐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차 년도(2008년)에는 생애핵심역량의 개념화 및 측정도구 개발과 역량기반 학습체계 추진에 대한 해외사례 연구를 수행하였고, 2차 년도인 올해에는 1차년에 개발된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국 규모의 조사를 실시하고 추진방안에 대한 구체화를 연구과제로 하였다. 마지막인 3차 년도(2010년)에는 국내 전국 규모조사 자료와 국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청소년의 생애핵심역량에 대한 국제비교분석과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과 교과과정에 대한 구체적 실천전략 방안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 연구의 내용

##### (1) 자율적 행동 측정도구 개발 및 진단조사 실시

이 연구는 1차년도 연구에서 제안한 청소년기 핵심역량의 영역체계와 예비조사를 거친 진단도구에 대한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표체계와 측정도구를 확정하고 전국 규모의 진단조사를 실시하였다.

##### (2)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핵심역량 진단조사 분석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핵심역량을 진단하기 위해 이번 연구에서 수행한 청소년기 핵심역량 진단조사(초등용, 중등용) 자료를 분석하였다.

#### 2) 연구의 방법

##### ① 문헌 연구

이 연구는 문헌 연구를 통해 청소년기 핵심역량의 개념 및 영역체계, 자율적 행동의 개념 및 하위요소 1차 년도에 개발한 측정도구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 ② 국내·외 전문가 자문

이 연구는 생애핵심역량 지표체계 확정을 위해 Rychen, D.S.(OECD DeSeCo Secretariat), Kelly, F.(Senior Manager, Ministry of Education, New Zealand), 水原克敏(東北大 교육학과 교수) 등 해외자문가를 대상으로 이메일(E-mail)로 자문을 받았다.



〈표 I -1〉 청소년기 핵심역량 진단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구분  |      | 빈도   | 비율(%) |
|-----|------|------|-------|
| 성별  | 남    | 4792 | 52.4  |
|     | 여    | 4358 | 47.6  |
| 학교  | 초등학생 | 2781 | 30.4  |
|     | 중학생  | 2770 | 30.3  |
|     | 고등학생 | 3599 | 39.3  |
| 교급  | 초4   | 849  | 9.3   |
|     | 초5   | 931  | 10.2  |
|     | 초6   | 1001 | 10.9  |
|     | 중1   | 975  | 10.7  |
|     | 중2   | 875  | 9.6   |
|     | 중3   | 920  | 10.1  |
|     | 고1   | 1265 | 13.8  |
|     | 고2   | 1218 | 13.3  |
|     | 고3   | 1116 | 12.2  |
| 거주지 | 서울   | 1521 | 16.6  |
|     | 광역시  | 2838 | 31.0  |
|     | 시·군  | 4791 | 52.4  |
| 전체  |      | 9150 | 100   |

자율적 행동 영역 측정도구에 관한 평가는 내부 연구진 외에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생 직업기초능력 진단도구 개발자인 김종훈 박사(충북대학교)와 올해 새롭게 객원 연구원으로 참여한 구정화 교수(경인교대), 조문흠 교수(Kent State University-Stark)가 참여하였다.

### ③ 전문가 의견조사

초등학교용 진단도구에 대한 문항 타당도 검토를 위해 초등학교 교사, 교장, 교감, 교육학과 교수 등 20명으로 구성된 자문진을 대상으로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 ④ 진단조사

진단조사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여 교육통계자료를 기초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수와 학교수에 따라 지역별로 비례층화집락추출법을 통해 표본을 선정, 초등학생(4~6학년) 및 중·고등학교학생을 대상별로 3,100명씩 총 9,300명을 대상으로, 6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자기기입식 조사로 진행되었다.

수집된 조사결과 중에서 불성실 응답 등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사례는 모두 9,150명으로 이들 중에서 남자는 4792명(52.4%), 여자는 4358명(47.6%)이었다. 학교급으로 나누어 보면 초등학생이 2781명(30.4%), 중학생이 2770명(30.3%), 고등학생이 3599명(39.3%)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구체적인 학년별 분포를 구분해보면 초등학교 4학년이 9.3%(849명), 5학년이 10.2%(931명), 6학년이 10.9%(1001명), 중학생은 1학년이 10.7%(975명), 2학년 9.6%(875명), 3학년 10.1%(920명), 고등학생 중 1학년은 13.8%(1265명), 2학년은 13.3%(1218명), 3학년은 12.2%(1116명)이었다. 거주지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시가 1521명(16.6%)였고, 광역시는 2838명(31.0%), 시·군 지역은 4791명(52.4%) 이었다(<표 I-1> 참조).

## Ⅱ. 이론적 배경

1. 청소년기 생애핵심역량의 개념 및 영역체계
2. 자율적 행동의 개념
3. 자율적 행동의 하위요소



## II. 이론적 배경

### 1. 청소년기 생애핵심역량의 개념 및 영역체계

#### 1) DeSeCo에서의 생애핵심역량 개념

OECD는 청소년과 성인의 역량과 기술에 대해 연구하고 개념화와 측정을 위해 일관성 있는 전략 개발을 목적으로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프로젝트를 단행하였다. DeSeCo에서는 역량의 기본 요건으로 사회와 개인을 위하여 가치로운 산출(outcomes)에 기여하여야 하고, 다양한 맥락에서 개인의 가장 중요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며, 전문가 뿐 아니라 모든 개인에게 중요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생애핵심역량<sup>1)</sup>이란 생활 장면을 통틀어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능력으로서 성공적인 삶과 순기능적인 사회에 기여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생활의 모든 차원을 통틀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능력이며 개인의 성공적인 삶 뿐만 아니라 사회에 순기능적인 기여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전제로 한다. 즉, 읽기, 쓰기, 그리고 계산하기와 같은 기본적인 기술(skills)을 넘어, 현재 직면하고 있는 현실과 미래에 도전함에 있어 개인이 전 생애에 걸쳐 성공적이고 합리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생애핵심역량은 개인적 수준에서 일차적인 욕구 충족과, 타인

---

1) McClelland(1973)는 현장에서 우수한 직무성고가 예상되고, 실제 수행상황에서 평범한 수행자와 구분되는 성공적인 수행이 가능한 우수한 수행자의 개인적 특성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역량은 수행자의 특성이 아니라 직무의 특성을 분석한 후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직무 수행자가 최소한으로 갖추어야 하는 필수적인 표준이라는 주장도 존재한다. 이후 역량 연구가 직업생활에서 일반적인 삶으로 영역이 확대되면서 역량(competency)과 생애(life)의 개념을 접목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DeSeCo이다.

과의 관계 형성, 성취와 만족,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 고용, 정치참여, 정보에 대한 접근 등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사회적 수준에서는 평화와 안녕, 경제적 성취와 부, 사회적 통합, 평등, 인권리, 환경보존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지식을 아는 능력보다는 변화하는 사회를 따라가고 사회와 발맞추어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을 의미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행복한 삶의 기초가 된다(Rychen and Salganik, 2003).

DeSeCo는 스위스의 주도 하에 12개 국가에서 참여한 사회학자, 측정전문가, 철학자, 인류학자, 심리학자, 경제학자, 역사학자, 통계학자, 교육학자, 정책입안자, 기업주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세 가지 핵심역량을 제안하였다. 첫째, 개인은 사회적·물리적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기 위하여 다양한 도구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개인이 세상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며 개인의 목적에 맞게 변화를 유도하고, 기술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도구로서 언어, 상징, 문자, 지식과 정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상호의존성이 높아지는 세계에서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필수적이므로 이질적인 집단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다원화된 사회에서 타인과 공감하며 연대하고 살아가기 위하여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협력하여 일할 수 있으며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개인은 자신의 생애를 관리하고 확대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자리매김하며 자율적으로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거시적인 맥락 속에서 행동하고, 계획과 과제를 수립하고 실천하며, 권리와 이익의 한계를 알고 요구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 2) 생애핵심역량의 영역체계

교육 결과의 질과 경제·사회적으로 전환(returns)된 학습 결과를 측정하고 교육적 성공에 대한 결정요인(key determinants)을 찾는 것은 국제적인 관심

사안이다. 이에 OECD는 청소년과 성인의 역량과 기술에 대해 연구하고 개념화와 측정을 위해 일관성 있는 전략 개발을 목적으로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프로젝트를 단행하였다. 즉, DeSeCo는 교육적 성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역량을 찾아내고 이를 개념화하기 위해 요구되는 이론적·개념적인 토대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을 주요 과제로 한다.

DeSeCo 프로젝트(이하, DeSeCo)는 OECD와 스위스 통계청(Swiss Federal Statistical Office, 이하 SFSO)의 주도로 1997년부터 역량 영역에 대한 연구에 착수하였다. OECD의 대규모 평가연구인 PISA, ALL과의 협력 하에 간학문적·국제적·과학적 접근을 통해 핵심역량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발전시키고 지표개발과 실증적 결과 해석을 위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또한 이론적 작업과 실증적 작업 사이의 반복적 과정을 장려하여 국제적 맥락에서 역량을 사정(assessment)하고 궁극적으로 교육정책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OECD, 2001).

DeSeCo는 궁극적으로 역량의 국제비교를 목적으로 하며 그 일환으로 2000년에는 CCP(Country Contribution Process, 이하 CCP)를 창설하였다. CCP는 개별 국가수준에서 사회적 환경과 맥락을 고려하여 핵심역량을 정의하고, DeSeCo의 활동 및 관점과 이에 대한 정보를 개별 국가에 제공한 후 CCP에 참여하는 국가들로부터 피드백을 얻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sup>2)</sup> 2002년에는 각 국가에서 정의한 역량 개념을 취합하고 전문가의 분석을 통합적으로 정리하였고 이후 2003년 최종보고서를 통해 핵심역량의 구체적인

---

2) CCP에 참여한 국가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그리고 미국 등 12개국이다. 각국은 자국의 경험에 기반하여 역량과 관련한 사안에 대한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하고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DeSeCo는 역량의 개념 및 선정, 역량과 관련한 사회적 환경, 지표개발 등에 관한 전문가 보고서를 추가로 발간하였다([http://www.statistik.admin.ch/stat\\_ch/ber15/desecco/desecco\\_country.htm](http://www.statistik.admin.ch/stat_ch/ber15/desecco/desecco_country.htm)). Trier(2001)는 CCP보고서에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언급한 역량의 경우(High)와 중간 정도 언급한 경우(Medium), 소수 국가만이 언급한 경우(Low)로 구분하여 핵심역량을 규명하기도 하였으며, 소수 사례에는 건강역량, 육체적 역량, 문화역량 등이 포함된다.

개념과 세 가지 하위요소를 정의하였다.

이에 앞서 DeSeCo에서는 역량의 기본 요건으로 사회와 개인을 위하여 가치로운 산출(outcomes)에 기여하여야 하고, 다양한 맥락에서 개인의 가장 중요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며, 전문가 뿐 아니라 모든 개인에게 중요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생애핵심역량이란 생활 장면을 통틀어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능력으로서 성공적인 삶과 순기능적인 사회에 기여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생활의 모든 차원을 통틀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능력이며 개인의 성공적인 삶뿐만 아니라 사회에 순기능적인 기여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전제로 한다. 즉, 읽기, 쓰기, 그리고 계산하기와 같은 기본적인 기술(skills)을 넘어, 현재 직면하고 있는 현실과 미래에 도전함에 있어 개인이 전 생애에 걸쳐 성공적이고 합리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능력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생애핵심역량은 개인적 수준에서 일차적인 욕구 충족과, 타인과의 관계 형성, 성취와 만족,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 고용, 정치참여, 정보에 대한 접근 등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사회적 수준에서는 평화와 안녕, 경제적 성취와 부, 사회적 통합, 평등, 인간권리, 환경보존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지식을 아는 능력보다는 변화하는 사회를 따라가고 사회와 발맞추어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을 의미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행복한 삶의 기초가 된다(Rychen and Salganik, 2003).

DeSeCo는 스위스의 주도 하에 12개 국가에서 참여한 사회학자, 측정전문가, 철학자, 인류학자, 심리학자, 경제학자, 역사학자, 통계학자, 교육학자, 정책입안자, 기업주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세 가지 핵심역량을 제안하였다. 첫째, 개인은 사회적·물리적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기 위하여 다양한 도구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개인이 세상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며 개인의 목적에 맞게 변화를 유도하고, 기술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도구로서 언어, 상징, 문자, 지식과 정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표 II-1> DeSeCo 생애핵심역량의 하위요소

| 하위요소            | 선정 이유                                                                                                                                                   | 하위역량                                                                                                                                                   |
|-----------------|---------------------------------------------------------------------------------------------------------------------------------------------------------|--------------------------------------------------------------------------------------------------------------------------------------------------------|
| 도구를 상호적으로 사용하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전하는 기술에 뒤지지 않아야 할 필요</li> <li>• 자신의 목적에 따라 도구를 개조시킬 필요</li> <li>• 세계와 적극적인 대화를 수행할 필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어, 상징, 문자를 상호적으로 사용하기</li> <li>• 지식과 정보를 상호적으로 사용하기</li> <li>• 기술을 상호적으로 사용하기</li> </ul>                     |
| 이질적인 집단과 상호작용하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원론적 사회에서 다양성(diversity)에 대처할 필요</li> <li>• 공감(empathy)의 중요성</li> <li>•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중요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인과 잘 지내기</li> <li>• 팀 내에서 협력하고 일하기</li> <li>•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하기</li> </ul>                                       |
| 자율적으로 행동하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의 정체성을 실현하고 복잡한 세상에서 목표를 설정할 필요</li> <li>• 권리를 행사하고 책임을 감수할 필요</li> <li>• 자신의 환경과 그 기능을 이해할 필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큰 맥락 내에서 행동하기</li> <li>• 인생계획(life plan)과 개인적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수행하기</li> <li>• 권리, 흥미, 한계, 요구를 방어하고 주장하기</li> </ul> |

둘째, 상호의존성이 높아지는 세계에서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필수적이므로 이질적인 집단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다원화된 사회에서 타인과 공감하며 연대하고 살아가기 위하여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협력하여 일할 수 있으며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개인은 자신의 생애를 관리하고 확대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자리매김하며 자율적으로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거시적인 맥락 속에서 행동하고, 계획과 과제를 수립하고 실천하며, 권리와 이익의 한계를 알고 요구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DeSeCo의 생애핵심역량은 각국에서 제출한 보고서와 전문가 분석을 통해 통합 정리된 결과물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이들 세 가지 하위요소의 선정 배경과 내용을 요약한 것이 <표 II-1>이다.

세 가지 하위요소의 개념화 및 측정도구 개발의 정도는 차이를 보이고 있

다. 도구 활용의 경우 OECD 차원에서 지필고사 형태로 독해·문서이해·수리 등의 소양(literacy)을 측정하는 직접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다. 반면 사회적 상호작용과 자율적 행동 부분은 개념화와 장기 목표를 제시하는 수준에서 국제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정도에 머물고 있다. 다만 사회적 상호작용의 경우 ALL에서 최초로 도입한 이래 IEA에서 14세를 대상으로 시민의식에 대한 비교조사를 수행한 바 있으며 DeSeCo는 2010년 성인 역량 조사에서 이 부문을 핵심적 진단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다(OECD, 2005a). 그러나 자율적 행동은 ‘흥미와 학습전략에 대한 자기보고식 평가가 가능하다’(OECD, 2005b)는 제안 정도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DeSeCo의 연구가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한국의 사례를 생산해 내는 선행적 연구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 2. 자율적 행동의 개념

DeSeCo에서 자율적 행동은 ‘개인과 집단이 그들 스스로의 권리와 이익을 요구하고, 그들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며, 목표(goals)를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자율적 행동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혼자 기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자율적인 행동을 위해서는 오히려 이와는 반대로 환경과 사회적 역동, 그리고 자신이 수행하고 또한 수행하기를 원하는 역할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자율적 행동은 개인이 그들의 생활과 환경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의미 있고 책임 있는 방법으로 자신의 삶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진정한 자율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즉, 환경이 어떻게 기능하고 있으며, 자신이 어떻게 하면 환경과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을 것인가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자율적 행동은 사회적 역동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통해 개발되며, 억압당하거나 착취당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DeSeCo, 2002: 12).

DeSeCo에서 자율은 미래지향적이며 자신의 환경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 또한, 사회적 역동과 자신이 수행하고 또한 수행하고 싶은 역할들에 대한 이해를 요한다. 이는 자기이해(self-concept)를 기반으로 개인의 욕구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과 선택 그리고 행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는 것을 포함한다. 즉, 복잡한 세상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목표를 세울 수 있고, 권리를 주장하고 책임감을 가지기 위해, 마지막으로 개인이 처한 자신의 환경을 이해하고 그것의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율적 행동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Rychen, 2003: 92).

Rychen(2003)은 자율적 행동을 협동과 경쟁, 그리고 자원의 공유가 요구되는 관계망 속에서 생활할 때,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과 연대하며 공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여기에는 자신을 위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사회 환경과 함께 주도적으로 상호작용하고 행동을 위한 계획을 개발하고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즉,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하면서도 개인의 관심과 욕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책임감뿐만 아니라 스스로 권리를 방어하고 주장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이 강조된다.

이 외에 역량 관련 국제비교 연구 가운데 자율적 행동을 핵심역량으로 포함하고 있는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미국의 EFF(Equipped for the Future), 뉴질랜드의 NZCF(The New Zealand Curriculum Framework), CCP보고서 가운데 벨기에와 독일, 덴마크 등의 사례를 들 수 있다. EFF는 문제해결과 결정, 계획과 같은 의사결정기술(decision-making skills)에서 특히 자율적 행동이 요구된다고 하였다(<http://eff.cls.utk.edu>). NZCF에서는 자기 관리 및 경쟁 기술(self-management and competitive skills)이 자율적 행동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CCP의 벨기에 보고서에서는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와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positive self-image and being able to act and think autonomously)’이, 독일은 ‘가치 지향(value orientation)’과 관련한 대부분의 행동에 자율적인 행동이 요구된다

고 지적하였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자율적 행동은 내가 속해 있는 환경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나 자신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나의 권리와 욕구의 한계를 인지하면서 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주장하여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또한 자율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중심적인 축이 요구되는데 먼저, 자신의 정체성(가치를 포함하여)을 개발할 것, 둘째, 모든 결정과 선택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자율을 상황과 맥락에 따라 상대적으로 행사(relative autonomy)할 수 있을 것, 마지막으로, 적극적으로 행동(playing)하면서 동시에 주어진 맥락 내에서 책임을 가질 것 등이다.

### 3. 자율적 행동의 하위요소

Rychen과 Salganik(2002)은 자율적 행동이 시민, 근로자, 가족 구성원, 소비자 등 개인이 다양한 역할 속에서 자율적이고 정체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때, ① 자신의 자원, 권리, 한계와 욕구를 분명히 하고 평가와 방어하기, ② 자신의 과제(project)를 결정(forming)하고 수행하기(conducting), ③ 학습 전략을 포함하여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기, ④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체계, 관계, 그리고 주력분야(force fields)를 분석하기 등이 핵심적인 하위요소라고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Perrenoud 등(2001: 132)<sup>3)</sup>은 사회생활에서 의미 있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삶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과 환경을 통제할

---

3) 스위스 제네바대학 교수로, DeSeCo의 생애핵심역량 가운데 자율적 행동의 상당 부분은 그의 연구와 저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는 자율적 행동에 대한 하위요소 상당수는 자율(autonomy) 및 자기 정체성(personal identity) 형성과 관련이 있으며 여기에는 자기관리(self-management)가 포함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자율적 행동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의미하며, 모양이 갖춰지는 것 보다는 모양을 갖추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 의해 결정되고 선택되기 보다는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수 있어야 하며, 이런 자율적 행동은 연습을 통해서 함양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율적 행동은 개인의 사생활과 사회생활 전반에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면서 효과적으로 실천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그는 자율을 위해 요구되는 여덟 가지 역량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자신의 자원·권리·한계, 그리고 욕구를 정의·평가하고, 방어할 수 있는 역량, 둘째, 혼자 혹은 집단 속에서 과제를 결정하고 전략들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 셋째, 상황과 관계, 그리고 주력분야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역량, 넷째, 협력하고 시너지를 만들어 내고, 집단에 참여하고 리더십을 공유할 수 있는 역량, 다섯째, 민주적 형태(democratic-type)의 조직과 집단행동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operate)할 수 있는 역량, 여섯째,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 일곱째, 규칙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고, 그 토대 위에서 뭔가를 고심해서 만들 수 있는(elaborate) 역량, 여덟째, 결정된 순서와 문화적 다양성에 따라 적절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역량 등이다.

DeSeCo는 이와 같은 논의를 근간으로 하여 자율적 행동의 하위요소를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거시적 맥락 속에서 행동하기(The ability to act within the "big picture"), 둘째, 목표와 과제를 수립하고 실천하기(The ability to form and conduct life plans and personal projects), 셋째, 권리와 이익의 한계를 알고 요구하기(The ability to defend and assert one's right, interests, limits, and needs)이다.

#### 1) 거시적 맥락 속에서 행동하기<sup>4)</sup>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한다는 것은 법과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문화 되어 있지 않은 사회적 합의 및 절차(protocol), 그리고 도덕에 부합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내가 살아가는 세상의 구조, 문화, 관습, 그리고 역사를 이해하고 세상이 작동하는 명시적 혹은 묵시적 규칙과 기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포함된다. 즉, 개인이 속한 다양한 체계 속에서 자신의 역할과 다른 사람의 역할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의 행동이 타인과는 어떻게 연결 될 수 있을 것인지, 개인의 행동이 체계에는 어떤 결과로 연결되는지를 이해하는 능력을 말한다.

OECD(2003a, 2003b)는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의 예로, 자원을 보호하기를 들고 있다. 즉, 자원은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나 유한하며, 이러한 자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상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또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기반으로 거시적 맥락에 입각한 행동의 주요 요소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행동 혹은 하나의 사건이 유발하는 장·단기적 결과에 대해 예측할 수 있다. 둘째, 행동의 결과와 장애를 예측하고,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까지도 포함하여 모든 시나리오를 고려한 후 행동을 선택한다. 셋째, 권리를 훼손·유린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 나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넷째, 나의 한계와 단점을 알고, 내 한계를 넘어서는 부당한 과업을 요청받았을 경우 적절한 거절기술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주어진 상황과 맥락을 살피서 계획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부당한 요구에 거절할 수 있으려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최적의 기회가 올때 까지 기다리는 인내심과 자존감이 요구된다.

---

4) ‘거시적 맥락 속에서 행동하기’는 OECD에서도 개념화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관련 선행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여기에서는 OECD의 논의와 이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 및 연구진의 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또한, 기존의 척도로는 측정이 불가할 뿐 아니라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OECD의 논의를 기반으로 하여 측정도구를 자체 제작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EFF는 첫째, 큰 그림 속에서 행동하기(work within the big picture)를 역량의 기반을 이루는 일반적인 행동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눈앞에 놓인 당장의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구조, 문화, 풍습, 그리고 공식적·비공식적 규칙과 개인의 행동을 결정하고 영향을 미치는 체계 전반의 기대 등을 고려한 행동으로 정의된다. 둘째, 체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며, 체계 속에서 나의 역할과 타인의 역할이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된다. 셋째, 체계를 점검하고 변화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행동준거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족, 시민, 근로자로서 큰 그림 속에서 일하기의 예를 들고 있는데, 먼저 가족의 경우 학교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것, 시민의 경우 지역사회 내 사회적 서비스의 전달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안적인 접근을 조직하는 것, 근로자의 경우 고객의 반응과 자체적인 정보에 기반 하여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의 지속적인 발전을 목적으로 변화를 제안하는 것 등이다(<http://eff.cls.utk.edu>).

## 2) 목표와 과제를 수립하고 실천하기

목표와 과제를 수립하고 실천하기는 학습 및 인생 목표와 과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수행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단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며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성공적인 학습이 되도록 학습과정을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Knowles, 1975)으로 정의되는 자기주도적 학습(self-directed learning)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러한 자기주도적 학습을 학습 과정적인 면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접근한 시도로 영국 QCA(The 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Authority)의 핵심기술(key skill)에 대한 정의를 들 수 있다. QCA는 학교 뿐 아니라 직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육과 훈련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기관으로 자기주도적 학습의 개념을 ‘자신의 학습과 수행을 향상

시키기(improving own learning and performance)'로 표현하였다.

이와 함께 EFF가 제안한 역량 요인 가운데 DeSeCo의 논의와 맥락을 같이하는 역량은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 실행하기, 정보를 수집·분석·활용하기, 목표 달성을 위해 기술과 도구를 활용하기 등이다. 이들 역량 요인과 행동준거를 요약하면 <표 II-2>와 같다.

<표 II-2> 생애목표와 과제를 수립하고 실천하기 관련 역량(EFF)

| 역량                     | 행동준거                                                                                                                                                                                   |
|------------------------|----------------------------------------------------------------------------------------------------------------------------------------------------------------------------------------|
|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 실행하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치와 목표를 구체화 하는 비전 분명히 하기</li> <li>· 비전과 양립하는 실천가능한 목표 수립하기</li> <li>· 비전과 목표를 향한 현실적인 계획 개발하기</li> <li>·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대안을 마련하기</li> </ul> |
| 정보 수집·분석·활용하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자원 속에서 정보를 모니터하고 수집하기</li> <li>· 정보의 질에 대한 표준과 적절성 수립하기</li> <li>· 정보의 가치를 평가하기</li> <li>· 체계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영향력 행사하기</li> </ul>            |
| 목표 달성을 위해 기술과 도구를 활용하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사소통, 정보 관리, 문제 해결, 그리고 매일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유용한 도구와 기술의 수준을 유지하기</li> <li>· 목적과 맥락에 가장 적합한 도구를 결정하기</li> <li>· 복잡한 도구, 기계, 설비 등을 활용하기</li> </ul>  |

결론적으로, 생애 목표와 과제를 수립하고 행동하기는 목표 및 과제 설정, 계획수립, 수행, 그리고 평가의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각 단계는 인지적 능력(지식과 전략), 정서적 능력(의지, 자아), 행동적 능력(통제, 활용)을 하위요소로 포함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 3) 권익의 한계를 알고 요구하기

DeSeCo는 자율적 행동의 세 번째 하위요소로 자신의 권리, 이익, 한계, 그리고 욕구를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자신의 흥미와 관심 뿐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사회의 규칙과 원리를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그 토대에서 자신의 욕구와 권리를 파악하고 이를 정당한 방법으로 주장하고, 이 과정에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Perrenoud 등(2001)은 개인이 자원(resource)에 대한 이해와 권한을 가지고 삶의 전반에서 스스로 많은 통제력을 가져야 하며,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주장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권리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 역량은 가족 구성원, 시민, 소비자, 노동자로서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을 능숙하게 통제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된다고 하였다.

권리와 욕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갈등은 당연히 존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하며, 상대방과의 의견 차를 재점검하여 화해를 도모하고 실패한 전략을 분석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규칙이 나에게 불리한 상황이라면 융통성 있게 상황을 모면하거나,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선례 및 사례를 찾아내어 기존 규칙을 다듬는 작업까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서로 다른 관점과 입장을 표현할 수 있는 의사소통기술의 사용을 통해 이견을 상호 조정해 나가는 과정을 기본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 Ⅲ. 자율적 행동 측정도구 개발

1. 자율적 행동의 지표체계
2. 자율적 행동의 측정도구 개발



### III. 자율적 행동 측정도구 개발

#### 1. 자율적 행동의 지표체계

이 연구의 1차 년도(2008년)에는 OECD의 DeSeCo 프로젝트에서 제안하고 있는 세 가지 범주를 토대로 자율적 행동에 대한 개념화와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지표체계를 제시하였다. DeSeCo 프로젝트에서 자율적 행동은 ‘개인은 자신의 생애를 관리하고 확대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자리매김하며 자기주도적으로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하위요소로 첫째,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 둘째, 목표와 과제를 수립하고 실천하기, 셋째, 권리의 한계를 알고 요구하기로 구분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제비교 가능성과 측정내용의 유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수행된 관련 연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 행동을 개념화하고 이와 함께 세 가지 하위요소별로 문항 개발이 가능한 수준의 지표체계를 제시하였다(<표 III-1>).

<표 III-1> 자율적 행동 하위요소의 측정지표

| 하위요소                | 측정영역      | 개념                      | 측정지표              |           |
|---------------------|-----------|-------------------------|-------------------|-----------|
|                     |           |                         | 핵심                | 보조        |
| 거시적 맥락 속에서 행동하기     | 패턴이해      | 사회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이해       | DeSeCo<br><br>EFF |           |
|                     | 체계이해      | 관습·도덕·세상의 이치에 대한 이해, 태도 |                   |           |
|                     | 행동의 결과 인지 | 행동의 결과 예측               |                   |           |
|                     | 행동의 선택    | 행동의 결과를 통제              |                   |           |
| 목표 및 과제를 수립하고 실천하기  | 목표 및 과제설정 | 목표 설정과 계획의 수정           |                   | 자기 주도적 학습 |
|                     | 계획수립      | 정보 수집 및 구체적 계획 수립       |                   |           |
|                     | 수행        | 과업완수에 대한 의지, 신중한 행동     |                   |           |
|                     | 평가        | 결과 검토와 의견 수렴            |                   |           |
| 권리, 이익의 한계를 알고 요구하기 | 흥미 이해     | 관심·흥미에 대한 이해            |                   | 직업흥미검사    |
|                     | 규칙과 원리 이해 | 법·규칙과 상황 원리에 대한 이해      |                   |           |
|                     | 욕구·권리     | 욕구·권리의 한계를 이해하고 주장      |                   |           |
|                     | 대안 제시     | 주장 시기·방법에 대한 이해, 태도     |                   |           |

## 2. 자율적 행동의 측정도구 개발

### 1) 측정도구 최종개발을 위한 전문가 자문

이 연구의 1차년도(2008년)에 연구진이 개발한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측정 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여 전국 단위의 조사도구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 최종문항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의 2차년도인 올해 실시되는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진단조사 도구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자문을 받아 초등학교 수준에서 쉽게 응답할 수 있는 문항으로 수정·선정하는 과정을 거쳐 초등학생용 조사지와 중등학생용 조사지로 구분·개발하였다.

전문가 자문은 2009년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교육학과 교수 및 초등학교 교사 등 2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이메일을 이용하여 예비조사 조사지의 타당성 및 난이도 검토를 위해서 실시하였다.

### 2) 측정도구 최종개발

자율적 행동 역량 측정을 위한 검사 최종문항은 OECD DeSeCo의 논의를 근간으로 하여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The ability to act within the "big picture")’, ‘목표와 과제를 수립하고 실천하기(The ability to form and conduct life plans and personal projects)’, ‘권익의 한계를 알고 요구하기(The ability to defend and assert one's right, interests, limits, and needs)’ 등의 세 영역으로 구성·개발되었다.

#### ①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 영역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에 대한 측정문항 개발을 위하여 DeSeCo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와 EFF(Equipped for the Future)의 논의 가운데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와 관련된 요소를 문항 제작에 반영하였다. EFF에서는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 관련 역량을 큰 그림 속에서 행동하기, 자원관리하기, 변화에 적응하기 등으로 나누고 있다. 큰 그림 속에서 행동하기의 행동준거로는 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정보 수집하기, 나와 체계가 어떻게 관련되며 체계 속에서 나의 역할이 타 인과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알기, 체계를 모니터하고 변화를 예측하기, 체계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영향력 행사하기 등이 있다.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는 우리사회의 주요 문제에 대한 맥락을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와 개인의 행동이 장·단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유발하는지 예측하고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해 정·오답형과 행동빈도 문항, 그리고 태도 문항으로 최종 개발되었다.

〈표 III-2〉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 영역 최종 문항(정오답형)

| 하위<br>요소 | 문항내용                                                                                                                     | 출처                     | 문항                     |
|----------|--------------------------------------------------------------------------------------------------------------------------|------------------------|------------------------|
| 패턴<br>이해 | 다음은 우리나라의 사회 변화에 관한 내용입니다.<br>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노인인구, 출산율, 평균수명, 학생수, 결혼연령, 여성의 경제활동, 다문화가정 등).                     | PISA<br>참고<br>자체<br>개발 | V-46-1<br>부터<br>V-46-7 |
|          | 다음은 우리나라의 인구변화가 가져올 여러 가지<br>결과 중의 하나입니다. 아래 빈칸에 들어가기에 가장<br>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 해 주세요(우리나라<br>사람들이 아이를 적게 낳음으로써 예견되는 결과 등) |                        | V-47                   |
|          | 다음은 노래 음반을 구입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방<br>법과, 각각의 방법에 따른 이익과 손해를 나타낸 표<br>입니다. 아래 표를 보고 질문에 답해 주세요(불법다운<br>로드시 단점과 예상되는 결과 등).      |                        | V-48-1<br>부터<br>V-48-2 |

<표 III-3>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 영역 최종 문항(행동태도)

| 하위<br>요소          | 문항내용                                  | 출처                              | 문항       |
|-------------------|---------------------------------------|---------------------------------|----------|
| 체<br>계<br>이<br>해  | 나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우리 사회의 관습에 대해 알고 있다.     | DeSeCo<br>EFF<br>참고<br>자체<br>개발 | VI-49- 1 |
|                   | 나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다.               |                                 | VI-49- 2 |
|                   | 나는 우리 사회의 도덕적인 기준에 대하여 알고 있다.         |                                 | VI-49- 3 |
|                   | 나는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                                 | VI-49- 4 |
| 행동의<br>결 과<br>인 지 | 나는 내 행동이 남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다.      |                                 | VI-49-11 |
|                   | 나는 뜻하지 않은 일로 오해를 살 때가 있다.             |                                 | VI-49-12 |
| 행동의<br>선 택        | 나는 문제가 생겼을 때 몇 가지 다른 방법들을 비교한 후 행동한다. |                                 | VI-49- 5 |
|                   | 나는 앞날을 내다보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    |                                 | VI-49- 6 |
|                   | 나는 미래를 생각하고 계획을 수정한다.                 |                                 | VI-49- 7 |
|                   | 나는 행동을 할 때 현재보다는 미래에 도움이 되도록 행동한다.    |                                 | VI-49- 8 |
|                   | 나는 내 행동으로 인해 나타날 결과를 미리 생각해 본다.       |                                 | VI-49- 9 |
|                   | 나는 내 행동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나쁜 결과도 생각해 본다.  |                                 | VI-49-10 |

## ② 목표와 과제를 수립하고 실천하기

목표와 과제를 수립하고 실천하기는 목표 및 과제 설정, 계획수립, 수행, 평가 등 네 가지 하위요소별로 행동 및 태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하위요소인 ‘목표 및 과제 설정’은 청소년 발달지표의 측정문항 가운데 목표지향성 문항과 영국 AQA(Assessment and Qualifications Alliance)에서 제시한 핵심기술(Key Skills) 중에서 목표를 세우고 행동을 계획하기(set target and plan actions)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행하기(follow plan to meet own targets)에서 추출한 경력개발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문항(evidence)를 참조하였다(AQA, 2000).



두 번째 하위요소인 ‘계획수립’은 AQA와 함께 윤명희·김진화(2007)의 생활역량 측정도구 가운데 자기성취역량에서 목표설정기술과 관련된 측정도구와 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생애능력 측정도구 중 자기주도적 학습에 관한 측정도구들을 참조하였다. 세 번째 하위요소인 ‘수행’부분은 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자기주도적 학습을 근간으로 하되, PISA 조사에서 2000년에 수행한 범교과 역량(Cross-Curricular Competencies)과 관련된 측정문항을 일부 참고하였다. 마지막으로 ‘평가’부분은 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자기주도적 학습과 관련된 측정 문항과 AQA 측정 문항을 참고하여 제작하였다.

〈표 III-4〉 목표와 과제를 수립하고 실천하기 영역 최종 문항(행동·태도)

| 하위<br>요소        | 문항내용                                     | 출처                 | 문항       |
|-----------------|------------------------------------------|--------------------|----------|
| 목표및<br>과제<br>설정 | 나는 지금 이루고자 하는 삶의 목표가 있다.                 | 자체개발               | VI-51-1  |
|                 | 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도움이 되는 자원(정보)을 활용한다.       | AQA                | VI-51-2  |
|                 | 나는 목표를 세우기 전에 그 목표와 관련된 정보를 모은다.         | AQA                | VI-51-3  |
| 계획<br>수립        | 나는 할 일을 스스로 계획한다.                        | 윤명희외               | VI-51-4  |
|                 | 나는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다.                     | 윤명희외               | VI-51-5  |
|                 | 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다.             | AQA참고              | VI-51-6  |
| 수행              | 나는 아무리 어려워도 해야 할 일은 끝까지 한다.              | KEDI<br>참 고        | VI-51-7  |
|                 | 나는 무슨 일이든 내 일은 혼자 힘으로 해낸다.               | KEDI<br>참 고        | VI-51-8  |
|                 | 나는 오랫동안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편이다.            | PISA<br>참고<br>자체개발 | VI-51-9  |
| 평가              | 나는 계획한 일이 잘되었는지를 스스로 평가한다.               | KEDI<br>참 고        | VI-51-10 |
|                 | 나는 내가 한 일의 결과가 내가 원하던 것인지 생각한다.          | KEDI<br>참 고        | VI-51-11 |
|                 | 나는 내가 한 일의 결과를 평가해보고 다음 할 일을 계획할 때 고려한다. | AQA<br>참 고         | VI-51-12 |

### ③ 권익의 한계를 알고 요구하기

권익의 한계를 알고 요구하기는 흥미이해, 규칙과 원리이해, 욕구와 권리 주장, 대안제시 등 네 가지 하위요소별로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DeSeCo의 논의와 EFF의 역량 가운데 관련 요소를 문항 제작에 전반적으로 반영하였다. 흥미에 대한 이해 부문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2000)의 청소년 직업흥미 검사와 노동부(2000)의 중·고·대학생용 청소년 직업흥미 검사를, 대안제시 부문은 사회적 문제해결 척도의 문항 일부를 참고하였다. 이 외의 문항은 DeSeCo, EFF 등의 이론적 논의를 기반으로 연구진이 자체 제작하였다.

EFF에서는 권리와 이익의 한계를 알고 요구하기 관련 역량을 자기 개발과 표현하기, 권리와 책임감 행사하기, 목표 달성을 위해 기술과 도구를 활용하기 등으로 나누고 있다. 자기 개발과 표현하기의 행동준거로는 자신의 가치·신념을 검토, 명료화하고, 그 가치·신념의 형성 및 표현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문화적 전통과 개인력(personal history)의 역할을 인식하기, 도덕적 기준(standards of integrity)을 유지하기, 행동 방법을 선택할 때 상황의 제약 뿐 아니라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고려하기, 정신적·신체적 건강의 유지를 목적으로 흥미와 재능을 표출하기 등을 들고 있다.

권리와 책임감 행사하기 행동준거로는 가족·시민·근로자로서의 책임감을 인식하고 발휘하기, 법과 규범을 모니터하고 준수하기, 정당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기, 공익을 위한 변화 및 문제해결에 대한 개인적 책임감 가지기 등을, 목표 달성을 위해 기술과 도구를 활용하기의 행동준거로는 의사소통, 정보 관리, 문제 해결, 그리고 매일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유용한 도구와 기술을 최신수준으로 유지하기, 목적과 맥락에 가장 적합한 도구를 결정하기, 복잡한 도구, 기계, 설비 등을 활용하기 등을 들고 있다.

〈표 III-5〉 권익의 한계를 알고 요구하기 영역 최종 문항(행동태도)

| 하위<br>요소          | 문항내용                                              | 출처                          | 문항       |
|-------------------|---------------------------------------------------|-----------------------------|----------|
| 흥 미<br>이 해        |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 한국고용<br>정보원<br>참 고          | VI-52-1  |
|                   | 나는 내가 싫어하는 것(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                             | VI-52-2  |
|                   | 나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                             | VI-52-3  |
| 규칙과<br>원 리<br>이 해 | 나는 이 세상에는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일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                             | VI-52-4  |
|                   |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 |                             | VI-52-5  |
|                   | 나는 주장을 하기 전에 돌아가는 상황과 흐름을 먼저 이해한다.                |                             | VI-52-6  |
| 욕구와<br>권 리<br>주 장 | 나는 나의 당연한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 DeSeCo<br>EFF<br>참고<br>자체개발 | VI-52-7  |
|                   | 나는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나의 권리를 주장한다.                       |                             | VI-52-8  |
|                   | 나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나의 권리를 주장한다.                       |                             | VI-52-9  |
| 대 안<br>제 시        | 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중하게 행동한다.                           |                             | VI-52-10 |
|                   | 나는 주장을 하기 전에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를 찾아본다.               |                             | VI-52-11 |
|                   | 나는 모두가 만족하는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는다.          |                             | VI-52-12 |

마지막으로, 자율적 행동의 세 가지 하위요소에 대한 결과(outcomes)에 해당하는 문항을 도출하였으며 이는 척도의 분석 과정에서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표 III-6〉 자율적 행동(종속변수)

| 하위<br>요소 | 문항내용                     | 출처   | 문항      |
|----------|--------------------------|------|---------|
| 종속<br>변수 | 친구들로부터 어른스럽다는 말을 듣는다.    | 자체개발 | VI-50-1 |
|          | 선생님으로부터 믿음직스럽다는 소리를 듣는다. |      | VI-50-2 |
|          | 부모님으로부터 철이 없다는 소리를 듣는다.  |      | VI-50-3 |



#### **IV. 자율적 행동에 대한 청소년기 핵심역량 진단조사 결과**

1. 자율적 행동 지표의 내적 일치도 분석
2. 자율적 행동 역량의 차이 분석
3. 학교생활과 자율적 행동 역량의 관계
4. 개인 활동과 자율적 행동 역량의 관계
5. 상관분석과 계층적 회귀분석(HRM)



## IV. 자율적 행동에 대한 청소년기 핵심역량 진단조사결과

### 1. 자율적 행동 지표의 내적일치도 분석

#### 1) 하위 척도별 신뢰도 분석

자율적 행동의 세 가지 하위 영역에 해당하는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alpha를 측정했다. 그 결과,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에 해당하는 총 12개의 태도척도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881로 나타났다.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의 하위영역인 패턴이해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정오답형 검사 척도의 문항간 신뢰도는 .792로서 일관된 척도로서 인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두 가지 척도를 근거로 거시적 맥락 속에서 행동하기 역량의 점수를 산출하였다.

두 번째 하위 영역인 ‘목표 및 과제 수립하기’ 척도의 신뢰도 분석 결과, 총 12개의 문항의 내적 일치도는 .903 으로 매우 높았으며, 마지막으로 ‘욕구와 권리를 이해하고 주장하기’ 척도에 해당하는 12개의 문항간 내적 일치도 역시 .921로 매우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1차 년도에 예비조사를 통해 확인한 신뢰도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단, 본 연구에서 전문가 자문을 통해 1차 년도에 개발한 문항을 교체하거나 추가한 결과, 영역1 (거시적 맥락)과 영역2 (목표와 과제를수립·행동)및 영역3 (권익한계이해·요구) 척도의 신뢰도는 모두 증가했다. 그러나 문항별 신뢰도에서는 전체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정도가 높은 문항이 있어서 1차 년도에 사용한 문항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 신뢰도 분석결과는 <표 IV-1>에 정리했다.

〈표 IV-1〉 자율적 행동 역량척도의 1차년도와 2차년도 신뢰도 비교

| 하위영역                      | 2008 신뢰도 | 2009 신뢰도 |
|---------------------------|----------|----------|
| 영역1.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        | .853     | .881     |
| 영역2. 목표와 과제를 수립하고<br>실천하기 | .901     | .903     |
| 영역3. 권익의 한계를 알고 요구하기      | .909     | .921     |
| 패턴이해 (정오답형)               | NA       | .792     |

## 2) 하위 척도간 상관관계 분석

이들 하위 영역별 측정결과간의 양방성 상관관계수(Pearson's  $r$ )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모든 하위영역 점수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단, 정오답형 패턴이해 검사척도의 총점과 나머지 태도검사 점수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했으나 절대값이 적었다. 이는 관계가 있으나 그것이 뚜렷한 선형관계로 나타나지는 않음을 시사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와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표 IV-2).

〈표 IV-2〉 자율적 행동 역량의 하위 영역별 신뢰도 및 상관관계 분석 결과

| 하위영역                      | 영역간 상관관계수 |        |        |        | 신뢰도  |
|---------------------------|-----------|--------|--------|--------|------|
|                           | 영역1       | 영역2    | 영역3    | 패턴이해   |      |
| 영역1.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        |           | .625** | .581** | .229** | .881 |
| 영역2. 목표와 과제를 수립하고<br>실천하기 |           |        | .687** | .137** | .903 |
| 영역3. 권익의 한계를 알고<br>요구하기   |           |        |        | .166** | .921 |
| 패턴이해 (정오답형)               |           |        |        |        | .792 |



## 2. 자율적 행동 역량의 차이 분석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해 확인된 역량지표들을 기초로 자율적 행동에 해당하는 3개 영역의 역량 점수의 성별, 지역별, 연령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 1) 자율적 행동 하위 역량의 성별차이 분석

성별에 따른 자율적 역량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패턴이해능력을 제외한 모든 하위 영역에서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특히 욕구와 권리의 한계를 이해하고 주장하기 영역에서 여자 청소년들이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자기주장성(self assertion)을 발휘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덜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결과는 매우 흥미롭다. 하지만 정오답형 문항으로 구성된 패턴이해 능력에서는 반대로 남자청소년들이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는 점도 특기할 필요가 있다.

〈표 IV-3〉 성별에 따른 역량점수의 차이검증결과

|         | 성별  | 평균   | 표준편차  | t        |
|---------|-----|------|-------|----------|
| 거시적 맥락  | 남학생 | 3.14 | 0.679 | 4.35***  |
|         | 여학생 | 3.19 | 0.617 |          |
| 목표수립·실천 | 남학생 | 3.23 | 0.743 | 0.72***  |
|         | 여학생 | 3.29 | 0.726 |          |
| 권익요구    | 남학생 | 3.55 | 0.774 | 24.44*** |
|         | 여학생 | 3.64 | 0.687 |          |
| 패턴이해    | 남학생 | 0.30 | 0.043 | 14.15*** |
|         | 여학생 | 0.29 | 0.044 |          |

\*  $p < .05$  \*\*  $p < .01$  \*\*\*  $P < .001$

## 2) 자율적 행동 하위 역량의 지역별 차이 분석

거주 지역에 따른 역량의 차이는 <표IV-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전반적으로 서울과 다른 대도시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세한 경향이 있었으나 영역에 따라 그 패턴은 달랐다. 거시적 맥락 영역과 목표설정 영역, 그리고 권익요구 영역의 역량점수는 서울과 부산지역이 가장 높았고, 패턴이해 영역의 점수는 광주와 부산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에 따른 역량수준의 차이보다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차이가 더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권역별 비교 분석을 다시 실시했다. 그 결과 역시 권역에 따른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서울지역이 모든 역량에서 가장 높고 광역시 지역, 시군지역의 순으로 낮아졌다. 이 권역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표IV-4> 거주지에 따른 자율적 역량점수의 차이

|    | 거시적맥락    | 목표설정     | 권익요구     | 패턴이해     |
|----|----------|----------|----------|----------|
| 서울 | 3.22     | 3.33     | 3.66     | .639     |
| 부산 | 3.22     | 3.30     | 3.64     | .652     |
| 대구 | 3.15     | 3.19     | 3.54     | .623     |
| 인천 | 3.19     | 3.29     | 3.63     | .604     |
| 광주 | 3.15     | 3.28     | 3.57     | .687     |
| 대전 | 3.17     | 3.26     | 3.61     | .597     |
| 울산 | 3.11     | 3.22     | 3.57     | .624     |
| 경기 | 3.18     | 3.28     | 3.63     | .624     |
| 강원 | 3.11     | 3.18     | 3.48     | .643     |
| 충청 | 3.12     | 3.22     | 3.52     | .600     |
| 전라 | 3.06     | 3.20     | 3.51     | .610     |
| 경상 | 3.10     | 3.20     | 3.53     | .596     |
| 전체 | 3.16     | 3.26     | 3.59     | .625     |
| F값 | 4.828*** | 3.764*** | 5.109*** | 4.620*** |

\* p< .05 \*\* p< .01 \*\*\* P< .001

〈표VI-5〉 거주지 권역에 따른 자율적 역량점수의 차이

|     | 거시적맥락     | 목표설정     | 권익요구     | 패턴이해     |
|-----|-----------|----------|----------|----------|
| 서울  | 3.22      | 3.33     | 3.66     | .639     |
| 광역시 | 3.17      | 3.26     | 3.60     | .633     |
| 시군  | 3.14      | 3.24     | 3.57     | .615     |
| 전체  | 3.16      | 3.26     | 3.59     | .625     |
| F값  | 10.228*** | 7.870*** | 9.726*** | 5.553*** |

\*  $p < .05$  \*\*  $p < .01$  \*\*\*  $P < .001$

〈표 IV-6〉 부모 학력에 따른 자율적 역량점수의 차이

|           |      | 거시적맥락     |          | 목표설정      |          | 권익요구      |          | 패턴이해      |          |
|-----------|------|-----------|----------|-----------|----------|-----------|----------|-----------|----------|
|           |      | 평균        | 표준<br>편차 | 평균        | 표준<br>편차 | 평균        | 표준<br>편차 | 평균        | 표준<br>편차 |
| 아버지<br>학력 | 고졸미만 | 3.03      | 0.69     | 3.12      | 0.67     | 3.45      | 0.65     | 0.63      | 0.30     |
|           | 고졸   | 3.10      | 0.60     | 2.99      | 0.72     | 3.24      | 0.74     | 0.63      | 0.29     |
|           | 대졸미만 | 3.12      | 0.66     | 3.08      | 0.78     | 3.46      | 0.78     | 0.56      | 0.30     |
|           | 대졸이상 | 3.30      | 0.66     | 3.17      | 0.72     | 3.51      | 0.70     | 0.67      | 0.29     |
|           | F    | 68.433*** |          | 45.986*** |          | 34.994*** |          | 36.735*** |          |
| 어머니<br>학력 | 고졸미만 | 3.05      | 0.61     | 3.16      | 0.67     | 3.46      | 0.67     | 0.65      | 0.29     |
|           | 고졸   | 3.13      | 0.59     | 3.22      | 0.72     | 3.57      | 0.72     | 0.64      | 0.29     |
|           | 대졸미만 | 3.15      | 0.71     | 3.29      | 0.77     | 3.60      | 0.78     | 0.55      | 0.29     |
|           | 대졸이상 | 3.30      | 0.64     | 3.39      | 0.71     | 3.70      | 0.70     | 0.65      | 0.29     |
|           | F    | 45.428*** |          | 35.358*** |          | 25.223*** |          | 27.680*** |          |

\*  $p < .05$  \*\*  $p < .01$  \*\*\*  $P < .001$

### 3) 부모의 학력에 따른 자율적 행동 하위 역량의 차이 분석

부모 학력에 따른 역량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모든 하위역량과 자율적 행동역량 전체에서 모두 뚜렷하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자녀의 역량도 낮고 부모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역량 정도가 높았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점은 목표설정과 패턴이해영

역에서 부모의 학력이 고졸 미만인 경우보다는 대학중퇴나 2년제 대학 졸업인 경우에 자녀의 역량점수가 더 낮은 경향을 보여 대학중퇴자가 단순 대학 미진학자와는 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이다. 이는 1차 년도의 조사결과와도 일치한다.

#### 4) 가정의 경제적 지위에 따른 자율적 역량의 차이

응답자들의 가정환경에 따른 자율적 역량과 그 하위 변인들의 차이를 살펴 보기 위하여 청소년들에게 자기 가정의 생활수준을 최하층에서 최상층까지 7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점수를 근거로 역량점수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들이 스스로 평가한 자기 가정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자율적 역량점수에서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Duncan방식에 의한 사후검증결과 모든 영역에서 최하층이 중간층들 보다 유의미하게 낮았고, 최상층이 아닌 상층이 나머지 계층들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패턴이해 능력에서는 반대 경향이 나타났다. 최상층이 패턴이해 점수가 가장 낮았고, 최하층이 아닌 하층이라고 평가한 청소년들이 가장 높았다.

<표 IV-7> 가정의 경제적 지위에 따른 자율적 역량의 차이

|     | 거시적맥락     |          | 목표설정      |          | 권익요구      |          | 패턴이해      |          |
|-----|-----------|----------|-----------|----------|-----------|----------|-----------|----------|
|     | 평균        | 표준<br>편차 | 평균        | 표준<br>편차 | 평균        | 표준<br>편차 | 평균        | 표준<br>편차 |
| 최하층 | 3.062     | 0.839    | 3.062     | 0.984    | 3.480     | 0.930    | 0.653     | 0.262    |
| 하층  | 3.050     | 0.641    | 3.159     | 0.725    | 3.529     | 0.729    | 0.679     | 0.287    |
| 중하층 | 3.092     | 0.613    | 3.189     | 0.733    | 3.539     | 0.706    | 0.677     | 0.279    |
| 중간층 | 3.107     | 0.609    | 3.188     | 0.688    | 3.530     | 0.701    | 0.621     | 0.303    |
| 중상층 | 3.274     | 0.798    | 3.408     | 0.742    | 3.719     | 0.720    | 0.626     | 0.288    |
| 상층  | 3.424     | 1.046    | 3.576     | 0.789    | 3.859     | 0.806    | 0.580     | 0.293    |
| 최상층 | 3.413     | 0.807    | 3.467     | 0.969    | 3.751     | 1.095    | 0.443     | 0.304    |
| F   | 39.506*** |          | 44.691*** |          | 30.880*** |          | 21.448*** |          |

\*  $p < .05$  \*\*  $p < .01$  \*\*\*  $P < .001$

### 5) 자율적 역량과 학교생활만족도의 관계

자율적 역량이 학교생활 만족도와 실제로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우선 양방향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율적 행동 역량 및 그 하위역량들과 학교적응 점수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자율적 행동역량이 높을수록 학교적응도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기울기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자율적 행동 역량이 학교생활 적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표 IV-8〉 자율적 역량과 학교만족도

|                 | 학교생활만족도  |
|-----------------|----------|
|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   | 0.118*** |
| 목표/과제 수립하고 실천하기 | 0.132*** |
| 권익의 한계 알고 요구하기  | 0.109*** |
| 패턴이해            | 0.139*** |

\*  $p < .05$  \*\*  $p < .01$  \*\*\*  $P < .001$

### 6) 자율적 역량과 학업성적의 관계

응답자들에게 자신의 학업성적을 전체성적과 국어·영어·수학 성적에 대해 각각 상위10%(5점)에서 하위10%(1점)까지 5점 척도로 질문하여 그 평균 점수로 응답자들의 학업성적을 정의했다. 이렇게 산출된 학업성적이 자율적 역량점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두 변인간의 양방성 상관계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율적 행동 역량과 그 하위 역량 모두에서 학업성적과 비교적 뚜렷한 정적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 상관계수도 비교적 높아서 0.2 내외로 나타났다. 이는 자율적 행동 역량이 높을수록 학업성적도 더 높은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패턴이해 점수와 학업 성적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IV-9〉 자율적 행동 역량과 학업성적

|                 | 학업성적     |
|-----------------|----------|
|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   | 0.208*** |
| 목표/과제 수립하고 실천하기 | 0.220*** |
| 권익의 한계 알고 요구하기  | 0.196*** |
| 패턴이해            | 0.005    |

\*  $p < .05$  \*\*  $p < .01$  \*\*\*  $P < .001$

#### 7) 자율적 역량과 학교 내 문제행동과의 관계

응답자들의 학교적응을 측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응답자들이 학교 내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제행동을 측정하였다. 문제행동에는 휴학경험, 지각, 무단결석, 교내징계가 포함되었으며 각 문제행동 영역별로 최근 1년간 얼마나 자주 그 행동을 했는지를 질문하였다. 응답자들은 각 질문들에 대하여 없다(1점)에서 다섯 번이상(4점)의 4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인 역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 즉, 자율적 행동 역량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내 문제행동은 적은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그 경향은 뚜렷하지 않았다.

학교내 문제행동과 가장 뚜렷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인 변인은 패턴이해 점수였다. 패턴이해 점수는 휴학경험과는 뚜렷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다른 문제행동과도 비록 그 경향성은 낮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관계가 있었다. 지각이나 무단결석은 나머지 자율적 역량 점수들과도 부적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표 IV-10〉 자율적 역량과 학교내 문제행동빈도와의 상관관계

|               | 휴학 경험     | 지각        | 무단결석      | 교내 징계     |
|---------------|-----------|-----------|-----------|-----------|
| 거시적 맥락 행동하기   | -0.014    | -0.090*** | -0.066*** | -0.016    |
| 목표수립과 실천하기    | -0.007    | -0.088*** | -0.056*** | -0.009    |
| 권익 한계 알고 요구하기 | -0.010    | -0.061*** | -0.059*** | -0.024**  |
| 패턴이해          | -0.125*** | -0.041*** | -0.079*** | -0.084*** |

\*  $p < .05$  \*\*  $p < .01$  \*\*\*  $P < .001$

## 8) 자율적 역량과 건강 및 시간관리의 관계

자율적 역량은 자율적인 자기관리와 관계가 있는 변인이다. 뉴질랜드에서는 그래서 이 영역을 아예 자기관리하기(managing self)라고 이름 붙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건강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그리고 학교 수업과는 상관없이 스스로 찾아서 한번에 30분 이상 운동하는 빈도와 스스로 책을 읽는 시간이 일주일에 얼마나 되는지를 질문하여 그 결과와 자율적 행동 역량지표간의 양방향 상관계수를 점검하였다.

그 결과 건강만족도와 자율운동의 빈도는 거시적 맥락과 패턴이해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자율적 행동역량 지표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상관계수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특이하게도 패턴이해 점수는 건강만족도, 자율운동빈도, 독서시간 모두와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스스로 책을 읽는 시간은 패턴이해능력 점수를 제외한 모든 자율적 행동역량 점수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관계수의 크기는 자율적 행동역량이 독서시간과 뚜렷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이었다.

〈표 IV-11〉 자율적 역량과 건강관련 변인의 상관관계

|               | 건강만족도     | 자율운동빈도    | 독서시간     |
|---------------|-----------|-----------|----------|
| 거시적 맥락 행동하기   | 0.017     | -0.048    | 0.098*** |
| 목표수립과 실천하기    | 0.043***  | 0.105***  | 0.100*** |
| 권익 한계 이해/요구하기 | 0.046***  | -0.059*** | 0.081*** |
| 패턴이해          | -0.138*** | -0.091*** | -0.025*  |

\*  $p < .05$  \*\*  $p < .01$  \*\*\*  $P < .001$

### 3. 학교생활과 자율적 행동역량의 관계

청소년이 가진 자율적 행동역량은, 성장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길러지기도 하고 더불어 그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활동과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청소년의 발달과정을 고려할 때, 특히 학교는 청소년들의 역량을 형성하도록 돕는 공간이면서 청소년들의 자율적 행동역량이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 영향을 드러내도록 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들의 자율적 행동 역량을, 학교생활 만족도, 자신의 학교에 대한 인식, 학교에서의 문제행동, 진로계획, 학교 성적 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 1) 학교 생활만족도와 자율적 행동역량

청소년들의 학교 생활만족도와 자율적 행동역량 관계를 학교급별로 살펴 보았다. 학교만족도는 학교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정도를 질문한 것을 사용하였다.

##### (1) 초등학생

초등학생 시기는 학교생활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인지적으로는 구체적 조작기에서 형식적 조작기로 발달하면서 다른 어떤 시기의 학교생활에 비해서 큰 변화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때이다. 또한 청소년들은 중·고등학교 시기에 비하여 초등학교시기에는 학습자로서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더 보장되는 교수학습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초등학생들의 학교 만족도와 자율적 행동 역량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IV-12>와 같다.

우선 성별로 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학교 만족도’와 자율적 행동 역량의 하위 영역인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 ‘목표/과제 수립 실천’, ‘권익의 한계 이해 / 요구’ 세 영역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정적



인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상관계수는 .01수준이어서 상호간의 영향력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자율적 행동역량의 하위영역 중 ‘목표/과제 수립 실천’과 학교 만족도간의 상관계수가 가장 높으며, 그 다음에서는 남학생의 경우는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가, 여학생은 ‘권익의 한계이해/요구하기’의 영향력이 더 높은 편이어서 성별로 차이를 보인다.

<표 IV-12> 초등학생의 학교 만족도와 자율적 행동역량 하위영역간 상관관계

|                | 학교만족도  |        |        |
|----------------|--------|--------|--------|
|                | 남학생    | 여학생    | 전체     |
|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  | .137** | .078** | .110** |
| 목표/과제 수립 실천하기  | .155** | .153** | .155** |
| 권익의 한계 이해/요구하기 | .098** | .123** | .111** |
| 자율적 행동역량 전체    | .158** | .144** | .153** |

\* p< .05 \*\* p< .01 \*\*\* P< .001

이러한 성별 차이가 자율적 행동역량의 세부영역과 학교 만족도와의 상관관계에서 어떤 경향을 보이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IV-13>과 같다. 남학생의 경우 ‘패턴이해’와 ‘규칙·권리이해’, 여학생의 경우 ‘패턴이해’를 제외한 자율적 행동역량의 나머지 세부영역과 학교 만족도간에는 정적인 상관을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상관계수가 낮아서 그 영향력은 미미하다.

초등학생의 자율적 행동역량의 세부영역과 학교 만족도의 상관에서의 성별 차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남학생의 경우 학교 만족도와의 상관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세부영역은 ‘목표 및 과제 설정하기’, ‘체계 이해하기’이며, 여학생은 ‘행동 결과 인지’와 ‘수행’으로 나타나서 성별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상관계수가 .1수준으로 낮아서 그 영향력에서는 성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표 IV-13〉 초등학생의 학교만족도와 자율적 행동역량 세부영역간 상관관계

|                |            | 학교만족도  |        |        |
|----------------|------------|--------|--------|--------|
|                |            | 남학생    | 여학생    | 전체     |
|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  | 패턴이해       | .053   | -.016  | .022   |
|                | 체계이해       | .152** | .111** | .134** |
|                | 행동결과 인지    | .120** | .175** | .108** |
| 목표/과제 수립 실천하기  | 목표 및 과제 설정 | .160** | .092** | .169** |
|                | 계획수립       | .140** | .147** | .145** |
|                | 수행         | .109** | .159** | .132** |
|                | 평가         | .148** | .122** | .138** |
| 권익의 한계 이해/요구하기 | 흥미 이해      | .097** | .098** | .099** |
|                | 규칙원리 이해    | .036   | .079** | .058** |
|                | 욕구권리주장     | .096** | .095** | .096** |
|                | 대안         | .101** | .145** | .122** |

\*  $p < .05$  \*\*  $p < .01$  \*\*\*  $P < .001$

## (2) 중학생

중학생의 ‘학교 만족도’와 ‘자율적 행동역량’ 하위영역간의 상관관계를 성별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IV-14〉과 같다. 중학생의 경우 학교만족도와 자율적 행동역량의 하위영역간 상관관계는 성별에 구분 없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정적인 상관을 보이지만 상관계수는 .1수준으로 낮아서 상호간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성별로 보면 남학생은 ‘권익의 한계 이해/요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을 보이며, 여학생은 ‘목표/과제 수립 실천’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을 보인다.

〈표 IV-14〉 중학생의 학교만족도와 자율적 행동역량 하위영역간 상관관계

|                | 학교만족도  |        |        |
|----------------|--------|--------|--------|
|                | 남학생    | 여학생    | 전체     |
|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  | .106** | .128** | .115** |
| 목표/과제 수립 실천하기  | .108** | .135** | .120** |
| 권익의 한계 이해/요구하기 | .118** | .103** | .111** |
| 자율적 행동역량 전체    | .133** | .146** | .138** |

\*  $p < .05$  \*\*  $p < .01$  \*\*\*  $P < .001$

중학생의 학교 만족도와 자율적 행동역량의 세부영역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IV-15>와 같다. 중학생의 학교 만족도와 자율적 행동역량의 세부 영역 전반에서 성별과 관계없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을 보였지만, 상관계수는 대체로 낮은 편이고 남학생의 경우 패턴이해능력과 학교만족도 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남학생의 경우 학교 만족도와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자율적 행동역량의 하위영역은 ‘권익의 한계 이해/ 요구’이고, 여학생의 경우는 ‘목표/과제 수립 실천’이지만, 세부영역과 학교 만족도간의 상관관계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다.

<표 IV-15> 중학생의 학교만족도와 자율적 행동역량 세부영역간 상관관계

|                   |            | 학교만족도  |        |        |
|-------------------|------------|--------|--------|--------|
|                   |            | 남학생    | 여학생    | 전체     |
| 거시적 맥락에서<br>행동하기  | 패턴이해       | .036   | .064*  | .046*  |
|                   | 체계이해       | .124** | .137** | .130** |
|                   | 행동결과 인지    | .112** | .120** | .116** |
| 목표/과제 수립<br>실천하기  | 목표 및 과제 설정 | .088** | .100** | .093** |
|                   | 계획수립       | .097** | .110** | .101** |
|                   | 수행         | .091** | .127** | .111** |
|                   | 평가         | .090** | .119** | .102** |
| 권익의 한계<br>이해/요구하기 | 흥미 이해      | .114** | .090** | .102** |
|                   | 규칙원리 이해    | .102** | .061*  | .082** |
|                   | 욕구권리주장     | .101** | .092** | .097** |
|                   | 대안         | .097** | .101** | .099** |

\*  $p < .05$  \*\*  $p < .01$  \*\*\*  $P < .001$

### (3) 고등학생

입시위주의 교육이나 진로 등을 결정해야 하는 고등학생들의 삶에서 학교 만족도나 자율적 행동역량의 실천은 이전의 학교급에 비해 낮은 것이다. 그렇다면 이 둘의 관계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 만족도와 ‘자율적 행동역량’의 하위영역 및 세부영역과의 상관관계는 다음의 <표 IV-16>, <표 IV-17>과 같다.

<표 IV-16> 고등학생의 학교만족도와 자율적 행동역량 하위영역간 상관관계

|                | 학교만족도  |        |        |
|----------------|--------|--------|--------|
|                | 남학생    | 여학생    | 전체     |
|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  | .033   | .183** | .096** |
| 목표/과제 수립 실천하기  | .078** | .124** | .098** |
| 권익의 한계 이해/요구하기 | .036   | .111** | .068** |
| 자율적 행동역량 전체    | .058*  | .160** | .102** |

\* p< .05 \*\* p< .01 \*\*\* P< .001

고등학교 남학생의 경우 학교 만족도와 자율적 행동역량의 하위영역 중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 것은 ‘목표/과제 수립 실천’이 유일한데, 이 점수도 상관계수 매우 낮아서 영향이 매우 미미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여학생의 경우는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을 보이는데 전반적인 상관관계는 대체로 낮은 편이지만,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영역은 .183의 상관을 보여 학교만족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표 IV-17> 고등학생의 학교만족도와 자율적 행동역량 세부영역간 상관관계

|                   |            | 학교만족도  |        |        |
|-------------------|------------|--------|--------|--------|
|                   |            | 남학생    | 여학생    | 전체     |
| 거시적 맥락에서<br>행동하기  | 패턴이해       | -.006  | .109** | .042*  |
|                   | 체계이해       | .055*  | .154** | .095** |
|                   | 행동결과 인지    | .053*  | .179** | .017** |
| 목표/과제 수립<br>실천하기  | 목표 및 과제 설정 | .094** | .128** | .110** |
|                   | 계획수립       | .062*  | .102** | .081** |
|                   | 수행         | .051*  | .081** | .062** |
|                   | 평가         | .047   | .090** | .066** |
| 권익의 한계<br>이해/요구하기 | 흥미 이해      | .027   | .059*  | .042*  |
|                   | 규칙원리 이해    | .036   | .073** | .054** |
|                   | 욕구권리주장     | .020   | .134*  | .069** |
|                   | 대안         | .039   | .105** | .067** |

\* p< .05 \*\* p< .01 \*\*\* P< .001

고등학생의 자율적 행동역량 세부영역과 학교 만족도의 상관을 보면, 남학생의 경우는 ‘목표 및 과제 설정’을 포함한 5가지 영역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을 보이며,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는 경우에도 상관계수는 .1을 넘지 않아서 상관이 매우 미약하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학생은 자율적 행동역량의 모든 세부영역에서 학교만족도와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을 보이는데, 특히 다른 세부영역과 비교하여 ‘행동결과 인지’와 ‘체계이해’ 부분에서 학교 만족도와 상관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서 상호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를 보면 고등학생의 경우 남학생의 학교만족도와 자율적 행동역량은 거의 상관이 없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는 약하기는 하지만 학교만족도와 자율적 행동역량 간에 긍정적인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2) 학교에 대한 인식과 자율적 행동역량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인식과 자율적 행동역량의 관계를 학교급별로 살펴 보았다. 이를 위해 살펴본 학교에 대한 인식에서는 ‘수업 시간 재미정도’, ‘학생 의견 반영정도’, ‘전학 희망정도’, ‘좋은 학업 분위기’, ‘교칙의 엄격성’으로 세분하여 살펴보았다.

### (1) 초등학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인식과 자율적 행동역량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IV-18>과 같다. 우선 ‘수업 시간 흥미정도’와 자율적 행동역량의 하위영역간의 상관을 보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25~.28 수준의 정적인 상관계수를 보여주고 있어서, 두 변인간에 긍정적인 연관성이 있다. ‘학생 의견 반영정도’와 자율적 행동역량의 하위영역간의 상관에서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정적인 상관을 보이지만, 상관계수는 약간 낮아서 상호간에 긍정적인 영향이 약하게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학 희망정도’와 자율적 행동역량 하위영역간의 상관에서는 상관계수가 작기는 하지만,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인 상관을 보

여 상호간에 부정적인 영향력이 미약하게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좋은 학업 분위기’와 자율적 행동역량간의 상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모두 정적인 상관을 보여 좋은 학업 분위기는 학생들의 자율적 행동역량의 하위영역과 어느 정도 긍정적인 상관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교칙의 엄격성’과 자율적 행동역량간의 관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은 약하지만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이렇게 보면 초등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인식 중 자율적 행동역량의 하위 영역과 가장 큰 상관을 보이는 부분은 ‘수업시간 재미정도’와 ‘학생 의견 반영 정도’로 볼 수 있다. 즉 수업시간이 재미있을수록, 학생의 의견 반영이 잘 되는 학교나 학급일수록 학생들의 자율적 행동역량이 높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초등학교는 발달과정에 있는 초등학생들의 자율적 행동역량을 높이도록 학교나 학급 분위기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수업 시간 흥미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IV-18> 초등학생의 학교 인식과 자율적 행동역량 하위영역간 상관관계

|                | 수업시간<br>재미정도 | 학생의견<br>반영정도 | 전학<br>희망정도 | 좋은<br>학업분위기 | 교칙의<br>엄격성 |
|----------------|--------------|--------------|------------|-------------|------------|
|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  | .267**       | .190**       | -.069**    | .121**      | .054*      |
| 목표/과제 수립 실천하기  | .280**       | .210**       | -.082**    | .183**      | .012       |
| 권익의 한계 이해/요구하기 | .255**       | .175**       | -.083**    | .143**      | .019       |
| 자율적 행동역량 전체    | .315**       | .231**       | -.100**    | .182**      | .036       |

\* p< .05 \*\* p< .01 \*\*\* P< .001

초등학생의 학교에 대한 인식과 자율적 행동역량의 세부영역간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IV-19>와 같다.

<표 IV-19> 초등학생의 학교 인식과 자율적 행동역량 세부영역간 상관관계

|                        |            | 수업시간<br>재미정도 | 학생의견<br>반영정도 | 전학<br>희망정도 | 좋은<br>학업분위<br>기 | 교칙의<br>엄격성 |
|------------------------|------------|--------------|--------------|------------|-----------------|------------|
| 거시적<br>맥락에서<br>행동하기    | 패턴이해       | .138**       | .080**       | -.024      | .031            | .060**     |
|                        | 체계이해       | .260**       | .195**       | -.056**    | .129**          | .034       |
|                        | 행동결과 인지    | .228**       | .228**       | -.116**    | .179**          | .006       |
| 목표/과<br>제 수립<br>실천     | 목표 및 과제 설정 | .281**       | .169**       | -.065**    | .140**          | .032       |
|                        | 계획수립       | .262**       | .204**       | -.065**    | .185**          | .016       |
|                        | 수행         | .224**       | .159**       | -.059**    | .143**          | -.016      |
|                        | 평가         | .226**       | .172**       | -.085**    | .146**          | .006       |
| 권익의<br>한계<br>이해/요<br>구 | 흥미 이해      | .153**       | .115**       | -.099**    | .106**          | -.012      |
|                        | 규칙원리 이해    | .151**       | .123**       | -.058**    | .106**          | -.015      |
|                        | 욕구권리주장     | .213**       | .175**       | -.046**    | .125**          | .028       |
|                        | 대안         | .245**       | .181**       | -.083**    | .147**          | .032       |

\* p< .05 \*\* p< .01 \*\*\* P< .001

초등학생의 ‘수업 시간 재미정도’와 자율적 행동역량의 세부영역별 상관을 보면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을 보인다. 특히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영역은 ‘목표 및 과제 설정’과 ‘계획 수립’인데, 이들 영역과 ‘수업시간 재미정도’와의 상관계수는 .26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또한 ‘학생 의견 반영정도’와 자율적 행동역량의 세부영역간의 상관을 보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정적인 상관을 보이며 비교적 높은 상관계수를 보이는 항목은 ‘행동결과 인지’와 ‘계획 수립’이다. 학교에 대한 인식 중 ‘전학 희망 정도’와 자율적 행동역량의 세부영역간의 상관계수를 보면 모두 부적인 상관을 보이지만 상관계수는 상당히 약하다. ‘좋은 학업 분위기’와 자율적 행동역량의 세부 영역간의 상관계수는 정적인 상관을 보이고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만 영향력은 약해 보인다. 그리고 ‘교칙의 엄격성’은 오직 ‘패턴이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약한 정적 상관을 보여 상호간의 영향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초등학생들은 ‘체계 이해’ 및 ‘목표 과제 설정’ 그리고 ‘계획수립’을 잘 할수록 수업시간에 재미

를 느끼는 정도가 높고 ‘학생의견 반영정도’가 높을수록 자신의 행동 결과를 잘 인지하고 계획 수립 등의 자율적 행동역량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2) 중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인식과 자율적 행동역량의 하위영역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IV-20>과 같다. 중학생의 경우 ‘수업시간 재미정도’와 자율적 행동역량의 하위영역간 상관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정적인 상관을 보이지만, 상관계수는 약한 편이다. ‘학생의 의견 반영 정도’와 자율적 행동역량 하위영역간의 상관계수 또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정적인 상관을 보이지만 상관계수는 매우 작아서 상호간의 영향력이 미약함을 알 수 있다. ‘전학 희망정도’와 자율적 행동역량 하위영역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부적인 상관을 보이며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만 영향력은 미약하다. ‘좋은 학업 분위기’는 자율적 행동역량의 하위영역 중 ‘목표/과제 수립 실천’과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정적인 약한 상관을 보임을 알 수 있다. ‘교칙의 엄격성’과 관련해서는 ‘권익의 한계 이해/ 요구’와 관련하여 정적인 상관이 나타났지만 상호간의 영향력은 미미했다.

<표 IV-20> 중학생의 학교 인식과 자율적 행동역량 하위영역간 상관관계

|                | 수업시간<br>재미정도 | 학생의견<br>반영정도 | 전학<br>희망정도 | 좋은<br>학업분위기 | 교칙의<br>엄격성 |
|----------------|--------------|--------------|------------|-------------|------------|
|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  | .171**       | .046*        | -.051*     | .001        | -.021      |
| 목표/과제 수립 실천하기  | .173**       | .093*        | -.071*     | .088**      | .013       |
| 권익의 한계 이해/요구하기 | .116**       | .061**       | -.059**    | .034        | .046*      |
| 자율적 행동역량 전체    | .183**       | .080**       | -.072**    | .050*       | .015       |

\* p< .05 \*\* p< .01 \*\*\* P< .001



이렇게 보면, 중학생의 경우 학교 인식과 자율적 행동역량간의 상관관계 중에서 어느 정도 상호 관련성이 있는 것은 ‘수업시간 재미정도’인데, 수업시간 재미가 높을수록 중학생의 자율적 행동역량이 높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점에서 중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자율적 행동역량 강화를 위해 수업 방법의 다각화 등을 통해 재미있는 수업을 운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표 IV-21> 중학생의 학교 인식과 자율적 행동역량 세부영역간 상관관계

|                        |            | 수업시간<br>재미정도 | 학생의견<br>반영정도 | 전학<br>희망정도 | 좋은<br>학업분위<br>기 | 교칙의<br>엄격성 |
|------------------------|------------|--------------|--------------|------------|-----------------|------------|
| 거시적<br>맥락에서<br>행동하기    | 패턴이해       | .100**       | -.019        | -.025      | -.072**         | -.045*     |
|                        | 체계이해       | .169**       | .090**       | -.058**    | .068**          | .006       |
|                        | 행동결과 인지    | .137**       | .078**       | -.041*     | .073**          | .021       |
| 목표/과<br>제 수립<br>실천     | 목표 및 과제 설정 | .150**       | .077**       | -.065**    | .049**          | .004       |
|                        | 계획수립       | .165**       | .103**       | -.055**    | .086**          | .030       |
|                        | 수행         | .137**       | .065**       | -.078**    | .077**          | -.012      |
|                        | 평가         | .127**       | .064**       | -.047*     | .086**          | .018       |
| 권익의<br>한계<br>이해/요<br>구 | 흥미 이해      | .078**       | .044**       | -.047*     | .034            | .027       |
|                        | 규칙원리 이해    | .092**       | .044**       | -.046*     | .002            | .021       |
|                        | 욕구권리주장     | .119**       | .054**       | -.067**    | .038            | .054**     |
|                        | 대안         | .110**       | .066**       | -.042*     | .043*           | .056**     |

\* p< .05 \*\* p< .01 \*\*\* P< .001

중학생의 학교 인식의 하위 영역과 자율적 행동역량 세부영역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IV-21>과 같다. 우선 학교 인식 중 ‘수업시간 재미정도’와 자율적 행동역량의 세부영역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정적인 상관을 보이는데, 그 중에서 가장 상관계수가 높은 것은 ‘체계이해’와 ‘계획수립’이다. ‘학생 의견 반영 정도’와 자율적 행동역량의 세부영역간의 상관에서는 ‘패턴이해’만 유의미한 영향이 없고 나머지

영역에서 약한 정적인 상관을 보이지만, 상호 연관성은 매우 약하다. 또한 ‘전학 희망정도’와 자율적 행동역량의 세부 영역간의 관계에서는 모두 약한 부적 상관을 보인다. 그리고 ‘좋은 학업 분위기’와 자율적 행동역량 세부영역간 상관을 보면, ‘패턴 이해’와는 약한 부적의 상관을 보이며, ‘권익의 한계 이해/ 요구’의 세부영역과의 상관에서는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상관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칙의 엄격성’과 자율적 행동역량의 세부 영역간의 상관에서는 ‘패턴이해’, ‘욕구권리’, ‘대안’의 세 영역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으며, 유의미한 경우에도 상관계수는 매우 낮아서 교칙의 엄격성과 자율적 행동역량의 세부영역간 연관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전반적으로 보면 중학생의 경우 자율적 행동역량과 학교 인식간의 상관은 대체로 미약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항목도 적은 편이다. 또한 그 상관계수의 값을 비교해 볼 때, 상호간에 미치는 영향력에서도 초등학교 집단과 비교하여 그 상관성이 더 미약함을 알 수 있다.

### (3) 고등학생

고등학생의 학교 인식과 자율적 행동역량 하위영역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IV-22>와 같다.

<표 IV-22> 고등학생의 학교 인식과 자율적 행동역량 하위영역간 상관관계

|                | 수업시간<br>재미정도 | 학생의견<br>반영정도 | 전학<br>희망정도 | 좋은<br>학업분위기 | 교칙의<br>엄격성 |
|----------------|--------------|--------------|------------|-------------|------------|
|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  | .154**       | .020         | -.064**    | .130**      | .014       |
| 목표/과제 수립 실천하기  | .146**       | .056**       | -.052**    | .077**      | .026       |
| 권익의 한계 이해/요구하기 | .097**       | .011         | -.025      | .036        | .025       |
| 자율적 행동역량 전체    | .154**       | .034         | -.054**    | .093**      | .026       |

\*  $p < .05$  \*\*  $p < .01$  \*\*\*  $P < .001$

우선 ‘수업시간 재미정도’와 자율적 행동역량의 하위영역간의 상관을 보면 모두 정적인 상관을 보이는데, 상관 정도는 .2 이하로 낮다. ‘학생 의견 반영 정도’와 자율적 행동역량의 하위영역간의 상관을 보면 ‘목표/과제 수립 실천’과만 약한 정적인 상관을 보여서 관련성은 미약하다. 그리고 ‘전학 희망 정도’와는 매우 미약한 수준에서 부적인 상관을 보인다. ‘좋은 학업 분위기’의 경우에는 정적 상관을 보이지만 상관 정도에서는 매우 미약하다. 그리고 ‘교칙의 엄격성’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는 자율적 행동 역량 항목은 전혀 없다.

고등학생의 학교 인식과 자율적 행동역량 세부영역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IV-23>과 같다.

<표 IV-23> 고등학생의 학교 인식과 자율적 행동역량의 세부영역간 상관관계

|                        |            | 수업시간<br>재미정도 | 학생의견<br>반영정도 | 전학<br>희망정도 | 좋은<br>학업분위<br>기 | 교칙의<br>엄격성 |
|------------------------|------------|--------------|--------------|------------|-----------------|------------|
| 거시적<br>맥락에서<br>행동하기    | 패턴이해       | .082**       | -.023        | -.058**    | .091**          | -.009      |
|                        | 체계이해       | .147**       | .047*        | -.028      | .113**          | -.032      |
|                        | 행동결과 인지    | .147**       | .055*        | -.050**    | .094**          | .027       |
| 목표/과<br>제 수립<br>실천     | 목표 및 과제 설정 | .135**       | .046*        | -.061**    | .075**          | .014       |
|                        | 계획수립       | .116**       | .043*        | -.039*     | .065**          | .016       |
|                        | 수행         | .114**       | .054**       | -.039      | .049**          | .019       |
|                        | 평가         | .114**       | .044*        | -.029      | .061**          | .030*      |
| 권익의<br>한계<br>이해/요<br>구 | 흥미 이해      | .088**       | -.020        | -.014      | .033            | .037       |
|                        | 규칙원리 이해    | .064**       | -.016        | -.025      | .038            | .015       |
|                        | 욕구권리주장     | .087**       | .025         | -.019      | .026            | .010       |
|                        | 대안         | .086**       | .054**       | -.027      | .023            | .022       |

\* p< .05 \*\* p< .01 \*\*\* P< .001

‘수업시간 재미정도’와 자율적 행동역량의 세부영역간 상관을 보면 모두 정적 상관을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만, 상관계수는 .15보다 낮아서 실제 관련성은 약해 보인다. ‘학생 의견 반영정도’의 경우는 정적인 상관과 부적인 상관이 섞여서 나타나며 통계적 유의미성은 정적인 상관을 보인 자율적 행동역량의 세부영역에서만 나타난다. 그러나 대부분의 상관계수가 .05수준으로 낮아서 그 관련성은 미약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전학 희망 정도’의 경우 자율적 행동역량의 세부영역과 부적인 상관을 보이며 통계적인 유의미성은 4개 항목을 제외하고는 나타나지 않아서 상호관련성이 매우 적다. ‘좋은 학업분위기’는 정적인 상관을 보이는데, 통계적인 유의미성은 ‘권익의 한계 이해/요구’에 속하는 세부 영역을 제외한 항목에서 나타나지만 상호 유의미성은 낮은 편이다. ‘교칙의 엄격성’에 대해서는 자율적 행동역량의 세부 항목 중 ‘평가’ 부분만 정적인 유의미성을 나타내어서 상호관련성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고등학교의 학교 인식과 자율적 역량간의 관계에서 상호 관련성은 전반적으로 미약한 편이며, 그나마 수업 시간의 재미 정도와의 정적인 상관성이 약간 나타나는 편이지만, 이 또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와 비교해보면 상호영향력은 낮은 편이다.

### 3) 학교 문제행동 빈도와 자율적 행동역량

학생들의 학교 문제행동 빈도와 자율적 행동역량간의 상관관계를 학교급 별로 살펴보았다. 학생들의 학교 문제행동은 구체적으로 다양한 문제행동의 유형을 묻지 않고, ‘휴학 경험’, ‘지각 경험’, ‘무단결석 경험’, 그리고 ‘사회봉사 등교정지 등 징계’로 구분한 후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휴학경험’의 경우는 병으로 인한 휴학 등 문제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는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였기에 사실 문제행동이라는 표현은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전체를 총괄하여 사용하는 데 가장 나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여 사용하였다.

### (1) 초등학생

초등학생의 학교 문제행동과 자율적 행동역량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IV-24>와 같다. 초등학생의 경우 ‘휴학 경험’은 자율적 행동역량과 부적인 상관을 보이며 이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인데, 상관계수에서는 .1 이하의 낮은 상관을 보여 상호 관련성이 미약하다. ‘지각 경험’과 자율적 행동역량의 하위영역간의 상관 또한 부적인 상관을 보이며 통계적으로는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하지만, 상관계수는 .1이하로 낮다. 그리고 ‘무단결석 경험’과 자율적 행동역량의 하위영역간에도 전반적으로 약한 부적 상관을 보이며,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와 ‘권익의 한계 이해/ 요구’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그 실제적인 상관성은 미약한 편이다. ‘사회봉사 등교 정지 등의 징계’와의 상관에서는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보이는 자율적 행동역량의 하위영역이 없어서 서로 간에 상관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초등학생의 경우 학교 문제행동과 자율적 행동역량간의 상관은 매우 약한 정도이다.

<표 IV-24> 초등학생의 학교문제행동과 자율적 행동역량 하위영역간 상관관계

|                | 휴학 경험   | 지각 경험   | 무단결석 경험 | 사회봉사 등교정지등의 징계 |
|----------------|---------|---------|---------|----------------|
|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  | -.070** | -.014** | -.058** | -.028          |
| 목표/과제 수립 실천하기  | -.014   | -.083** | -.032   | .011           |
| 권익의 한계 이해/요구하기 | -.038   | -.056** | -.054** | -.004          |
| 자율적 행동역량 전체    | -.052*  | -.105** | -.061** | -.014          |

\* p< .05 \*\* p< .01 \*\*\* P< .001

〈표 IV-25〉 초등학생 학교문제행동과 자율적 행동역량 세부영역간 상관관계

|               |            | 휴학 경험   | 지각 경험   | 무단결석 경험 | 사회봉사 등교정지등의 징계 |
|---------------|------------|---------|---------|---------|----------------|
|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 | 패턴이해       | -.070** | -.057** | -.057** | -.045*         |
|               | 체계이해       | -.042** | -.083** | -.066** | -.023          |
|               | 행동결과 인지    | -.024** | -.115** | .003    | .026           |
| 목표/과제 수립 실천   | 목표 및 과제 설정 | -.018   | -.032   | -.028   | -.008          |
|               | 계획수립       | .012    | -.100** | -.005   | .020           |
|               | 수행         | -.029   | -.086** | -.032   | .055           |
|               | 평가         | -.013   | -.065** | -.044*  | .019           |
| 권익의 한계 이해/요구  | 흥미 이해      | -.028   | -.041** | -.044*  | .007           |
|               | 규칙원리 이해    | -.045*  | -.017   | -.040   | .000           |
|               | 욕구권리주장     | -.024   | -.060** | -.065** | -.025          |
|               | 대안         | -.032   | -.072** | -.036   | .006           |

\*  $p < .05$  \*\*  $p < .01$  \*\*\*  $P < .001$

초등학생의 학교 문제행동과 자율적 행동역량 세부영역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IV-25〉와 같다. ‘휴학 경험’은 4가지 항목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이며, ‘지각 경험’은 9개 항목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상관계수는 .1미만으로 낮은 편이다. ‘무단결석 경험’은 ‘체계이해’ 등 5가지 항목에서 약한 부적 상관을 보인다. 더불어 ‘사회봉사 등교 정지 등의 징계’는 단지 ‘패턴 이해’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적인 방향으로 미약한 상관을 보인다.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초등학생의 경우 학교 문제행동과 자율적 행동역량간의 영향력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 상호 관련성은 매우 약하거나 일부 영역에 한정됨을 알 수 있다. 즉 초등학생의 경우 휴학이나 지각, 무단결석, 징계의 경험이 많을수록 학생들의 자율적 행동역량 발휘가 잘 안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 연관성은 매우 약한 편이다.

## (2) 중학생

중학생의 학교 문제행동과 자율적 행동역량 하위영역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IV-26>과 같다. 중학생의 ‘휴학 경험’은 자율적 행동역량과 부적인 상관을 보이는데 이 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와 ‘권익의 한계 이해/ 요구’로 .1 이하의 낮은 상관을 보인다. ‘지각 경험’과 자율적 행동역량 하위영역간의 상관에서도 약한 부적인 상관을 보여 상호 관련성이 낮은 편이다. 그리고 ‘무단결석 경험’과 자율적 행동역량의 하위영역간의 상관에서도 모두 부적인 약한 상관을 보인다. ‘사회봉사 등교 정지 등의 징계’와의 상관관계분석에서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보인 자율적 행동역량의 하위영역은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와 ‘권익의 한계 이해/ 요구’이며, 모두 비록 그 기울기는 완만하지만 부적인 상관계수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V-26> 중학생 학교문제행동과 자율적 행동역량 하위영역간 상관관계

|                | 휴학 경험   | 지각 경험   | 무단결석 경험 | 사회봉사 등교정지등의 징계 |
|----------------|---------|---------|---------|----------------|
|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  | -.060** | -.111** | -.111** | -.066**        |
| 목표/과제 수립 실천하기  | -.024   | -.072** | -.072** | -.023          |
| 권익의 한계 이해/요구하기 | -.043*  | -.082** | -.082** | -.057**        |
| 자율적 행동역량 전체    | -.050*  | -.105** | -.105** | -.058**        |

\*  $p < .05$  \*\*  $p < .01$  \*\*\*  $P < .001$

중학생의 학교 문제행동과 자율적 행동역량 세부영역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IV-27>과 같다. 중학생의 자율적 행동역량 세부영역과 학교 문제행동 영역간의 상관에서, 우선 ‘휴학 경험’은 ‘패턴 이해’, ‘흥미이해’, ‘규칙 원리 이해’세 영역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매우 약한 부적인 상관을 보인다. ‘지각 경험’은 자율적 행동역량의 모든 세부영역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약한 부적 상관을 보인다. ‘무단결석 경험’또한 자율적 행동역

량의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약한 부적 상관을 보인다. 더불어 ‘사회봉사 등교 정지 등의 징계’는 단지 ‘패턴 이해’를 비롯한 5가지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인다.

<표 IV-27> 중학생 학교문제행동과 자율적 행동역량의 세부영역간 상관관계

|               |            | 휴학 경험   | 지각 경험   | 무단결석 경험 | 사회봉사 등교정지등의 징계 |
|---------------|------------|---------|---------|---------|----------------|
|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 | 패턴이해       | -.071** | -.065** | -.094** | -.070**        |
|               | 체계이해       | -.020   | -.067** | -.077** | -.028          |
|               | 행동결과 인지    | -.017   | -.054** | -.068** | -.032          |
| 목표/과제 수립 실천   | 목표 및 과제 설정 | -.055   | -.103** | -.082** | -.052*         |
|               | 계획수립       | .004    | -.097** | -.054** | -.008          |
|               | 수행         | .012    | -.073** | -.040*  | -.011          |
|               | 평가         | -.035   | -.047*  | -.062** | -.002          |
| 권익의 한계 이해/요구  | 흥미 이해      | -.051*  | -.082** | -.092** | -.067**        |
|               | 규칙원리 이해    | -.047*  | -.052*  | -.076** | -.066**        |
|               | 욕구권리주장     | -.033   | -.066** | -.049*  | -.041*         |
|               | 대안         | -.014   | -.053** | -.062** | -.020          |

\* p< .05 \*\* p< .01 \*\*\* P< .001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중학생의 경우 학교 문제행동과 자율적 행동역량간의 영향력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 상호 관련성은 매우 약하거나 일부 영역에 한정됨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초등학생과 비교해서는 그 상관성이 조금 더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고 상관계수 또한 조금 더 높게 나타나서, 상호간의 영향력이 초등학교에 비하여 중학교에서 더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 (3) 고등학생

고등학생의 학교 문제행동과 자율적 행동역량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IV-28>, <표 IV-29>와 같다. 고등학생의 ‘휴학 경험’은 자율적



행동역량과 부적인 상관을 보이는데 이 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없다.

‘지각 경험’은 자율적 행동역량과 하위영역간의 상관에서 부적인 상관을 보이며 통계적으로는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하지만, 상관계수는 .1 수준이어서 낮은 편이다.

그리고 ‘무단결석 경험’과 자율적 행동역량의 모든 하위영역간의 상관에서도 부적인 약한 상관을 보이는데, 특히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는 -.141의 상관을 보여 상대적으로 높은 부적 상관을 보인다. ‘사회봉사 등교정지 등의 징계’와의 관계에서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보인 자율적 행동역량의 하위영역은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와 ‘권익의 한계 이해/ 요구’이며 이들 간에는 약한 부적인 상관이 나타난다.

<표 IV-28> 고등학생 학교문제행동과 자율적 행동역량 하위영역간 상관관계

|                | 휴학 경험 | 지각 경험   | 무단결석 경험 | 사회봉사 등교정지등의 징계 |
|----------------|-------|---------|---------|----------------|
|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  | -.027 | -.109** | -.141** | -.057**        |
| 목표/과제 수립 실천하기  | .011  | -.066** | -.062** | -.019          |
| 권익의 한계 이해/요구하기 | -.017 | -.064** | -.082** | -.047*         |
| 자율적 행동역량 전체    | -.012 | -.092** | -.109** | -.047*         |

\* p< .05 \*\* p< .01 \*\*\* P< .001

고등학생의 자율적 행동역량 세부영역과 학교 문제행동 영역간의 상관에서, 우선 ‘휴학경험’은 ‘패턴 이해’영역과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매우 약한 부적인 상관을 보인다. ‘지각 경험’은 자율적 행동역량의 대부분의 세부 영역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약한 부적 상관을 보인다. ‘무단결석 경험’ 또한 자율적 행동역량의 ‘수행’ 영역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약한 부적 상관을 보인다. 이 중에서 특히 ‘패턴 이해’는

-.139의 상관을 보여 다른 항목에 비해 높은 상관을 나타낸다. 더불어 ‘사회봉사 등교 정지 등의 징계’는 단지 ‘패턴 이해’, ‘흥미 이해’, ‘규칙원리 이해’의 3가지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적인 방향으로 미약한 상관을 보인다.

〈표 IV-29〉 고등학생 학교문제행동과 자율적 행동역량 하위영역간 상관관계

|               |            | 휴학 경험   | 지각 경험   | 무단결석 경험 | 사회봉사 등교정지등의 징계 |
|---------------|------------|---------|---------|---------|----------------|
|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 | 패턴이해       | -.048** | -.089** | -.139** | -.072**        |
|               | 체계이해       | .002    | -.072** | -.058** | -.012          |
|               | 행동결과 인지    | .010    | -.077** | -.095** | -.020          |
| 목표/과제 수립 실천   | 목표 및 과제 설정 | .009    | -.059** | -.057** | -.033          |
|               | 계획수립       | -.006   | -.070** | -.060** | -.022          |
|               | 수행         | .013    | -.062** | -.036   | -.002          |
|               | 평가         | .022    | -.025   | -.049** | .000           |
| 권익의 한계 이해/요구  | 흥미 이해      | -.028   | -.052** | -.073** | -.046*         |
|               | 규칙원리 이해    | -.036   | -.069** | -.087** | -.066**        |
|               | 욕구권리주장     | .008    | -.060** | -.051** | -.019          |
|               | 대안         | .001    | -.035   | -.056** | -.026          |

\*  $p < .05$  \*\*  $p < .01$  \*\*\*  $P < .001$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 문제행동과 자율적 행동역량간의 영향력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 상호 관련성은 약하거나 일부 영역에 한정됨을 알 수 있으며, 초등학생에 비해서는 그 상관성이 조금 더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고 상관계수 또한 조금 더 높지만, 중학생과 비교해서는 그 상관성의 영역이나 크기에서 조금 작은 편이다.

#### 4) 진로 계획과 자율적 행동역량

학생들의 진로 계획과 자율적 행동역량간의 관계를 학교급별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분석을 사용하였는데, 우선 첫 번째 분석에서는 진로계획에 대한 응답에 따라 세 집단(정해 놓은 직업 없음/ 대략 생각한 직업 있음/ 확정해 놓은 직업 있음)으로 구분 한 후 세 집단간에 자율적 행동역량의 차이를 변량분석(ANOVA) 처리하였다. 다른 한가지 분석에서는 학생들의 자율적 행동역량의 각 세부영역이 진로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종속변인으로 삼은 진로계획이 순위적 특성을 갖는 척도라는 점에서 프로빗 분석을 활용하였다. 프로빗 회귀분석에서 사용한 독립변인인 자율적 행동역량의 세부영역은 ‘패턴 이해’를 제외하고는 5점 척도로 되어 있기에 제시된 b 추정값의 비교를 통해서 서로간의 영향력의 크기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즉 자율적 행동역량의 세부영역 중 어떤 영역이 학생들의 진로계획 수립에 더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지 파악이 가능하다.

##### (1) 초등학생

초등학생의 진로계획 수준에 따라 집단을 나누고 집단별로 자율적 행동역량의 하위영역에 대한 평균값의 차이가 있는지를 변량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는 <표 IV-30>과 같다.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에 대한 ‘정해 놓은 직업 없음’집단의 평균은 2.45이고, ‘대략 생각한 직업 있음’ 집단의 평균은 2.86이며, ‘확정해 놓은 직업 있음’집단의 평균은 3.01로 직업에 대한 계획이 명료한 집단의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점수가 더 높다. 이러한 집단간의 평균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사후 분석에 따른 하위집단간의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목표/과제 수립 실천’에 대한 ‘정해 놓은 직업 없음’집단의 평균은 2.77이고, ‘대략 생각한 직업 있음’ 집단의 평균은 3.25이며, ‘확정해 놓은 직업 있음’집단의 평균은 3.60으로 직업에 대한 계획이 명료한 집단의 ‘목표/과제

수립 실천'점수가 더 높다. 이러한 집단간의 평균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사후 분석에 따른 하위집단간의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또한 '권익의 한계 이해/요구'에 대한 '정해 놓은 직업 없음'집단의 평균은 3.25 이고, '대략 생각한 직업 있음' 집단의 평균은 3.26이며, '확정해 놓은 직업 있음'집단의 평균은 3.87로 직업에 대한 계획이 명료한 집단의 '권익의 한계 이해/요구'점수가 더 높다. 이러한 집단간의 평균은 통계적으로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사후 분석에 따른 하위집단간의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이렇게 보면 초등학교의 진로계획의 명료성 여부는 자율적 행동역량과 상당 부분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30> 초등학교의 진로계획 정도와 자율적 행동역량

|               | 정해 놓은<br>직업 없음<br>(n=239) |          | 대략 생각한<br>직업 있음<br>(n=1,231) |          | 확정해 놓은<br>직업 있음<br>(n=754) |          | 통계치         |
|---------------|---------------------------|----------|------------------------------|----------|----------------------------|----------|-------------|
|               | 평균                        | 표준<br>편차 | 평균                           | 표준<br>편차 | 평균                         | 표준<br>편차 |             |
|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 | 2.45                      | .80      | 2.86                         | .72      | 3.01                       | .74      | F=439.620** |
| 목표/과제 수립 실천하기 | 2.77                      | .65      | 3.25                         | .76      | 3.60                       | .83      | F=234.4**   |
| 권익 한계이해/요구하기  | 3.25                      | .70      | 3.26                         | .77      | 3.87                       | .79      | F=530.741** |
| 자율적 행동역량 전체   | 2.82                      | .60      | 3.24                         | .60      | 3.49                       | .64      | F=374.7**   |

\*  $p < .05$     \*\*  $p < .01$     \*\*\*  $p < .001$

1) 통계치에서 사후검증 결과는 밝히지 않았으나, 모든 항목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초등학교의 자율적 행동역량 세부영역이 진로계획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프로빗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31>과 같다.

〈표 IV-31〉 초등학생의 자율적 행동역량 세부영역 중 진로계획 결정변인

|               |            | 진로계획               |      |      |
|---------------|------------|--------------------|------|------|
|               |            | b추정값               | 표준오차 | p값   |
|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 | 패턴이해       | -.015              | .019 | .416 |
|               | 체계이해       | .015               | .045 | .742 |
|               | 행동결과 인지    | .184               | .057 | .001 |
| 목표/과제 수립 실천   | 목표 및 과제 설정 | .473               | .037 | .000 |
|               | 계획수립       | .064               | .041 | .117 |
|               | 수행         | .014               | .040 | .731 |
|               | 평가         | -.136              | .042 | .001 |
| 권익의 한계 이해/요구  | 흥미 이해      | .191               | .038 | .000 |
|               | 규칙원리 이해    | -.082              | .045 | .069 |
|               | 욕구권리주장     | .013               | .044 | .061 |
|               | 대안         | -.111*             | .044 | .012 |
| 통계치           |            | -2log우도=3,749.1*** |      |      |

\* p < .05    \*\* p < .01    \*\*\* p < .001

초등학생들의 진로계획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자율적 행동역량의 세부영역은 ‘행동 결과 인지’, ‘목표 및 과제 설정’, ‘평가’, ‘흥미이해’, ‘대안’의 5가지 항목이다. 이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항목은 b 추정값이 .473으로 나타난 ‘목표 및 과제 설정’이며, 그 다음으로 ‘흥미 이해’, ‘행동 결과 인지’이다. 이들은 모두 정적인 b 추정값을 보여주고 있어서, 초등학생들 중 목표 및 과제 설정을 잘 하고 흥미 이해가 높고 행동 결과 인지가 높을수록 진로계획을 명료하게 세울 경향성이 높다. 이에 비해 ‘평가’와 ‘대안’은 부적인 b 추정값을 보여주고 있어서 평가와 대안이라는 자율적 행동역량이 높을수록 진로계획을 명료하게 세울 가능성이 낮음을 알 수 있다.

## (2) 중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계획 수준을 집단별로 나누고 중학생의 자율적 행동역량의 하위영역에 대한 평균값 차이를 변량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는 <표 IV-32>와 같다. 중학생의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에 대한 ‘정해 놓은 직업 없음’집단의 평균은 2.86이고, ‘대략 생각한 직업 있음’ 집단의 평균은 3.15이며, ‘확정해 놓은 직업 있음’집단의 평균은 3.35로 직업에 대한 계획이 명료한 집단의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점수가 더 높다. 이러한 집단 간의 평균은 통계적으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사후 분석에 따른 하위집단간의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목표/과제 수립 실천’에 대한 ‘정해 놓은 직업 없음’집단의 평균은 2.76 이고, ‘대략 생각한 직업 있음’ 집단의 평균은 3.22이며, ‘확정해 놓은 직업 있음’집단의 평균은 3.60으로 직업에 대한 계획이 명료한 집단의 ‘목표/과제 수립 실천’점수가 더 높다. 이러한 집단 간의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사후 분석에 따른 하위집단간의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또한 ‘권익의 한계 이해/요구’에 대한 ‘정해 놓은 직업 없음’집단의 평균은 3.26 이고, ‘대략 생각한 직업 있음’ 집단의 평균은 3.57 이며, ‘확정해 놓은 직업 있음’집단의 평균은 3.83으로 직업에 대한 계획이 명료한 집단의 ‘권익의 한계 이해/요구’점수가 더 높았다. 이러한 집단간의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사후분석에 따른 하위집단간의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이렇게 보면 중학생의 진로계획의 명료성 여부는 자율적 행동역량과 상당부분 긍정적인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32〉 중학생의 진로계획 정도와 자율적 행동역량

|               | 정해 놓은<br>직업 없음<br>(n=450) |          | 대략 생각한<br>직업 있음<br>(n=1,447) |          | 확정해 놓은<br>직업 있음<br>(n=529) |          | 통계치         |
|---------------|---------------------------|----------|------------------------------|----------|----------------------------|----------|-------------|
|               | 평균                        | 표준<br>편차 | 평균                           | 표준<br>편차 | 평균                         | 표준<br>편차 |             |
|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 | 2.86                      | .69      | 3.15                         | .69      | 3.35                       | .78      | F=56.60***  |
| 목표/과제 수립실천하기  | 2.76                      | .60      | 3.22                         | .73      | 3.60                       | .73      | F=166.12*** |
| 권익 한계이해/요구하기  | 3.26                      | .69      | 3.57                         | .72      | 3.83                       | .80      | F=73.39***  |
| 자율적 행동역량 전체   | 2.96                      | .52      | 3.31                         | .59      | 3.59                       | .64      | F=136.5***  |

\* p < .05    \*\* p < .01    \*\*\* p < .001

중학생들의 자율적 행동역량 세부영역 중 어느 영역이 어느 정도 학생들의 진로계획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프로빗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IV-33〉과 같다.

〈표 IV-33〉 중학생의 자율적 행동역량 하위영역 중 진로계획 결정변인

|                     |            | 진로계획               |      |      |
|---------------------|------------|--------------------|------|------|
|                     |            | b추정값               | 표준오차 | p값   |
| 거시적<br>맥락에서<br>행동하기 | 패턴이해       | .024               | .018 | .177 |
|                     | 체계이해       | -.084              | .047 | .072 |
|                     | 행동결과 인지    | .121               | .058 | .037 |
| 목표/과제<br>수립 실천      | 목표 및 과제 설정 | .699               | .040 | .000 |
|                     | 계획수립       | -.055              | .041 | .184 |
|                     | 수행         | .019               | .041 | .648 |
|                     | 평가         | -.157              | .043 | .000 |
| 권익의<br>한계<br>이해/요구  | 흥미 이해      | .086               | .038 | .024 |
|                     | 규칙원리 이해    | .037               | .046 | .425 |
|                     | 욕구권리주장     | -.010              | .046 | .806 |
|                     | 대안         | -.114              | .047 | .015 |
| 통계치                 |            | -2log우도=3,659.1*** |      |      |

\* p < .05    \*\* p < .01    \*\*\* p < .001

중학생들의 진로계획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자율적 행동역량의 세부영역은 ‘행동 결과 인지’, ‘목표 및 과제 설정’, ‘평가’, ‘흥미 이해’, ‘대안’의 5가지 항목이다. 이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항목은 b 추정값이 .699로 나타난 ‘목표 및 과제 설정’이며, 그 다음으로 높게 나온 항목은 ‘행동 결과 인지’, ‘흥미 이해’로 이들 모두 정적인 b 추정값을 보여서 목표 및 과제 설정을 잘 하고 흥미 이해가 높고 행동 결과 인지가 높을수록 진로계획을 명료하게 세울 경향성이 높다. 이에 비해 ‘평가’와 ‘대안’은 부적인 b 추정값을 보였다.

### (3) 고등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계획 수준의 집단별로 자율적 행동역량의 하위 영역 평균을 변량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는 <표 IV-34>와 같다.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에 대한 ‘정해 놓은 직업 없음’집단의 평균은 3.14이고, ‘대략 생각한 직업 있음’ 집단의 평균은 3.37이며, ‘확정해 놓은 직업 있음’ 집단의 평균은 3.55로 직업에 대한 계획이 명료한 집단의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점수가 더 높다. 이러한 집단간의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사후 분석에 따른 하위집단간의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목표/과제 수립 실천’에 대한 ‘정해 놓은 직업 없음’집단의 평균은 2.93이고, ‘대략 생각한 직업 있음’ 집단의 평균은 3.24이며, ‘확정해 놓은 직업 있음’집단의 평균은 3.59로 직업에 대한 계획이 명료한 집단의 ‘목표/과제 수립 실천’점수가 더 높다. 이러한 집단간의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사후 분석에 따른 하위집단간의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또한 ‘권익의 한계 이해/요구’에 대한 ‘정해 놓은 직업 없음’집단의 평균은 3.30이고, ‘대략 생각한 직업 있음’ 집단의 평균은 3.59이며, ‘확정해 놓은 직업 있음’집단의 평균은 3.76으로 직업에 대한 계획이 명료한 집단의 ‘권익의 한계 이해/요구’점수가 더 높았다.



<표 IV-34> 고등학생의 진로계획 정도와 자율적 행동역량

|               | 정해 놓은<br>직업 없음<br>(n=522) |          | 대략 생각한<br>직업 있음<br>(n=1,676) |          | 확정해 놓은<br>직업 있음<br>(n=618) |          | 통계치          |
|---------------|---------------------------|----------|------------------------------|----------|----------------------------|----------|--------------|
|               | 평균                        | 표준<br>편차 | 평균                           | 표준<br>편차 | 평균                         | 표준<br>편차 |              |
| 거시적 맥락 행동하기   | 3.14                      | .68      | 3.37                         | .63      | 3.55                       | .59      | F=60.217***  |
| 목표/과제 수립 실천하기 | 2.93                      | .72      | 3.24                         | .65      | 3.59                       | .66      | F=143.219*** |
| 권익 한계 이해/요구하기 | 3.30                      | .73      | 3.59                         | .67      | 3.76                       | .65      | F=66.126***  |
| 자율적 행동역량 전체   | 3.12                      | .60      | 3.40                         | .55      | 3.64                       | .54      | F=118.304*** |

\* p < .05 \*\* p < .01 \*\*\* p < .001

<표 IV-35> 고등학생의 자율적 행동역량 하위영역 중 진로계획 결정변인

|                     |            | 진로계획                  |      |      |
|---------------------|------------|-----------------------|------|------|
|                     |            | b추정값                  | 표준오차 | p값   |
| 거시적<br>맥락에서<br>행동하기 | 패턴이해       | .013                  | .018 | .491 |
|                     | 체계이해       | -.003                 | .044 | .941 |
|                     | 행동결과 인지    | -.016                 | .056 | .780 |
| 목표/과제<br>수립 실천      | 목표 및 과제 설정 | .649                  | .038 | .000 |
|                     | 계획수립       | .070                  | .041 | .083 |
|                     | 수행         | -.146                 | .037 | .000 |
|                     | 평가         | -.097                 | .040 | .014 |
| 권익의<br>한계<br>이해/요구  | 흥미 이해      | .119                  | .036 | .001 |
|                     | 규칙원리 이해    | -.160                 | .041 | .000 |
|                     | 욕구권리주장     | -.036                 | .043 | .401 |
|                     | 대안         | -.015                 | .044 | .725 |
| 통계치                 |            | -2log우도= 4,733.199*** |      |      |

\* p < .05 \*\* p < .01 \*\*\* p < .001

이러한 집단간의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사후 분석에 따른 하위집단간의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이렇게 보면 고등학생의 진로계획의 명료성 여부는 자율적 행동역량과 상당부분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등학생들의 자율적 행동역량 세부영역이 진로계획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프로빗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35>와

같다.

고등학생들의 진로계획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자율적 행동역량 세부영역은 ‘목표 및 과제 설정’, ‘수행’, ‘평가’, ‘흥미이해’, ‘규칙원리 이해’의 5가지 항목이다. 이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항목은 b 추정값이 .649로 나타난 ‘목표 및 과제 설정’이며, 그 다음으로 정적인 b 추정값을 보인 항목은 ‘흥미 이해’로 나타나서 목표 및 과제설정을 잘 하고 흥미 이해가 높을수록 진로계획을 명료하게 세울 경향성이 높다. 이에 비해 ‘수행’, ‘평가’, ‘규칙원리 이해’는 부적인 b 추정값을 보여서 수행과 평가, 그리고 규칙 원리에 대한 자율적 행동역량이 높을수록 진로계획을 명료하게 세울 가능성이 낮다.

## 5) 학업성적과 자율적 행동역량

학생들의 학업성적과 자율적 행동역량간의 관계를 학교급별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분석을 사용하였는데, 하나는 5개 교과와 학업성적 전체 평균 값과 자율적 행동역량 하위영역간에 성별로 상관계수를 구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학생들의 자율적 행동역량의 세부영역이 교과별로 학생들의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여기서의 종속변인인 성적 또한 학생들의 직접적인 성적 평균값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의 성적에 대하여 ‘매우 못하는 편’에서부터 ‘매우 잘하는 편’까지 5점 척도로 보고하게 한 것으로 순위적 특성을 갖는 척도라는 점에서 프로빗 분석을 활용하였다. 프로빗 회귀분석에서 사용한 독립변인으로서 자율적 행동역량의 세부영역은 ‘패턴 이해’를 제외하고는 5점척도로 되어 있기에 제시된 b 추정값을 통해서 서로간의 영향력의 크기에 대한 비교가 가능하다. 더불어 교과별로 비교를 쉽게 하도록 한 표에 교과별로 b추정값과 유의도를 표시한 요약된 표를 제시하였다.

(1) 초등학교

초등학교생들의 학업 성적과 자율적 행동역량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IV-36>과 같다.

<표 IV-36> 초등학교생의 학업성적과 자율적 행동역량

|                | 학교성적   |        |        |
|----------------|--------|--------|--------|
|                | 남학생    | 여학생    | 전체     |
|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  | .286** | .256** | .267** |
| 목표/과제 수립 실천하기  | .201** | .207** | .199** |
| 권익의 한계 이해/요구하기 | .229** | .196** | .210** |
| 자율적 행동역량 전체    | .311** | .274** | .290** |

\*\*\*:  $p < .001$ , \*\*:  $p < .01$ , \*:  $p < .05$

<표 IV-37> 초등학교생의 자율적 행동역량 세부영역 중 학업성적 결정변인

|                  |            | 국어             | 영어             | 수학             | 사회             | 과학             |
|------------------|------------|----------------|----------------|----------------|----------------|----------------|
|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    | 패턴이해       | .064***        | .027           | .059***        | .129***        | .071***        |
|                  | 체계이해       | .234***        | .178***        | .118**         | .273***        | .177***        |
|                  | 행동결과 인지    | .189***        | .125*          | .164**         | .066           | .094           |
| 목표/과제 수립 실천      | 목표 및 과제 설정 | .004           | -.005          | .008           | .022           | -.003          |
|                  | 계획수립       | .000           | .018           | -.005          | -.010          | -.016          |
|                  | 수행         | .068           | .063           | .135***        | .092**         | .096**         |
|                  | 평가         | -.022          | -.009          | .022           | -.087*         | -.035          |
| 권익의 한계 이해/요구     | 흥미 이해      | .080*          | .087*          | .037           | .075*          | .060           |
|                  | 규칙원리 이해    | .052           | -.037          | -.015          | .071           | .000           |
|                  | 욕구권리주장     | .046           | .057           | .107**         | .059           | .076           |
|                  | 대안         | -.017          | .022           | -.042          | .018           | .021           |
| 통계치(-2log우도/유의도) |            | 5,376.2<br>*** | 6,847.5<br>*** | 6,458.8<br>*** | 6,201.7<br>*** | 6,099.5<br>*** |

1) 교과별 제시된 값은 자율적 행동역량 세부영역의 해당 b추정값임

2) 유의도는 \*\*\*:  $p < .001$ , \*\*:  $p < .01$ , \*:  $p < .05$ 임

우선 성별로 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학업 성적’과 자율적 행동역량의 하위영역인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 ‘목표/과제 수립 실천’, ‘권익의 한계 이해/ 요구’ 세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 전반적으로 상관계수는 .2수준이어서 상호간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학업성적과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의 상관계수가 가장 높다.

초등학생들의 자율적 행동역량 세부 영역 중 학업 성적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별로 프로빗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37>과 같다.

초등학생들의 ‘국어 학업성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자율적 행동역량 세부영역은 ‘패턴이해’, ‘체계이해’, ‘행동결과 인지’, ‘흥미이해’의 4가지 항목이다. 이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것은 b 추정값이 .234로 나타난 ‘체계이해’이며, 그 다음으로 ‘행동 결과 인지’, ‘흥미이해’, ‘패턴이해’ 순이며, 이들 모두 정적인 값을 보여준다. 따라서 초등학생들의 경우 패턴이해와 체계이해가 높고 행동 결과 인지와 흥미이해가 높을수록 ‘국어 학업 성적’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

초등학생들의 ‘영어 학업성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자율적 행동역량 세부영역은 ‘체계이해’, ‘행동결과 인지’, ‘흥미이해’의 3가지 항목이다. 이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항목은 b 추정값이 .178로 나타난 ‘체계이해’이며, 그 다음으로 ‘행동 결과 인지’, ‘흥미 이해’ 순인데, 이들 모두 정적인 계수를 보인다.

그리고 초등학생들의 ‘수학 학업성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자율적 행동역량 세부영역은 ‘패턴이해’, ‘체계이해’, ‘행동결과 인지’, ‘수행’, ‘욕구권리 주장’의 5가지 항목이다. 이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항목은 b 추정값이 .164로 나타난 ‘행동결과 인지’이며, 그 다음으로 ‘수행’, ‘체계이해’, ‘욕구권리’ 순이며, 이들 모두 정적인 b 추정값을 보인다.

초등학생들의 ‘사회 학업성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자율적 행동역량 세부 영역은 ‘패턴이해’, ‘체계이해’, ‘수행’, ‘평가’, ‘흥미이해’

의 5가지 항목이다. 이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항목은 b 추정값이 .273로 나타난 ‘체계이해’이며, 그 다음으로 ‘패턴이해’, ‘수행’, ‘흥미이해’가 모두 정적인 b 추정값을 보이며, 반면 ‘평가’는 부적인 b 추정값을 보인다.

초등학생들의 ‘과학 학업 성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자율적 행동역량 세부 영역은 ‘패턴이해’, ‘체계이해’, ‘수행’의 3가지 항목이다. 이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항목은 b 추정값이 .177로 나타난 ‘체계이해’이며, 그 다음으로 ‘수행’, ‘패턴이해’ 순이며, 이들 모두 정적인 b 추정값을 보였다.

이렇게 볼 때 초등학생의 학업 성적과 관련하여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5개 교과에 대하여 대체로 ‘체계이해’, ‘패턴 이해’, ‘행동 결과 인지’, ‘수행’ 등이 영향을 미치는 주요 자율적 행동역량이며, 이들은 대체로 정적인 b추정값을 보이고 있어서 이들 4가지 자율적 행동역량이 높을수록 5개 교과의 학업성적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 5개 교과의 학업성적에 대하여 영향을 주는 자율적 행동역량 세부영역이 많은 교과는 사회, 수학, 국어 순이었다.

## (2) 중학생

중학생들의 학업 성적과 자율적 행동역량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IV-38>과 같다. 먼저 성별로 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학업 성적’과 자율적 행동역량의 하위 영역인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 ‘목표/과제 수립 실천’, ‘권익의 한계 이해/ 요구’ 세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 전반적으로 상관계수는 남학생에 비하여 여학생의 경우가 더 높은 편인데, 특히 여학생은 상관계수가 .3 이상으로 영향력이 높은 편이다. 전반적으로 보아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와 학업성적간 상관계수가 가장 높았다.

〈표 IV-38〉 중학생의 학업성적과 자율적 행동역량

|                | 학교성적   |        |        |
|----------------|--------|--------|--------|
|                | 남학생    | 여학생    | 전체     |
|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  | .288** | .361** | .313** |
| 목표/과제 수립 실천하기  | .246** | .332** | .281** |
| 권익의 한계 이해/요구하기 | .195** | .245** | .211** |
| 자율적 행동역량 전체    | .291** | .373** | .320** |

\*\*\*:  $p < .001$ , \*\*:  $p < .01$ , \*:  $p < .05$

중학생들의 자율적 행동역량 세부영역 별로 학업 성적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별로 프로빗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IV-39〉와 같다.

〈표 IV-39〉 중학생의 자율적 행동역량 세부영역 중 학업성적 결정변인

|                  |            | 국어             | 영어             | 수학             | 사회             | 과학             |
|------------------|------------|----------------|----------------|----------------|----------------|----------------|
|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    | 패턴이해       | .175***        | .128**         | .130**         | .191***        | .166***        |
|                  | 체계이해       | .097*          | .040           | .053           | .142***        | .038           |
|                  | 행동결과 인지    | .007           | .065           | .025           | -.014          | .034           |
| 목표/과제 수립 실천      | 목표 및 과제 설정 | .077*          | .063           | .058           | .130***        | .040           |
|                  | 계획수립       | .068           | .089*          | .062           | .082*          | .073*          |
|                  | 수행         | .038           | .017           | .086*          | .082*          | .144***        |
|                  | 평가         | .018           | .058           | .034           | -.011          | .047           |
| 권익의 한계 이해/요구     | 흥미 이해      | -.067*         | -.036          | -.132***       | -.144***       | -.116**        |
|                  | 규칙원리 이해    | .055           | .032           | .045           | .035           | -.006          |
|                  | 욕구권리주장     | .027           | .040           | .052           | .049           | .044           |
|                  | 대안         | .055           | .051           | .023           | .049           | .058           |
| 통계치(-2log우도/유의도) |            | 6,255.7<br>*** | 7,321.6<br>*** | 7,264.1<br>*** | 6,862.4<br>*** | 6,926.6<br>*** |

1) 교과별 제시된 값은 자율적 행동역량 세부영역의 해당 b추정값임

2) 유의도는 \*\*\*:  $p < .001$ , \*\*:  $p < .01$ , \*:  $p < .05$ 임

중학생들의 ‘국어 학업성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자율적 행동역량 세부영역은 ‘패턴이해’, ‘체계이해’, ‘목표 및 과제 설정’, ‘흥미이해’의 4가지 항목이다. 이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항목은 b 추정값이 .175로 나타난 ‘패턴이해’이며, 그 다음으로 ‘체계이해’, ‘목표 및 과제 설정’, ‘흥미이해’ 순인데, ‘흥미이해’만 부적인 b 추정값이고 나머지는 정적인 b 추정값이다.

중학생들의 ‘영어 학업성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자율적 행동역량 세부영역은 ‘패턴이해’, ‘계획 수립’의 2가지 항목이다. 이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항목은 b 추정치가 .128로 나타난 ‘패턴이해’이며, 그 다음이 ‘계획수립’으로, 이들 모두 정적인 영향을 주는 영역이다.

중학생들의 ‘수학 학업성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자율적 행동역량 세부영역은 ‘패턴이해’, ‘수행’, ‘흥미이해’의 3가지 항목이다. 이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항목은 b 추정치가 -.132로 나타난 ‘흥미이해’로 부적인 값을 보이며, 그 다음인 ‘패턴이해’, ‘수행’은 모두 정적인 추정치를 보인다.

중학생들의 ‘사회 학업성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자율적 행동역량 세부영역은 ‘패턴이해’, ‘체계이해’, ‘목표 및 과제 설정’, ‘계획 수립’, ‘수행’, ‘흥미이해’의 6가지 항목이다. 이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항목은 b 추정값이 .191로 나타난 ‘패턴이해’이다. 그 다음인 ‘흥미이해’는 부적인 b 추정값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다음으로는 ‘체계이해’, ‘목표 및 과제 설정’, ‘계획수립’, ‘수행’은 모두 정적인 b 추정값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중학생들의 ‘과학 학업성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자율적 행동역량 세부영역은 ‘패턴이해’, ‘계획수립’, ‘수행’, ‘흥미이해’의 4가지 항목이다. 이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항목은 b 추정값이 .166으로 나타난 ‘패턴이해’이며, 그 다음으로 ‘수행’, ‘흥미이해’, ‘계획수립’ 순인데, ‘흥미이해’는 부적 b 추정값을 나타내어 다른 영역과 영향의 방향이 반대였다.

이렇게 볼 때 중학생의 학업성적과 관련하여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5개 교과에 대하여 대체로 ‘패턴 이해’가 미치는 정적인 영향력이 큰 편이며, 반대로 ‘흥미이해’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자율적 행동역량의 세부영역이다. 중학생의 경우 5개 교과의 학업성적에 대하여 자율적 행동역량 세부영역 중 많은 항목이 영향을 미치는 교과는 사회이며 그 다음이 과학과 국어이고, 상대적으로 영어는 학생의 자율적 행동역량의 세부영역 영향력이 미약한 편이었다.

### (3) 고등학생

고등학생들의 학업성적과 자율적 행동역량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IV-40>과 같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학업 성적’과 자율적 행동역량의 하위 영역인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 ‘목표/과제 수립 실천’, ‘권익의 한계 이해 / 요구’ 세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 전반적으로 상관계수는 남학생에 비하여 여학생의 경우가 더 높은 편인데,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학업성적과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의 상관계수가 가장 높았다.

<표 IV-40> 고등학생의 학업성적과 자율적 행동역량

|                | 학교성적   |        |        |
|----------------|--------|--------|--------|
|                | 남학생    | 여학생    | 전체     |
|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  | .201** | .269** | .220** |
| 목표/과제 수립 실천하기  | .162** | .267** | .202** |
| 권익의 한계 이해/요구하기 | .139** | .221** | .167** |
| 자율적 행동역량 전체    | .195** | .291** | .228** |

\*\*\*:  $p < .001$ , \*\*:  $p < .01$ , \*:  $p < .05$



고등학생들의 자율적 행동역량 세부영역 별로 학업성적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별로 프로빗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IV-41>과 같다.

<표 IV-41> 고등학생의 자율적 행동역량 세부영역 중 학업 성적 결정변인

|                     |            | 국어             | 영어             | 수학             | 사회             | 과학             |
|---------------------|------------|----------------|----------------|----------------|----------------|----------------|
| 거시적<br>맥락에서<br>행동하기 | 패턴이해       | .156***        | .061***        | .076***        | .129***        | .071***        |
|                     | 체계이해       | .167***        | .018           | .061           | .229***        | .097*          |
|                     | 행동결과 인지    | -.050          | .100*          | .070           | -.053          | -.040          |
| 목표/과제<br>수립 실천      | 목표 및 과제 설정 | .028           | .049           | .003           | .038           | .014           |
|                     | 계획수립       | .011           | .117**         | .076*          | .102**         | .013           |
|                     | 수행         | .081*          | .020           | .135***        | .083*          | .016***        |
|                     | 평가         | .037           | -.051          | -.011          | -.030          | .007           |
| 권익의<br>한계<br>이해/요구  | 흥미 이해      | -.005          | -.061          | -.032          | -.111**        | -.043          |
|                     | 규칙원리 이해    | .039           | .053           | -.001          | .036           | .045           |
|                     | 욕구권리주장     | .091*          | .074           | .011           | .047           | .042           |
|                     | 대안         | -.077          | -.018          | -.067          | -.018          | -.037          |
| 통계치(-2log우도/유의도)    |            | 6,727.1<br>*** | 7,959.7<br>*** | 8,011.3<br>*** | 7,943.6<br>*** | 8,086.1<br>*** |

1) 교과별 제시된 값은 자율적 행동역량 세부영역의 해당 b추정값임

2) 유의도는 \*\*\*:  $p < .001$ , \*\*:  $p < .01$ , \*:  $p < .05$ 임

고등학생들의 ‘국어 학업성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자율적 행동역량 세부영역은 ‘패턴이해’, ‘체계이해’, ‘수행’, ‘욕구권리 주장’의 4가지 항목이다. 이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항목은 b 추정값이 .167로 나타난 ‘체계이해’이며, 그 다음으로 ‘패턴이해’, ‘욕구권리 주장’ 순인데 모두 정적인 추정값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등학생들의 ‘영어 학업성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자율적 행동역량 세부영역은 ‘패턴이해’, ‘계획 수립’의 2가지 항목이다. 이중

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항목은 b 추정값이 .117로 나타난 ‘계획수립’이며, 그 다음은 ‘패턴이해’이며, 이들 모두 정적인 추정값을 보인다.

고등학생들의 ‘수학 학업성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자율적 행동역량 세부영역은 ‘패턴이해’, ‘계획수립’, ‘수행’의 3가지 항목이다. 이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항목은 b 추정값이 .135로 나타난 ‘수행’이며, 그 다음은 ‘행동결과 인지’와 ‘패턴이해’, ‘계획수립’이고, 이들은 모두 정적인 b 추정값을 보인다.

고등학생들의 ‘사회 학업성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자율적 행동역량 세부영역은 ‘패턴이해’, ‘체계이해’, ‘계획수립’, ‘수행’, ‘흥미이해’의 5가지 항목이다. 이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항목은 b 추정값이 .229로 나타난 ‘체계이해’이다. 그 다음으로는 ‘패턴이해’이고, 그 다음인 ‘흥미이해’는 부적인 추정값을 보이며, 그 다음은 정적인 추정값을 보이는 ‘계획수립’과 ‘수행’이었다.

고등학생들의 ‘과학 학업성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자율적 행동역량 세부영역은 ‘패턴이해’, ‘체계이해’, ‘수행’의 3가지 항목이다. 이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항목은 b 추정값이 .097로 나타난 ‘체계이해’이며, 그 다음으로 ‘패턴이해’, ‘수행’ 순인데, 모두 정적인 추정값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때 고등학생의 학업 성적과 관련하여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5개 교과에 대하여 대체로 ‘패턴이해’와 ‘수행’이 미치는 정적인 영향력이 큰 편이다. 그리고 5개 교과 중 자율적 행동역량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교과는 사회이고 그 다음이 국어 순이다. 전반적으로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 비하여 고등학생의 경우 자율적 행동역량이 영향을 주는 정도인 b추정값이 낮아져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자율적 행동역량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 6) 시사점

지금까지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생활을 ‘학교만족도, 학교에 대한 인식, 학교 문제행동 빈도, 진로계획, 교과별 학업성적’으로 구분하고, 자율적 행동역량의 하위영역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주요한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만족도와 자율적 행동역량은 모든 학교급에서 정적인 상관을 보이지만, 그 관련성은 매우 낮다. 성별차이를 보면, 초등학생 시기에는 ‘자율적 행동역량의 하위영역 또는 세부영역’과 ‘학교만족도’간에 상관을 보이는 영역이 성별로 다르게 나타났지만, 중학교에서는 성별간에 차이가 없는 편이었고, 고등학생의 경우는 남학생에 비하여 여학생이 대부분의 영역에서 상관이 더 높고 유의미한 영역도 많이 나타났다.

둘째, 학교에 대한 인식과 자율적 행동역량간의 관계를 보면 전반적으로 학교급에 상관없이 학교에 대한 인식 중에서는 ‘수업시간 재미정도’가 자율적 행동역량과의 상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 대한 인식과 자율적 행동역량의 상관은 전반적으로 학교급이 증가하면서 상관계수의 값이 낮아져서 그 관련성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어서 학생들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학교 환경이 학생들의 자율적 행동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셋째, 학교 문제행동 빈도와 자율적 행동역량간에는 대부분 변수에서 부적인 상관이 나타나서 서로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학교급별로 볼 때, 학교 문제행동 빈도 중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적 행동역량간의 상관이 모든 학교급에서 높게 나타난 것은 ‘지각 경험’이고, 학교급이 올라가면서 자율적 행동역량과의 부적인 상관관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것은 ‘무단결석 경험’이었다.

넷째, 학생의 진로계획과 자율적 행동역량은 학교급에 상관없이 서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율적 행동역량이 학생들의 진로계획에 미치는 세부 영향을 살펴본 프로빗 회귀분석의 결과, 학교급에 상관없이

‘목표 및 과제 설정’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결정적인 요소였다. ‘목표 및 과제 설정’영역은 대부분 .5 정도이거나 그 이상의 값으로 정적인 수준에서 b 추정값을 보이고 있어서, 목표 및 과제 설정에 능할수록 진로계획이 명료할 가능성이 크다.

다섯째, 학업성적과 자율적 행동역량의 관계를 보면 학교급별로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인 경우는 중학생이며, 그 다음으로 초등학교, 고등학교 순이다. 성별로는 초등학교의 경우 남학생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는 여학생이 상대적으로 상관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교의 경우 학업 성적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자율적 행동역량의 세부영역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의 5개 교과 대부분에서 ‘패턴이해’, ‘체계이해’인데, 이들은 모두 정적인 b 추정값을 보였다. 중학교의 경우는 정적인 b 추정값을 보인 ‘패턴이해’와 부적인 b 추정값을 보인 ‘흥미이해’가 학업성적에 대하여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의 경우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자율적 행동역량의 세부영역은 ‘패턴이해’와 ‘수행’이며 모두 정적인 b 추정값을 나타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의 5개 주요 교과 학업성적 중에서 자율적 행동역량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교과는 ‘사회’ 교과로 나타났는데, 이는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의 하위영역이 대부분 사회 교과의 학습 내용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학교급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자율적 행동역량은 학교생활과 상관이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우리나라의 학교생활이 학생들의 자율적 행동역량을 길러주는 데 미진한 환경이라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의 학교 환경은 통제가 강하여 학생들의 자율적 행동역량을 크게 드러내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점이다. 이 두 가지는 사실 해석의 방향만 다를 뿐 궁극적으로 같은 이야기이다. 이러한 환경의 이면에는 주지주의적 교육을 강조하는 입시교육 중심의 학교생활이 자리 잡고 있다.

“공부 이외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은 학생 개인에게는 손해다.” 라고 인식하는 사회 환경에서, 학생들은 오로지 좋은 학업성적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입해야 하는 ‘학생으로서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바로 이러한 환경 안에서 살아가는 청소년들은, 스스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거시적인 맥락의 세계 질서를 이해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과업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면서 평가하고, 그리고 자신의 관심과 흥미를 고려하고 자신의 권리를 고려하며 자신의 주장을 하는 자율적 행동역량을 발휘할 여지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바로 이점이 학생들의 자율적 행동역량과 학교 생활의 다양한 하위영역간의 상관이 전반적으로 낮고, 학생들의 학교급이 증가할수록 자율적 행동역량과 학교생활과의 다양한 하위 부분에서 상관성이 더 낮아지는 이유일 것이다.

그럼에도 청소년들의 자율적 행동역량이 자신의 진로계획과 학업성적에 어느 정도 정적인 상관을 보이는 점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읽어낼 수 있다. 또한 이점은 청소년들의 자율적 행동역량을 강조하고 길러주어야 할 이유가 되기도 한다. 학생들의 학교 수업시간 흥미 정도가 자율적 행동역량과 정적으로 상관이 높았음을 고려할 때, 학교에서는 다양한 학습방법을 고려하여 흥미로운 수업이 이루어지는 교실 분위기를 만들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계적으로 상호 영향력이 약하기는 했지만 상관성이 어느 정도는 있다는 점에서, 좋은 학업 분위기를 만들려는 노력과 교직의 엄격성을 줄이고 학생들의 의견 반영을 높이는 학교를 만들려는 노력도 요구된다.

#### 4. 개인 활동과 자율적 행동 역량의 관계

주어진 상황과 시스템의 체계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스스로의 목표를 세우고 실행하고, 또한 자신의 권리와 한계를 이해하며 다른 이와 더불어 조화로운 삶을 사는 것은 우리청소년들이 개발해야 할 매우 중요한 자율적 행동역량이다. 교육자 혹은 청소년 지도자로서 우리는 학생들이 자율적 행동역량을 잘 개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학생들의 자율 행동 역량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이해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안내와 도움을 줌으로써 교육자로서의 우리의 노력을 좀 더 효과적으로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적 행동역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 여러 가지 변인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개인 활동과 자율적 행동 역량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1) 초등학생 및 중고등 학생의 개인 활동경험 비교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의 활동경험변인(30분 이상의 운동, 책 읽는 시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Chi-square 통계 기법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사이에, 30분 이상의 운동 빈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Chi-square (1, 7510) = 72.40,  $p < .001$ ). 즉 초등학생의 경우, 운동을 거의 하지 않거나 일주일에 1-2회 하는 학생은 약 70%에 이르렀고, 중고등학생은 약 60%였다. 교과서 이외의 책 읽는 시간 역시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Chi-square (1, 7461) = 83.24,  $p < .001$ ). 즉 약 24%의 초등학생이 교과서 이외의 책 읽는 시간을 갖지 않는 반면, 중고등학생의 경우, 15% 만이 교과서 이외의 책 읽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Independent Samples t- test를 이용하여,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의 전반적인 활동수준과 삶의 만족도를 비교하였다. 흥미롭게도 전반적인 활동수준에서는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지만 ( $t = 12.05$ ,  $p < .001$ ),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중고등학생이 초등학생보다 유의

미하게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 $t = -9.53, p < .001$ ).

〈표 IV-42〉 전반적인 성숙도와 삶의 만족도

|           | 초등학교 |      | 중고등학교 |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전반적인 활동수준 | 2.64 | 0.69 | 2.43  | 0.70 |
| 삶의 만족도    | 5.72 | 2.40 | 6.33  | 2.60 |

## 2) 데이터 표준화

자율적 행동역량은 크게 세 가지 변인 즉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 목표/과제 수립 실천하기, 그리고 권익의 한계 이해/요구로 측정되었다. 각 변인은 다시 세 개 혹은 네 개의 하위 변인으로 측정되었다.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는 패턴이해, 체계이해, 행동결과인지로, 목표/과제 수립 실천은 목표 및 과제 설정, 계획 수립, 수행, 평가로, 그리고 권익의 한계 이해/요구는 흥미이해, 규칙원리 이해, 욕구 권리 이해, 대안제시로 측정되었다. 하지만, 리커트(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한 다른 하위 변인들과는 달리, 거시적 맥락의 패턴이해는 현재의 사회 패턴을 이해하는 10가지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채점방식은  $(1 - \text{해당문항의 정답률}) \times 10 \times \text{정/오답} (0/1)$ 을 이용하여 각 문항의 점수를 계산하였다. 패턴이해 변인의 측정 단위가 5점 척도를 이용한 기존의 다른 변인과 다르므로, Z 값을 이용하여 모든 하위 핵심변인을 표준화 하였다. 표준화 한 뒤에, 각 핵심역량별로, 하위 변인들의 더한 값을 데이터 분석을 위해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하의 표에서는 세 가지 핵심역량의 원래 값이 아닌, Z 값을 이용하였고, 그 값을 표에 나타내었다.

## 3) 초등학생 및 중고등 학생의 자율적 행동역량 비교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 역량은 중고등학생이 초등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t = -9.52, p < .001$ ). 하지만, 권익의 한계 이해/요구 역량은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 $t = 4.16, p < .001$ ). 또한 흥미롭게도 목표/과제 수립 실천 역량은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간의 차이가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발달 시기를 고려하지 않고,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의 자율적 행동역량을 비교하여, 단순히 어느 집단이 높고, 어느 집단이 낮다고 단언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나이 어린 학생 일수록,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 하는 경향이 있고, 나이 든 학생은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표 IV-43〉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자율적 행동역량 비교

|               | 초등학교    |      | 중고등학교   |      |
|---------------|---------|------|---------|------|
|               | Z 값의 평균 | 표준편차 | Z 값의 평균 | 표준편차 |
|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 | -0.44   | 2.85 | 0.20    | 2.11 |
| 목표/과제 수립 실천하기 | 0.03    | 3.45 | 0.00    | 3.11 |
| 권익 한계 이해/요구하기 | 0.26    | 3.45 | -0.10   | 3.17 |

#### 4) 지역별 자율적 행동 역량

지역별 학생들 간의 자율적 행동역량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Analysis of Variance (ANOVA) 통계 기법을 사용하였다. 독립변인은 초등학생의 거주 지역이었고, 종속변인은 각각의 자율적 행동역량의 하위영역들 이었다. ANOVA 통계 분석 결과,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는 자율적 행동역량 모두 즉 거시적 맥락에서 이해하기 ( $F = 3.69, p < .001$ ), 목표/과제 수립 실천 ( $F = 3.48, p < .001$ ), 그리고 권익의 한계 이해/요구 ( $F = 5.27, p < .001$ )가 지역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 변인과 관련하여서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면, 서울 및 대구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결과 값을 보여주고 있다. 목표/과제 수립 실천 변인과 관련하여서는 서울을 포함한 부산, 대전, 광주, 경기 그리고 경상지역이 높은 결과 값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권익



의 요구 변인에서는 서울, 부산, 울산 그리고 대전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거주지역의 초등학생의 자율적 행동역량이 그렇지 않은 지역에 거주 하는 또래 학생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4〉 초등학생의 지역별 자율적 행동역량 비교

| 초등학생 | 거시적 맥락에서<br>행동하기 |      | 목표/과제<br>수립 실천하기 |      | 권익의 한계<br>이해/요구하기 |      |
|------|------------------|------|------------------|------|-------------------|------|
|      | Z 값의 평균          | 표준편차 | Z 값의<br>평균       | 표준편차 | Z 값의<br>평균        | 표준편차 |
| 서울   | -0.05            | 3.06 | 0.58             | 3.68 | 0.89              | 3.54 |
| 부산   | -0.14            | 3.08 | 1.10             | 4.09 | 1.15              | 4.12 |
| 대구   | -0.06            | 2.36 | -0.28            | 2.86 | 0.41              | 2.61 |
| 인천   | -0.63            | 2.78 | -0.22            | 3.36 | -0.07             | 3.35 |
| 광주   | -0.51            | 2.50 | 0.05             | 3.26 | -0.06             | 3.21 |
| 대전   | -0.56            | 2.73 | 0.54             | 3.24 | 1.19              | 3.49 |
| 울산   | -0.11            | 3.16 | -0.13            | 3.16 | 0.45              | 3.13 |
| 경기   | -0.21            | 2.82 | 0.10             | 2.95 | 0.38              | 3.19 |
| 강원   | -0.80            | 2.49 | -0.59            | 3.52 | -0.16             | 3.16 |
| 충청   | -1.03            | 2.77 | -0.48            | 3.26 | -0.58             | 3.47 |
| 전라   | -1.05            | 2.71 | -0.28            | 3.64 | -0.23             | 3.71 |
| 경상   | -0.93            | 2.85 | 0.03             | 3.45 | -0.43             | 3.63 |

자율적 행동역량의 지역별 차이를 뚜렷이 보여준 초등학생의 경우와는 달리, 중고등학생 사이에서는 자율적 행동역량의 지역별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적 행동역량의 지역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방향 변량분석법(one-way ANOVA)을 사용하였다. 독립변인은 중고등학생의 거주 지역이었고, 종속변인은 자율적 행동역량의 각 하위영역이었다. 분석결과,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 ( $F = 2.02, p < .05$ ) 그리고 권익의 한계 이해/요구 ( $F = 2.73, p < .01$ ) 역량에서만 지역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의 경우, 광주, 대전 및 경기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권익의 한계 이해/요구의 경우 서울, 인천, 및 경기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주로 대도시와 그렇지 않은 지역간의 차이가 없었던 앞서의 결과와는 달랐다.

〈표 IV-45〉 중고등학생의 지역별 자율적 행동역량 비교

| 중고등학생 | 거시적 맥락에서<br>행동하기 |      | 목표/과제 수립<br>실천하기 |      | 권익의 한계<br>이해/요구하기 |      |
|-------|------------------|------|------------------|------|-------------------|------|
|       | Z 값의<br>평균       | 표준편차 | Z 값의<br>평균       | 표준편차 | Z 값의<br>평균        | 표준편차 |
| 서울    | 0.23             | 2.20 | 0.12             | 3.27 | 0.07              | 3.40 |
| 부산    | 0.26             | 2.15 | 0.04             | 3.16 | 0.06              | 3.11 |
| 대구    | -0.04            | 2.06 | -0.22            | 3.02 | -0.46             | 2.96 |
| 인천    | 0.23             | 1.93 | 0.26             | 2.94 | 0.36              | 2.91 |
| 광주    | 0.36             | 1.91 | -0.04            | 3.10 | -0.32             | 3.06 |
| 대전    | 0.37             | 1.97 | 0.17             | 3.00 | -0.11             | 3.12 |
| 울산    | -0.04            | 2.19 | -0.13            | 3.14 | -0.21             | 2.88 |
| 경기    | 0.33             | 2.18 | 0.08             | 2.65 | 0.06              | 3.21 |
| 강원    | 0.10             | 1.89 | 0.01             | 3.44 | -0.39             | 2.81 |
| 충청    | 0.22             | 2.32 | 0.07             | 3.24 | -0.13             | 3.31 |
| 전라    | -0.05            | 2.14 | -0.08            | 2.90 | -0.30             | 3.36 |
| 경상    | 0.05             | 1.86 | -0.44            | 3.11 | -0.48             | 2.96 |

##### 5) 성별 자율적 행동 역량

자율적 행동역량 측정변인과 관련하여 남녀 학생 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ANOVA 통계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초등학생 그리고 중고등학생 모두에게서 남녀 간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초등학생의 경우, 세 가지 자율적 행동 역량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 ( $F = 9.82, p < .01$ ), 목표/과제 수립 실천 ( $F = 11.94, p < .01$ ), 그리고 권익의 한계 이해/요구( $F = 9.97, p < .01$ ))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남녀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든 영역에 있어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자율적 행동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6〉 초등학생의 성별 자율적 행동역량 비교

| 초등학생<br>(n=2204) | 거시적 맥락에서<br>행동하기 |      | 목표/과제 수립<br>실천하기 |      | 권익의 한계<br>이해/요구하기 |      |
|------------------|------------------|------|------------------|------|-------------------|------|
|                  | Z 값의<br>평균       | 표준편차 | Z 값의<br>평균       | 표준편차 | Z 값의<br>평균        | 표준편차 |
| 남자 (n=1107)      | -0.63            | 2.89 | -0.22            | 3.58 | 0.03              | 3.55 |
| 여자 (n=1097)      | -0.25            | 2.80 | 0.28             | 3.30 | 0.49              | 3.32 |

중고등학생의 경우, 마찬가지로 세 가지 하위 역량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 ( $F = 15.90$ ,  $p < .001$ ), 목표/과제 수립 실천 ( $F = 5.21$ ,  $p < .05$ ), 그리고 권익의 한계 이해/요구 ( $F = 17.14$ ,  $p < .001$ )) 모두에서 남녀 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목표/과제 수립 실천, 그리고 권익의 한계 이해/요구 역량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았다.

〈표 IV-47〉 중고등학생의 성별 핵심역량 비교

| 중고등학생<br>(n=5189) | 거시적 맥락에서<br>행동하기 |      | 목표/과제 수립<br>실천하기 |      | 권익의 한계<br>이해/요구하기 |      |
|-------------------|------------------|------|------------------|------|-------------------|------|
|                   | Z 값의<br>평균       | 표준편차 | Z 값의<br>평균       | 표준편차 | Z 값의<br>평균        | 표준편차 |
| 남자 (n=2778)       | 0.90             | 2.19 | -0.09            | 3.21 | -0.27             | 3.32 |
| 여자 (n=2416)       | 0.32             | 1.99 | 0.11             | 2.99 | 0.10              | 2.97 |

## 6) 학년별 자율적 행동 역량

학년별 자율적 행동역량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변량분석법을 사용하였다. 초등학생 그리고 중고등학생 모두에게서 학년별로 자율적 행동역량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 두 가지 하위 역량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 ( $F = 17.60$ ,  $p < .001$ ) 그리고 목표/과제수립 실천 ( $F = 3.46$ ,  $F < .05$ ))에서 학

년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학년이 높아질수록 거시적 맥락에서 이해하기 역량이 높아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목표/ 과제 수립 실천 역량은 4학년 5학년 사이에서 증가하다가, 6학년에서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표 IV-48〉 초등학생의 학년별 자율적 행동역량 비교

| 초등학생<br>(n=2204) | 거시적 맥락에서<br>행동하기 |      | 목표/과제<br>수립 실천하기 |      | 권익의 한계<br>이해/요구하기 |      |
|------------------|------------------|------|------------------|------|-------------------|------|
|                  | Z 값의<br>평균       | 표준편차 | Z 값의<br>평균       | 표준편차 | Z 값의<br>평균        | 표준편차 |
| 4학년 (n=641)      | -0.99            | 3.05 | 0.11             | 3.67 | 0.12              | 3.61 |
| 5학년 (n=775)      | -0.31            | 2.80 | 0.22             | 3.51 | 0.40              | 3.42 |
| 6학년 (n=788)      | -0.13            | 2.67 | -0.22            | 3.18 | 0.23              | 3.33 |

중고등학생의 경우, 세 가지 하위 역량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 ( $F = 17.49$ ,  $p < .001$ ), 목표/과제수립 실천 ( $F = 10.16$ ,  $p < .001$ ), 그리고 권익의 한계 이해/요구 ( $F = 3.77$ ,  $p < .05$ ))에서 학년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고등학생의 경우, 학년이 높아질수록 높은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 목표/과제 수립 실천, 그리고 권익의 한계 이해/요구를 보여 주었다.

〈표 IV-49〉 중고등학생의 학년별 핵심역량 비교

| 중고등학생<br>(n=5194) | 거시적 맥락에서<br>행동하기 |      | 목표/과제수립 실천 |      | 권익의 한계<br>이해/요구 |      |
|-------------------|------------------|------|------------|------|-----------------|------|
|                   | Z 값의<br>평균       | 표준편차 | Z 값의<br>평균 | 표준편차 | Z 값의<br>평균      | 표준편차 |
| 1학년 (n=1933)      | 0.01             | 2.16 | -0.12      | 3.18 | -0.18           | 3.27 |
| 2학년 (n=1757)      | 0.20             | 2.05 | -0.13      | 2.92 | -0.17           | 3.02 |
| 3학년 (n=1504)      | 0.44             | 2.08 | 0.30       | 3.23 | 0.09            | 3.19 |

## 7) 부모의 학력과 자율적 행동 역량

부모의 학력 수준과 자율적 행동역량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일방형 변량분석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초등학생의 경우, 초등학생 부의 학력 수준과 관련하여서는, 세 가지 하위 역량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 ( $F=12.85$ ,  $p<.001$ ), 목표/과제수립 실천 ( $F=9.08$ ,  $p<.001$ ), 그리고 권익의 한계 이해/요구 ( $F=7.50$ ,  $p<.001$ ))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학생의 자율적 행동역량도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표 IV-50> 초등학생의 부 학력별 자율적 행동역량 비교

| 초등학생의<br>부 학력<br>(n=1950) | 거시적 맥락에서<br>행동하기 |      | 목표/과제<br>수립 실천하기 |      | 권익의 한계<br>이해/요구하기 |      |
|---------------------------|------------------|------|------------------|------|-------------------|------|
|                           | Z 값의<br>평균       | 표준편차 | Z 값의<br>평균       | 표준편차 | Z 값의<br>평균        | 표준편차 |
| 학교 안다님<br>(n=9)           | -3.10            | 2.96 | -0.02            | 3.14 | -0.72             | 4.85 |
| 초등학교 졸업<br>(n=18)         | -3.04            | 2.61 | -1.76            | 2.98 | -1.36             | 2.72 |
| 중학교 졸업<br>(n=35)          | -1.47            | 2.22 | -0.39            | 2.92 | -0.39             | 3.00 |
| 고등학교 졸업<br>(n=673)        | -0.70            | 2.80 | -0.06            | 3.56 | 0.12              | 3.50 |
| 2-3년제 대학<br>졸업 (n=369)    | -0.44            | 2.75 | 0.60             | 3.19 | 0.23              | 3.22 |
| 4년제 대학교<br>졸업 (n=671)     | 0.17             | 2.65 | 1.16             | 3.16 | 0.79              | 3.22 |
| 대학원졸업<br>(n=175)          | 0.32             | 2.95 | 1.14             | 3.63 | 1.23              | 3.46 |

마찬가지로 모의 학력 수준과 관련하여서도, 학생들의 세 가지 하위역량에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 ( $F=8.37$ ,  $p<.001$ ), 목표/과제수립 실천 ( $F=8.16$ ,  $p<.001$ ), 그리고 권익의 한계 이해/요구 ( $F=7.87$ ,  $p<.001$ )). 즉 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그 학생 역시 높은 자율적 행동역량을 보여주었다.

<표 IV-51> 초등학생의 모 학력별 자율적 행동역량 비교

| 초등학생의<br>모 학력<br>(n=1930) | 거시적 맥락에서<br>행동하기 |      | 목표/과제<br>수립 실천하기 |      | 권익의 한계<br>이해/요구하기 |      |
|---------------------------|------------------|------|------------------|------|-------------------|------|
|                           | Z 값의<br>평균       | 표준편차 | Z 값의<br>평균       | 표준편차 | Z 값의<br>평균        | 표준편차 |
| 학교 안다님<br>(n=8)           | -3.49            | 3.83 | -1.81            | 4.50 | -2.49             | 5.66 |
| 초등학교 졸업<br>(n=13)         | -1.78            | 2.77 | -0.68            | 2.56 | -0.01             | 2.82 |
| 중학교 졸업<br>(n=45)          | -1.17            | 2.62 | -0.71            | 3.24 | -1.00             | 3.52 |
| 고등학교 졸업<br>(n=795)        | -0.59            | 2.76 | -0.28            | 3.37 | 0.01              | 3.36 |
| 2-3년제 대학 졸업<br>(n=367)    | -0.39            | 2.82 | -0.11            | 3.18 | 0.26              | 3.17 |
| 4년제 대학교<br>졸업 (n=598)     | 0.23             | 2.65 | 0.84             | 3.28 | 1.00              | 3.22 |
| 대학원졸업<br>(n=104)          | -0.04            | 3.35 | 0.56             | 4.07 | 0.83              | 4.02 |

하지만, 어머니의 학력이 대학원졸업 이상인 경우, 4년제 대졸 어머니의 자녀보다 자율적 행동역량이 낮았으며, 이는 부의 학력이 대학원 졸업일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세 가지 하위 역량점수가 전반적으로 모두 높게 나타난 결과와는 대조적인 것이었다.

다음으로 중고등학생의 경우를 알아보았다. 마찬가지로, 부의 학력과 중고등학생의 자율적 행동 역량에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 ( $F = 30.81$ ,  $p < .001$ ), 목표/과제 수립 실천 ( $F = 15.35$ ,  $p < .001$ ), 그리고 권익의 한계 이해/요구 ( $F = 14.53$ ,  $p < .001$ ))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 학력이 높을수록 중고등학생의 자율적 행동역량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2〉 중고등학생의 아버지 학력별 자율적 행동역량 비교

| 중고등학생의<br>부 학력<br>(n=4940) | 거시적 맥락에서<br>행동하기 |      | 목표/과제<br>수립 실천하기 |      | 권익의 한계<br>이해/요구하기 |      |
|----------------------------|------------------|------|------------------|------|-------------------|------|
|                            | Z 값의<br>평균       | 표준편차 | Z 값의<br>평균       | 표준편차 | Z 값의<br>평균        | 표준편차 |
| 학교 안다님 (n=16)              | -1.75            | 2.34 | -1.87            | 5.29 | -2.35             | 5.02 |
| 초등학교 졸업 (n=95)             | 0.19             | 1.67 | -0.22            | 3.12 | -0.29             | 2.97 |
| 중학교 졸업 (n=231)             | -0.30            | 2.18 | -0.60            | 2.96 | -0.70             | 2.60 |
| 고등학교 졸업 (n=2258)           | -0.01            | 2.03 | -0.25            | 2.93 | -0.31             | 3.10 |
| 2-3년제 대학 졸업<br>(n=454)     | -0.08            | 2.24 | -0.04            | 3.29 | -0.36             | 3.28 |
| 4년제 대학교 졸업<br>(n=1577)     | 0.68             | 1.97 | 0.49             | 3.12 | 0.40              | 3.09 |
| 대학원졸업 (n=309)              | 0.93             | 2.28 | 0.84             | 3.35 | 0.62              | 3.43 |

〈표 IV-53〉 중고등학생의 어머니 학력별 자율적 행동역량 비교

| 중고등학생의 모 학력<br>(n=4918) | 거시적 맥락에서<br>행동하기 |      | 목표/과제<br>수립 실천 |      | 권익의 한계<br>이해/요구 |      |
|-------------------------|------------------|------|----------------|------|-----------------|------|
|                         | Z 값의<br>평균       | 표준편차 | Z 값의<br>평균     | 표준편차 | Z 값의<br>평균      | 표준편차 |
| 학교 안다님 (n=23)           | -0.85            | 2.12 | -0.45          | 4.72 | -1.10           | 4.00 |
| 초등학교 졸업 (n=78)          | -0.20            | 2.02 | -0.64          | 3.19 | -0.52           | 2.72 |
| 중학교 졸업 (n=268)          | -0.13            | 2.10 | -0.30          | 3.00 | -0.53           | 3.08 |
| 고등학교 졸업<br>(n=2792)     | 0.15             | 2.03 | -0.11          | 2.99 | -0.15           | 3.05 |
| 2-3년제 대학 졸업<br>(n=415)  | -0.07            | 2.34 | -0.02          | 3.30 | -0.22           | 3.25 |
| 4년제 대학교 졸업<br>(n=1192)  | 0.66             | 2.05 | 0.51           | 3.18 | 0.39            | 3.19 |
| 대학원졸업 (n=154)           | 0.91             | 2.27 | 0.74           | 3.55 | 0.36            | 3.88 |

또한 모 학력 역시, 중고등학생의 세 가지 핵심역량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즉 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세 가지 자율적 행동 역량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 ( $F = 16.08, p < .001$ ), 목표/과제 수립 실천 ( $F = 8.19, p < .001$ ), 그리고 권익의 한계 이해/요구 ( $F = 6.73, p < .001$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어머니의 학력이 대학원 졸업일 때가 4년제 대학 졸업일 때보다 학생의 자율적 행동역량이 낮았던 초등학생의 경우와는 대조적으로, 중고등학생의 경우, 모의 대학원 졸업 학력이 전반적으로 학생의 자율적 행동역량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부모의 학력이 학생들의 장류적 행동역량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발달 시기(초등 및 중고등)와 관계없이, 부모의 학력이 지속적으로 학생의 자율적 행동역량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것은 개인의 평생학습에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왜냐하면, 청소년기에 생성된 자율적 행동역량이 지속적으로 평생학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8) 가정의 경제적 수준별 자율적 행동 역량

가정의 경제력 수준과 자율적 행동역량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ANOVA 통계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초등학생의 경우, 가정의 경제력과 세 가지 하위역량 즉,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 ( $F = 8.90, p < .001$ ), 목표/과제 수립 실천 ( $F = 17.81, p < .001$ ), 그리고 권익의 한계 이해/요구 ( $F = 11.81, p < .001$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가정의 경제 수준이 낮은 학생들보다 높은 자율적 행동역량을 보여 주고 있었다. 하지만, 매우 잘 산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경우, ‘매우 잘 산다’ 보다 한 단계 낮게 보고한 학생들에 비해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 그리고 권익의 한계 이해/요구 에서 오히려 낮은 역량 점수를 보였다.



〈표 IV-54〉 초등학교의 경제적 수준별 자율적 행동역량 비교

| 초등학교<br>(n=2133)    | 거시적 맥락에서<br>행동하기 |      | 목표/과제 수립<br>실천하기 |      | 권익의 한계<br>이해/요구하기 |      |
|---------------------|------------------|------|------------------|------|-------------------|------|
|                     | Z 값의<br>평균       | 표준편차 | Z 값의<br>평균       | 표준편차 | Z 값의<br>평균        | 표준편차 |
| 1 매우 못 산다<br>(n=8)  | 0.08             | 4.54 | -0.01            | 5.27 | 1.25              | 4.43 |
| 2<br>(n=28)         | -1.48            | 2.78 | 0.96             | 3.64 | 0.04              | 2.81 |
| 3<br>(n=145)        | -0.50            | 2.63 | -0.84            | 3.12 | -0.32             | 3.33 |
| 4 보통 수준<br>(n=1051) | -0.83            | 2.86 | -0.55            | 3.44 | -0.22             | 3.39 |
| 5<br>(n=599)        | 0.02             | 2.63 | 0.54             | 3.18 | 0.85              | 3.27 |
| 6<br>(n=215)        | 0.20             | 2.93 | 1.32             | 3.35 | 1.28              | 3.53 |
| 7 매우 잘 산다<br>(n=87) | -0.01            | 3.10 | 1.57             | 3.95 | 1.02              | 3.97 |

〈표 IV-55〉 중고등학교의 경제적 수준별 자율적 행동역량 비교

| 중고등학교<br>(n=5135)   | 거시적 맥락에서<br>행동하기 |      | 목표/과제<br>수립 실천하기 |      | 권익의 한계<br>이해/요구하기 |      |
|---------------------|------------------|------|------------------|------|-------------------|------|
|                     | Z 값의<br>평균       | 표준편차 | Z 값의<br>평균       | 표준편차 | Z 값의<br>평균        | 표준편차 |
| 1 매우 못 산다<br>(n=80) | -0.51            | 2.25 | -1.18            | 4.62 | -1.22             | 4.01 |
| 2<br>(n=273)        | -0.14            | 2.17 | -0.41            | 3.16 | -0.38             | 3.03 |
| 3<br>(n=743)        | 0.05             | 2.14 | -0.24            | 3.04 | -0.27             | 3.06 |
| 4 보통 수준<br>(n=2711) | 0.07             | 2.02 | -0.22            | 3.00 | -0.31             | 3.05 |
| 5<br>(n=1053)       | 0.63             | 2.05 | 0.70             | 2.90 | 0.56              | 3.13 |
| 6<br>(n=208)        | 1.13             | 2.27 | 1.47             | 3.48 | 1.23              | 3.46 |
| 7 매우 잘 산다<br>(n=67) | 0.10             | 2.81 | 0.25             | 4.52 | -0.42             | 4.63 |

초등학생과 마찬가지로, 중고등학생 역시,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학생들의 자율적 행동역량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력과 세 가지 하위역량 즉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 ( $F = 19.83, p < .001$ ), 목표/과제 수립 실천 ( $F = 22.81, p < .001$ ), 그리고 권익의 한계 이해/요구 ( $F = 18.85, p < .001$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매우 잘 산다고 응답한 학생들보다 한 단계 혹은 두 단계 낮게 경제력을 보고한 학생들이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 목표/과제 수립 실천하기, 그리고 권익의 한계 이해/요구하기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여준다는 점이었다.

요약해 보면, 사회 인구학적 변인과 학생들의 자율적 행동역량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 성별, 학년, 그리고 부모의 학력에 따른 학생들의 자율적 행동 역량 차이가 관찰되었다. 즉 초등학생의 경우, 대도시 거주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높은 자율적 행동역량을 보여 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발달시기를 거치면서 중고등학생의 경우, 대도시 거주 여부가 학생의 자율적 행동 역량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간의 자율적 행동역량의 차이에서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자율적 행동역량을 보여 주었다. 또한, 학년별 차이를 보면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모두에서 고학년 학생이, 저학년보다 높은 자율적 행동역량을 보여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학력이 높은 학생들의 경우,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모두 높은 자율적 행동역량을 보여 주는 경향이 있었다.

## 5. 상관분석과 계층적 회귀분석(HRM)

학생의 개인 활동, 자율적 행동역량 그리고 자율적 행동역량의 종속변수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은 초등학생 그리고 중등학생 순으로 이뤄졌다.

### 1) 변인간의 상관관계 (초등학생)

첫 번째로, 개인 활동변인과 자율적 행동역량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30분 이상의 운동 빈도는 세 가지 하위역량 모두 즉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 ( $r = .08, p < .001$ ), 목표/과제 수립 실천( $r = .18, p < .001$ ), 그리고 권익의 한계 이해/요구 ( $r = .15, p < .001$ )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들의 책 읽는 시간과 관련하여서도 세 가지 하위역량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주었다 (거시적 맥락 행동하기 ( $r = 0.30, p < .001$ ), 목표/과제 수립 실천 ( $r = 0.24, p < .001$ ), 그리고 권익의 한계 이해/요구 ( $r = 0.23, p < .001$ )).

두 번째로, 개인 활동과 자율적 행동역량의 종속변수 (학업성적, 전반적 성숙도, 그리고 자신에 삶에 대한 만족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30분 이상 운동 빈도를 가진 학생들의 경우 학업성적 ( $r = 0.11, p < .001$ ), 전반적인 성숙도 ( $r = 0.07, p < .01$ ),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 ( $r = 0.13, p < .001$ )에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주었다. 책 읽는 시간과 관련하여서 학업성적 ( $r = 0.27, p < .001$ ), 전반적인 성숙도 ( $r = 0.07, p < .001$ ),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 $r = 0.06, p < .01$ ) 에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주었다.

세 번째로, 자율적 행동역량과 자율적 행동역량의 종속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모든 가능한 관계의 경우의 수에서,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상관계수는 상술한 첫 번째 (개인 활동과 자율적 행동역량) 및 두 번째의 상관관계 (개인 활동과 자율적 행동역량의 종속변수)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는 세 가지 자율적 행동역량의 종속 변수와 정(+)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 $r = 0.47, p < .001$ ), 전반적 성숙도( $r = 0.22, p < .001$ ),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 $r = 0.16, p < .001$ )). 목표/과제 수립 실천 역시 세 가지 종속변수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주었다 (학업성적( $r = 0.39, p < .001$ ), 전반적 성숙도( $r = 0.23, p < .001$ ),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 $r = 0.22, p < .001$ )). 마지막으로 권익의 한계 이해/

요구의 경우 역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학업성적( $r = 0.45$ ,  $p < .001$ ), 전반적 성숙도( $r = 0.19$ ,  $p < .001$ ),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 $r = 0.19$ ,  $p < .001$ )).

## 2) 변인간의 상관관계 (중고등학생)

중고등학생의 개인 활동, 자율적 행동역량 그리고 자율적 행동역량의 종속변수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경우, 개인 활동의 변인으로 단체 활동 참여 경험 및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이 추가되었다. 참고로 단체 활동 경험 및 자원 봉사 활동 참여 경험은 초등학생에게는 조사 되어 지지 않았다.

첫 번째로, 개인 활동과 자율적 역량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개인 활동 변인 중 30분 이상의 운동 빈도는 세 가지 하위 변인 중, 목표/과제 수립 실천( $r = 0.10$ ,  $p < .001$ ) 그리고 권익의 한계 이해/요구 ( $r = 0.04$ ,  $p < .01$ )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책 읽는 시간과 관련하여서는 세 가지 하위 역량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주었다 (거시적 맥락 행동하기 ( $r = 0.09$ ,  $p < .001$ ), 목표/과제 수립 실천 ( $r = 0.09$ ,  $p < .001$ ), 그리고 권익의 한계 이해/요구 ( $r = 0.09$ ,  $p < .001$ )). 단체 활동 참여 경험은 모든 하위 역량 즉,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 ( $r = 0.16$ ,  $p < .001$ ), 목표/과제 수립 실천 ( $r = 0.16$ ,  $p < .001$ ), 그리고 권익의 한계 이해/요구 ( $r = 0.14$ ,  $p < .001$ )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또한 자원봉사 활동 경험 역시 모든 하위 역량 즉,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 ( $r = 0.17$ ,  $p < .001$ ), 목표/과제 수립 실천 ( $r = 0.16$ ,  $p < .001$ ), 그리고 권익의 한계 이해/요구 ( $r = 0.14$ ,  $p < .001$ )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주고 있었다.

두 번째로, 개인 활동과 자율적 행동역량의 종속변수와의 상관관계를 살펴해보았다. 30분 이상 운동 빈도를 가진 학생들의 경우 세 가지 자율적 행동역량의 종속변수 모두에서 정(+)적 상관관계가 관찰 되었다. 학업성적 ( $r =$

0.04,  $p < .01$ ), 전반적 성숙도 ( $r = 0.08$ ,  $p < .001$ ),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 ( $r = 0.09$ ,  $p < .001$ )). 책 읽는 시간과 관련해서는 학업성적 ( $r = 0.13$ ,  $p < .001$ )과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 $r = 0.07$ ,  $p < .001$ )에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주었다. 단체 활동 참여경험은 학업성적( $r = 0.13$ ,  $p < .001$ ), 전반적 성숙도( $r = 0.15$ ,  $p < .001$ ),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 ( $r = .08$ ,  $p < .001$ )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활동참여 경험의 경우도, 학업성적( $r = 0.13$ ,  $p < .001$ ), 전반적 성숙도( $r = 0.13$ ,  $p < .001$ ),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 ( $r = .05$ ,  $p < .001$ )와 정(+)적 관계를 보여 주었다.

세 번째로, 자율적 행동역량과 그 하위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모든 가능한 관계의 경우의 수에서,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상관계수는 초등학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술한 첫 번째 (개인 활동과 자율적 행동 역량) 및 두 번째의 상관관계 (개인 활동과 자율적 행동역량의 종속변수)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는 세 가지 자율적 행동역량의 종속 변수와 정(+ )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 $r=0.35$ ,  $p<.001$ ), 전반적 성숙도( $r=0.28$ ,  $p<.001$ ),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 $r=0.27$ ,  $p<.001$ )). 목표/과제 수립 실천 역시 세 가지 종속변수와 정(+ )적 상관관계를 보여 주었다 (학업성적( $r=0.28$ ,  $p<.001$ ), 전반적 성숙도( $r=0.25$ ,  $p<.001$ ),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 $r=0.24$ ,  $p<.001$ )). 마지막으로 권익의 한계 이해/요구의 경우 역시 정(+ )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학업성적( $r=0.27$ ,  $p<.001$ ), 전반적 성숙도( $r=0.18$ ,  $p<.001$ ),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 ( $r=0.20$ ,  $p<.001$ )).

### 3) 계층적 회귀분석(HRM: Hierarchical Regression Model)

자율적 행동역량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도를 살펴보기 위해 계층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의 첫 번째 계층으로 사회 인구학적 변인 (성별, 학년, 부 및 모의 학력, 그리고 가정의 경제 수준), 두 번째

계층으로 개인 활동 경험 변인 (30분 이상의 운동 빈도와 책 읽는 시간), 그리고 세 번째 계층으로 학업성적, 전반적 성숙도, 그리고 삶의 만족도를 정하였다. 참고로 중고등학생의 경우, 두 번째 계층으로 30분 이상의 운동 빈도와 책 읽는 시간 이외에 단체 활동 참여 경험, 그리고 자원 봉사 활동 참여 경험의 두 가지 변인이 추가가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계층적 회귀 분석이 해석되었다. 또한 계층적 회귀분석의 종속변수는 각각의 하위역량 즉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 목표/과제 수립 실천, 그리고 권익의 한계 이해/요구였다. 분석순서는 초등학생 그리고 중고등학생의 순이었다.

#### (1) HRM (초등학생, 종속변수: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

초등학생의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를 종속변수로 한 분석 모형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 개의 층위모텔 모두가 통계적 유의미한 값을 보였다 (계층 모형1,  $F = 19.95$ ,  $p < 0.001$ , 계층모형2,  $F = 32.45$ ,  $p < 0.001$ , 계층 모형3,  $F = 66.25$ ,  $p < 0.001$ ). 계층모형 1과 2의 R-square change는 0.06 이었고, 계층모형 2와 3의 R-square change는 0.17 이었다. 최종 모형의 R-square는 0.29로 약 29%의 설명력을 보여 주고 있다.

최종 계층적 회귀분석 모형 (계층 모형 3)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 인구학적 변인 중 성별( $t = 3.01$ ,  $p < 0.01$ ), 학년( $t = 7.26$ ,  $p < 0.001$ ), 그리고 부의 학력( $t = 2.01$ ,  $p < 0.05$ )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 역량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즉, 부의 학력 수준이 높은 고학년 여학생의 경우 높은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의 경향성을 보여 주었다.

둘째, 개인 활동 경험 변인 중 책 읽는 시간( $t = 7.33$ ,  $p < 0.001$ )이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학생이 교과서 이외의 책 읽는 시간이 많을수록,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 역량 역시 높은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학업성적 ( $t = 16.19$ ,  $p < 0.001$ ), 전반적 성숙도 ( $t = 6.24$ ,  $p < 0.001$ ), 그리고 자신에 삶에 대한 만족도 ( $t = 4.95$ ,  $p < 0.01$ )는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 역량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전반적인 성숙도가 높고,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역량 역시 높은 경향성을 보여 주었다.

<표 IV-56> 초등학생의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 설명요인 분석

| Predictor 변수      | 회귀분석<br>계층모형1 | 회귀분석<br>계층모형2 | 회귀분석<br>계층모형3 |
|-------------------|---------------|---------------|---------------|
| 성별                | 0.07**        | 0.07**        | 0.07**        |
| 학년                | 0.12***       | 0.11***       | 0.15***       |
| 부 학력              | 0.15***       | 0.12***       | 0.06*         |
| 모 학력              | 0.01          | 0.10          | -0.01         |
| 가정의 경제적 수준        | 0.10***       | 0.08**        | -0.01         |
| 30분 이상의 운동 빈도     |               | 0.03          | 0.01          |
| 책 읽는 시간           |               | 0.25***       | 0.16***       |
| 학업성적              |               |               | 0.37***       |
| 전반적인 성숙도          |               |               | 0.13***       |
|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     |               |               | 0.11***       |
| R square          | 0.06          | 0.12          | 0.29          |
| Adjusted R square | 0.05          | 0.12          | 0.28          |
| R square change   | 0.06          | 0.12          | 0.17          |

\*  $p < .05$ , \*\*  $p < .01$ , \*\*\*  $p < .001$

## (2) HRM (초등학생, 종속변수: 목표/과제 수립실천하기)

초등학생의 목표/과제 수립 실천을 종속변수로 한 분석 모형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 개의 층위모형 모두가 통계적 유의미한 값을 보였다 (계층 모형1,  $F = 20.13$ ,  $p < 0.001$ , 계층모형2,  $F = 33.36$ ,  $p < 0.001$ , 계층모형3,  $F = 48.31$ ,  $p < 0.001$ ). 계층모형 1과 2의 R-square change는 0.06 이었고, 계층모형 2와 3의 R-square change는 0.11 이었다. 최종 모형의 R-square 는 0.23로 약 23%의 설명력을 보여 주고 있다.

최종 계층적 회귀분석 모형 (계층 모형 3)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 인구학적 변인 중 성별( $t = 4.24$ ,  $p < .001$ )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 ( $t = 2.53$ ,  $p < .05$ )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목표/과제 수립 실천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즉, 초등학생의 경우,

가정의 경제 수준이 높은 여학생이 높은 목표/과제수립 실천의 경향성을 보여 주었다.

<표 IV-57> 초등학생의 목표/과제수립하기 설명요인 분석

| Predictor 변수      | 회귀분석<br>계층모형1 | 회귀분석<br>계층모형2 | 회귀분석<br>계층모형3 |
|-------------------|---------------|---------------|---------------|
| 성별                | 0.08**        | 0.10***       | 0.09***       |
| 학년                | -0.04         | -0.04         | -0.02         |
| 부 학력              | 0.09**        | 0.07*         | 0.03          |
| 모 학력              | 0.03          | 0.03          | 0.01          |
| 가정의 경제적 수준        | 0.17***       | 0.13***       | 0.06*         |
| 30분 이상의 운동 빈도     |               | 0.15***       | 0.13***       |
| 책 읽는 시간           |               | 0.20***       | 0.14***       |
| 학업성적              |               |               | 0.24***       |
| 전반적인 성숙도          |               |               | 0.14***       |
|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     |               |               | 0.14***       |
| R square          | 0.06          | 0.12          | 0.23          |
| Adjusted R square | 0.05          | 0.12          | 0.22          |
| R square change   | 0.06          | 0.06          | 0.11          |

\*  $p < .05$ , \*\*  $p < .01$ , \*\*\*  $p < .001$

둘째, 개인 활동 경험 변인 중 30분 이상의 운동 빈도 ( $t = 5.74, p < .001$ )와 책 읽는 시간 ( $t = 6.08, p < .001$ ) 모두 목표/ 과제수립 실천 역량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학생의 30분 이상의 운동 빈도와 교과서 이외의 책 읽는 시간이 많을수록, 목표/ 과제 수립 실천 역량 역시 높은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학업성적 ( $t = 10.22, p < .001$ ), 전반적 성숙도 ( $t = 6.16, p < .001$ ), 그리고 자신에 삶에 대한 만족도 ( $t = 6.26, p < .001$ )는 목표/ 과제 수립 실천의 핵심역량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전반적인 성숙도가 높고,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목표/ 과제 수립 실천의 역량 역시 높은 경향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3) HRM (초등학생, 종속변수: 권익의 한계 이해/요구하기)

초등학생의 권익의 한계 이해/요구를 종속변수로 한 분석 모형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 개의 층위모형 모두가 통계적 유의미한 값을 보였다 (계층 모형1,  $F = 13.13$ ,  $p < .001$ , 계층모형2,  $F = 21.60$ ,  $p < .001$ , 계층모형3,  $F = 51.33$ ,  $p < .001$ ). 계층모형 1과 2의 R-square change는 0.04 이었고, 계층모형 2와 3의 R-square change는 0.16 이었다. 최종 모형의 R-square는 0.24로 약 24%의 설명력을 보여 주고 있다.

<표 IV-58> 초등학생의 권익의 한계 이해/요구하기 설명요인 분석

| Predictor 변수      | 회귀분석<br>계층모형1 | 회귀분석<br>계층모형2 | 회귀분석<br>계층모형3 |
|-------------------|---------------|---------------|---------------|
| 성별                | 0.07*         | 0.08***       | 0.08***       |
| 학년                | 0.27          | 0.03          | 0.07**        |
| 부 학력              | 0.75*         | 0.06          | 0.01          |
| 모 학력              | 0.04          | 0.04          | 0.03          |
| 가정의 경제적 수준        | 0.12***       | 0.10***       | 0.01          |
| 30분 이상의 운동 빈도     |               | 0.10***       | 0.08***       |
| 책 읽는 시간           |               | 0.18***       | 0.09***       |
| 학업성적              |               |               | 0.37***       |
| 전반적인 성숙도          |               |               | 0.11***       |
|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     |               |               | 0.11***       |
| R square          | 0.04          | 0.08          | 0.24          |
| Adjusted R square | 0.04          | 0.08          | 0.23          |
| R square change   | 0.04          | 0.04          | 0.16          |

\*  $p < .05$ , \*\*  $p < .01$ , \*\*\*  $p < .001$

최종 계층적 회귀분석 모형 (계층 모형 3)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 인구학적 변인 중 성별( $t = 3.69$ ,  $p < .01$ ) 그리고 학년( $t = 3.12$ ,  $p < .01$ )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권익의 한계 이해/요구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즉, 초등학생의 경우, 학년이 높은 여학생이 높은 권익의 한계 이해/요구 역량을 보여주는 경향성을 보여 주었다.

둘째, 개인 활동 경험 변인 중 30분 이상의 운동 빈도( $t = 3.57$ ,  $p < .001$ )

와 책 읽는 시간 ( $t = 4.15, p < .001$ )이 권익의 한계 이해/요구역량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학생의 30분 이상의 운동 빈도와 교과서 이외의 책 읽는 시간이 많을수록, 권익의 한계 이해/요구역량 역시 높은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학업성적 ( $t = 15.35, p < .001$ ), 전반적 성숙도 ( $t = 4.79, p < .001$ ), 그리고 자신에 삶에 대한 만족도 ( $t = 4.89, p < .001$ )는 권익의 한계 이해/요구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전반적인 성숙도가 높고,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권익의 한계 이해/요구 역량 역시 높은 경향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4)HRM (중고등학생, 종속변수: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

중고등학생의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를 종속 변수로 한 분석 모형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 개의 층위모형 모두가 통계적 유의미한 값을 보였다 (계층 모형1,  $F = 37.99, p < .001$ , 계층모형2,  $F = 36.62, p < .001$ , 계층 모형3,  $F = 79.41, p < .001$ ). 계층모형 1과 2의 R-square change는 0.03 이었고, 계층모형 2와 3의 R-square change는 0.12였다. 최종 모형의 R-square는 0.20로 약 20%의 설명력을 보여 주고 있다.

최종 계층적 회귀분석 모형 (계층 모형 3)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 인구학적 변인 중 성별( $t = 3.47, p < .01$ ), 학년 ( $t = 6.24, p < .001$ ), 그리고 부의 학력 ( $t = 3.27, p < .05$ )이 중고등학생의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 역량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학력이 높은 고학년 여학생의 경우 높은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의 경향성을 보여 주었다.

〈표 IV-59〉 중등등학생의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 설명요인 분석

| Predictor 변수      | 회귀분석<br>계층모형1 | 회귀분석<br>계층모형2 | 회귀분석<br>계층모형3 |
|-------------------|---------------|---------------|---------------|
| 성별                | 0.05**        | 0.05**        | 0.05**        |
| 학년                | 0.08***       | 0.09***       | 0.09***       |
| 부 학력              | 0.13***       | 0.12***       | 0.06**        |
| 모 학력              | 0.01          | -0.00         | -0.02         |
| 가정의 경제적 수준        | 0.11***       | 0.10***       | 0.02          |
| 30분 이상의 운동 빈도     |               | -0.03         | -0.04**       |
| 책 읽는 시간           |               | 0.06***       | 0.04**        |
| 단체 활동 참여 경험       |               | 0.11***       | 0.07***       |
| 자원 봉사 참여 경험       |               | 0.09***       | 0.07***       |
| 학업성적              |               |               | 0.28***       |
| 전반적인 성숙도          |               |               | 0.16***       |
|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     |               |               | 0.11***       |
| R square          | 0.05          | 0.08          | 0.20          |
| Adjusted R square | 0.05          | 0.08          | 0.20          |
| R square change   | 0.05          | 0.03          | 0.12          |

\*  $p < .05$ , \*\*  $p < .01$ , \*\*\*  $p < .001$

둘째, 개인 활동 경험 변인 중 책 읽는 시간( $t = 2.61, p < .01$ ), 단체 활동 참여 경험( $t = 4.15, p < .001$ ),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경험 ( $t = 4.07, p < .001$ )은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학생이 교과서 이외의 책 읽는 시간, 단체 활동 및 자원봉사 활동경험이 많을수록,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 역량 역시 높은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30분 이상의 운동 빈도 ( $t = -2.85, p < .01$ )는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에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업성적 ( $t = 17.45, p < .001$ ), 전반적 성숙도 ( $t = 10.58, p < .001$ ),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 ( $t = 7.51, p < .001$ )는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 역량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전반적인 성숙도가 높고,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 역량 역시 높은 경향성을 보여 주었다.

(5) HRM (중고등학생, 종속변수: 목표/과제 수립실천하기)

중고등학생의 목표/과제 수립 실천을 종속변수로 한 분석 모형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 개의 층위모형 모두가 통계적 유의미한 값을 보였다 (계층 모형1,  $F = 25.94$ ,  $p < .001$ , 계층모형2,  $F = 35.78$ ,  $p < .001$ , 계층모형3,  $F = 72.12$ ,  $p < .001$ ). 계층모형 1과 2의 R-square change는 0.05 이었고, 계층모형 2와 3의 R자승 변화량은 0.10 이었다. 최종 모형의 R-square 는 0.18로 약 18%의 설명력을 보여 주고 있다.

최종 계층적 회귀분석 모형 (계층 모형 3)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 인구학적 변인 중 성별( $t = 3.91$ ,  $p < .001$ )과 학년 ( $t = 5.11$ ,  $p < .001$ )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목표/과제수립 실천에 정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즉, 중고등학생의 경우, 고학년의 여학생이 높은 목표/과제수립 실천의 경향성을 보여 주었다.

<표 IV-60> 중고등학생의 목표/과제수립하기 설명요인 분석

| Predictor 변수      | 회귀분석<br>계층모형1 | 회귀분석<br>계층모형2 | 회귀분석<br>계층모형3 |
|-------------------|---------------|---------------|---------------|
| 성별                | 0.03          | 0.06***       | 0.06***       |
| 학년                | 0.06***       | 0.07***       | 0.08***       |
| 부 학력              | 0.09***       | 0.08***       | 0.04          |
| 모 학력              | 0.01          | 0.00          | -0.00         |
| 가정의 경제적 수준        | 0.11***       | 0.09***       | 0.02          |
| 30분 이상의 운동 빈도     |               | 0.10***       | 0.08***       |
| 책 읽는 시간           |               | 0.05**        | 0.04*         |
| 단체 활동 참여 경험       |               | 0.10***       | 0.07***       |
| 자원 봉사 참여 경험       |               | 0.09***       | 0.06***       |
| 학업성적              |               |               | 0.18***       |
| 전반적인 성숙도          |               |               | 0.18***       |
|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     |               |               | 0.19***       |
| R square          | 0.03          | 0.08          | 0.18          |
| Adjusted R square | 0.03          | 0.08          | 0.18          |
| R square change   | 0.03          | 0.05          | 0.10          |

\*  $p < .05$ , \*\*  $p < .01$ , \*\*\*  $p < .001$

둘째, 개인 활동 경험 변인 모두 즉 중 30분 이상의 운동 빈도 ( $t=5.30$ ,  $p < .001$ ), 책 읽는 시간 ( $t = 2.48$ ,  $p < .05$ ), 단체 활동 참여경험 ( $t = 3.88$ ,  $p < .001$ ),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 경험 ( $t = 3.91$ ,  $p < .001$ )은 목표/ 과제 수립 실천 역량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학생의 30분 이상의 운동 빈도가 많고, 책 읽는 시간이 많고, 단체 활동 및 자원봉사 활동 경험이 많을수록 목표/ 과제수립 실천 역량 역시 높은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학업성적 ( $t = 11.15$ ,  $p < .001$ ), 전반적 성숙도 ( $t = 11.73$ ,  $p < .001$ ), 그리고 자신에 삶에 대한 만족도 ( $t = 12.13$ ,  $p < .001$ )는 목표/ 과제 수립 실천 역량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전반적인 성숙도가 높고,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목표/ 과제 수립 실천의 역량 역시 높은 경향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6) HRM (중고등학생, 종속변수: 권익의 한계 이해/요구하기)

중고등학생의 권익의 한계 이해/요구를 종속변수로 한 분석 모형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 개의 층위모형 모두가 통계적 유의미한 값을 보였다 (계층 모형1,  $F = 18.70$ ,  $p < .001$ , 계층모형2,  $F = 22.71$ ,  $p < .001$ , 계층모형3,  $F = 45.37$ ,  $p < .001$ ). 계층모형 1과 2의 R-square change는 0.03 이었고, 계층모형 2와 3의 R-square change는 0.08 이었다. 최종 모형의 R-square는 0.13로 약 13%의 설명력을 보여 주고 있다.

최종 계층적 회귀분석 모형 (계층 모형 3)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 인구학적 변인 중 성별( $t = 4.43$ ,  $p < .001$ ) 그리고 학년 ( $t = 3.07$ ,  $p < .01$ )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권익의 한계 이해/요구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즉, 중고등학생의 경우, 학년이 높은 여학생의 경우 높은 권익의 한계 이해/요구 역량을 보여 주었다.

〈표 IV-61〉 중고등학생의 권익의 한계 이해/요구하기 설명요인 분석

| Predictor 변수      | 회귀분석<br>계층모형1 | 회귀분석<br>계층모형2 | 회귀분석<br>계층모형3 |
|-------------------|---------------|---------------|---------------|
| 성별                | 0.05**        | 0.07***       | 0.07***       |
| 학년                | 0.03*         | 0.04**        | 0.05**        |
| 부 학력              | 0.08***       | 0.06**        | 0.02          |
| 모 학력              | 0.02          | 0.01          | 0.00          |
| 가정의 경제적 수준        | 0.09***       | 0.08***       | 0.01          |
| 30분 이상의 운동 빈도     |               | 0.05**        | 0.04*         |
| 책 읽는 시간           |               | 0.05**        | 0.03*         |
| 단체 활동 참여경험        |               | 0.10***       | 0.07***       |
| 자원 봉사 참여경험        |               | 0.01          | 0.04*         |
| 학업성적              |               | 0.06**        | 0.19***       |
| 전반적인 성숙도          |               |               | 0.13***       |
|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     |               |               | 0.13***       |
| R square          | 0.02          | 0.05          | 0.13          |
| Adjusted R square | 0.02          | 0.05          | 0.12          |
| R square change   | 0.02          | 0.03          | 0.08          |

\*  $p < .05$ , \*\*  $p < .01$ , \*\*\*  $p < .001$

둘째, 개인 활동 경험 변인 중 30분 이상의 운동 빈도( $t = 2.51, p < .05$ ), 책 읽는 시간 ( $t = 2.11, p < .05$ ), 단체 활동 참여 경험 ( $t = 4.15, p < .001$ ), 그리고 자원 봉사 활동 경험 ( $t = 2.11, p < .05$ )은 권익의 한계 이해/요구 역량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중고등 학생의 30분 이상의 운동 빈도가 많고, 책 읽는 시간이 많고, 또한 단체 활동 및 자원봉사 활동경험이 많을수록, 권익의 한계 이해/요구 역량 역시 높은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학업성적 ( $t = 11.42, p < .001$ ), 전반적 성숙도 ( $t = 8.11, p < .001$ ), 그리고 자신에 삶에 대한 만족도 ( $t = 8.06, p < .01$ )는 권익의 한계 이해/요구의 핵심역량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전반적인 성숙도가 높고,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권익의 한계 이해/요구 역량 역시 높은 경향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지금까지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회 인구학적 변인 (성별, 학년, 부모의 학력, 가정의 경제 수준), 개인 활동 변인(30분 이상 운동, 책 읽는 시간, 자원봉사 및 단체 활동 경험), 학교성적, 전반적인 성숙도 그리고 삶의 만족도와 자율적 행동역량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중요한 발견 및 시사점은 아래와 같이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전반적으로 성별과 학년의 차이가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성별과 학년이 초등학생 그리고 중고등학생 모두의 자율적 행동역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즉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 모두에 걸쳐, 학년이 높은 여학생이 높은 자율적 행동 역량을 발달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청소년 발달 시기에 있어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높은 자율적 행동 역량을 발전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전반적으로 보면, 인구학적 변인 중, 부모의 학력이나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모두에게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따라서 중고등학생의 자율적 행동 역량 향상에는 자신이 처해져 있는 상황보다, 개인 활동과 같은 다른 중요한 변인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것은 교육자나 청소년 지도자에게 청소년의 자율적 역량은 가정의 경제적 수준 및 부모의 학력과 같이 변할 수 없는 변인과 달리, 청소년 자신 혹은 사회적 환경의 지원에 의해 향상될 수 있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셋째, 학생의 개인 활동이 자율적 행동역량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 전반적으로 책읽기와 운동하기, 그리고 중고등학생의 경우, 책읽기와 운동하기와 더불어, 단체 활동 참여 및 자원 봉사 활동이 자율적 행동역량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양한 개인 활동이 청소년의 역량 발달에 얼마나 중요한 지를 보여 주는 예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 활동의 중요성을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것과 더불어 다양한 개인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개인 활동은 책읽기와 운동하

기만으로 한정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실제로 초등학생들 역시 중  
고등학생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개인 활동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취미활동).  
그러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다양한 개인 활동 역시 문항에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마지막으로, 초등학생 그리고 중고등학생 모두에게서, 학업 성적,  
전반적 성숙도, 그리고 삶의 만족도가 자율적 행동역량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일수록, 전반적인 성  
숙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삶의 만족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높은 자율적 행동  
역량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흥미롭게도, 학업성적, 전반적 성숙도,  
그리고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자율적 행동역량을 포함한, 인구  
학적 변인, 그리고 개인 활동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계층회귀분석의 결과는  
설명률이 약 10%로 낮았다. 따라서, 학생의 자율적 행동역량 개발을 이해  
하는 데에는 학생의 학업성적과 삶에 대한 태도와 성숙도가 매우 중요한 것  
으로 여겨진다.



## V. 요약 및 결론

1. 요약
2. 결론
3. 제언



## V. 요약 및 결론

### 1. 요약

이 연구에서는 1997년부터 OECD가 추진하여 온 DeSeCo 프로젝트의 결과를 기반으로 개발한 생애핵심역량(Key competencies) 중에서 자율적으로 행동하기 영역의 척도를 사용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자율적 행동역량을 측정하고 관련 변인들에 따른 차이와 관계성을 검증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자율적 행동역량의 사회인구학적 분포

우선 자율적 행동에 있어 성별과 학년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 모두에 걸쳐, 학년이 높은 여학생이 높은 자율적 행동역량을 발달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반적으로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모두에게서 부모의 학력이나,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일관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의 자율적 행동역량에는 자신이 처해져 있는 상황보다, 개인 활동과 같은 변인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자율적 행동역량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생 그리고 중고등학생 모두에게서, 학업 성적, 전반적 성숙도, 그리고 삶의 만족도가 자율적 행동역량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높은 자율적 행동역량을 가진 청소년들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전반적인 성숙도가 높고 삶의 만족도가 높은 청소년들인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변인간의 인과관계는 뚜렷하지 않았다. 높은 자율적 행동역량이 반드시 높은 학업성적, 전반적 성숙도의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오히려 삶에 대한 태도나 성숙도가 높은 자율적 행동역량의 기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생 시기에는 ‘자율적 행동역량의 하위영역 또는 세부영역’과 ‘학교만족도’간에 상관을 보이는 영역이 성별로 다소 다르게 나타났지만, 중학교에서는 성별간에 차이가 없는 편이었고, 고등학생의 경우는 남학생에 비하여 여학생이 대부분의 영역에서 상관이 더 높고 유의미한 영역도 많이 나타났다. 특히 학교에 대한 인식과 자율적 행동역량의 상관은 전반적으로 학교급이 증가하면서 상관계수의 값이 낮아져서 그 관련성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어서 학생들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학교 환경이 학생들의 자율적 행동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3) 자율적 행동역량과 진로 계획 변인간의 관계

자율적 행동역량이 학생들의 진로계획에 미치는 세부 영향을 살펴본 프로빗 회귀분석의 결과, 학교급에 상관없이 ‘목표 및 과제 설정’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결정적인 요소였다. ‘목표 및 과제 설정’영역은 대부분 .5 정도이거나 그 이상의 값으로 정적인 수준에서 b 추정값을 보이고 있어서, 목표 및 과제 설정에 능할수록 진로계획이 명료할 가능성이 높았다.

### 4) 자율적 행동역량과 청소년의 활동간의 관계

청소년기의 다양한 활동경험이 자율적 행동역량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 결과, 전반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 전반적으로 책읽기와 운동하기, 그리고 중고등학생의 경우, 책읽기와 운동하기와 더불어, 단체 활동 참여 및 자원 봉사 활동이 자율적 행동역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의 총괄보고서에 기술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참가청소년과 일반청소년들의 비교 결과와 함평고등학교의 역량개발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전사후 검증결과도 활동경험이 자율적 행동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개인 활동의 중요성을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것과 더불어 다양한 개인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 2. 결론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자율적 행동 역량 현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핵심역량이 우리나라 청소년 개인과 사회의 발전 및 성장의 키워드가 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었다.

DeSeCo는 생애핵심역량을 ① 도구를 상호적으로 사용하기, ② 이질적 집단과 상호작용하기, ③ 자율적으로 행동하기 등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핵심역량(Key competency)은 사회와 개인에게 유용한 결과물을 산출하고, 다양한 상황과 맥락에서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전문가 뿐 아니라 모든 개인에게 요구되는 능력이다. 간단히 말해서 핵심역량이란 한 개인이 유능하고 건강한 시민으로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특기할 점은, 유전적인 요소가 강조되는 다중지능(multiple intelligence) 개념과는 달리 핵심역량은 교육과 개발이 가능한 개념이라는 점이다. DeSeCo 등에서 핵심역량을 제안하고 이를 받아들여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핵심역량 기반 교육을 추진하는 데에는 바로 이와 같은 근거가 존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DeSeCo에서 제시한 자율적 행동을 ‘내가 속해 있는 환경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나 자신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나의 권리와 욕구의 한계를 인지하면서 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주장하여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역량’으로 보고 이를 측정하고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를 확인해보고자 했다.

그 결과, 청소년의 자율적 행동은 가치와 정체성을 개발하고, 모든 결정과 선택에서 자율을 상대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행동하면서도 동시에 주어진 상황과 맥락 속에서 책임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특히 요구되는 역량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학교급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자율적 행동역량은 학교생활과 상관이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

능하다. 하나는 우리나라의 학교생활이 학생들의 자율적 행동역량을 길러주는 데 미진한 환경이라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의 학교 환경은 통제가 강하여 학생들의 자율적 행동역량을 크게 드러내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점이다. 이 두 가지는 사실 해석의 방향만 다를 뿐 궁극적으로 같은 이야기이다. 이러한 환경의 이면에는 주지주의적 교육을 강조하는 입시교육 중심의 학교생활이 자리 잡고 있다.

### 3. 제언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청소년활동경험이 많을수록 자율적 행동역량은 뚜렷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괄보고서에 기술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참가청소년과 일반청소년들의 비교 결과와 함평고등학교의 역량개발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전사후 검증결과도 활동경험이 자율적 행동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따라서 개인 활동의 중요성을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것과 더불어 다양한 개인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개인 활동은 책읽기와 운동하기만으로 한정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실제로 초등학생들 역시 중고등학생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개인 활동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취미활동). 그러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다양한 개인 활동 역시 문항에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교육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자율적 행동역량은 청소년들의 심리적 성숙도, 적응, 진로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생활에서는 그만큼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는 자율적 행동역량이 학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능력이라는 뜻이라기 보다는,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환경이 자율적 행동역량을 촉진하거나 필요로 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본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에서 청소년들은 핵심역량을 키우는 것이 아닌 다른 활동에 매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공부 이외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은 학생 개인에게는 손해다.”라고 인식하는 사회 환경에서, 학생들은 오로지 좋은 학업성적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입해야 하는 ‘학생으로서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바로 이러한 환경 안에서 살아가는 청소년들에 자율적 행동역량은 무의미할 수도 있다. 자율적 행동이란 스스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거시적인 맥락의 세계 질서를 이해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과업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고, 자신의 관심과 흥미를 고려하고 자신의 권리를 고려하며 자신의 주장을 하는 능력인데, 학교는 그보다는 꾸준한 반복훈련을 통한 시험문제 풀이 능력을 요구할 수 있다. 바로 이런 것이 학생들의 자율적 행동역량과 학교생활의 다양한 하위영역간의 상관성이 전반적으로 낮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자율적 행동역량과 학교생활과의 다양한 하위 부분에서 상관성이 더 낮아지는 이유일 것이다.

그럼에도 청소년들의 자율적 행동역량이 자신의 진로계획과 학업성적에 어느 정도 정적인 상관을 보이는 점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읽어낼 수 있다. 또한 이점은 청소년들의 자율적 행동역량을 강조하고 길러주어야 할 이유가 되기도 한다. 학생들의 학교 수업시간 흥미 정도가 자율적 행동역량과 정적으로 상관이 높았음을 고려할 때, 학교에서는 다양한 학습방법을 고려하여 흥미로운 수업이 이루어지는 교실 분위기를 만들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계적으로 상호 영향력이 약하기는 했지만 상관성이 어느 정도는 있다는 점에서, 좋은 학업 분위기를 만들려는 노력과 교직의 엄격성을 줄이고 학생들의 의견 반영을 높이는 학교를 만들려는 노력도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자율적 행동과 관련한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측정도구의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를 해석할 때 핵심역량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간단한 지필검사로 정확히 측정될 수 없는 개념이라는 근본적인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측정도구는 더 보완될 필요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 연구에서 자율적 행동 측정도구는 대규모 조사를 감안하

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는 데 보다 초점을 두었으므로 선택형 문항 즉, 정·오답형 문항과 행동 여부와 태도에 대한 정도(리커트 척도 사용)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자율적 행동 역량에 대한 논의가 보다 심도 깊게 진행됨에 따라 측정방법을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패턴 이해 능력이나 다른 하위 척도들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향상시키고, 사전·사후검사를 위해서 동질적인 문항의 풀(pool)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핵심역량에 관련된 국제비교 조사들의 문항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추가·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3차 년도에는 IEA나 World Bank 등에서 실시하는 국제시민의식검사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향후 자율적 행동의 세 가지 하위요소와 각 하위요소의 행동준거들 간의 관계에 대한 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 참 고 문 헌

- 김기현(2008).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영역체계와 하위요소를 중심으로. 미래를 여는청소년학회 2008 춘계학술대회자료집.
- 김계수(1998). Amos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서울: SPSS아카데미.
- 김미숙·김현수·박종성·박윤희(1998). 기술분야 기초직업능력 인증제도 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안나 외(2003). 국가수준 생애능력 표준설정 및 학습체제 질관리 연구(II).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진모(2001). 기업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 직업 교육 연구, Vol.20 No.2, pp. 109-128.
- 김태준·김남희·김주섭·정지선(2002). 학습사회에서 성인의 생애능력설정 및 성인 학습체제 질 관리 현황과 과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태준·김안나·김남희·이병준·한준(2003). 사회적 자본 형성의 관점에서 본 시민 의식 측정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흥원(1995). 새 학력관과 교수-학습 방법의 방향. 전라북도교육연구원. 연구월보 258('95.12) pp.67-72.
- 나승일 외(2004). 기초직업능력 표준개발(2차년도).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산업 인력공단.
- 나승일·강인수·정철영·허종렬·마상진·김강호(2002). 선진국의 직업교육법제 동향과 시사점. 직업 교육 연구, Vol.22 No.3, pp. 177-200.
- 나승일·김주섭·김주일·정연양·구자길·김강호·문세연(2007). 국가직업능력표준 실용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Vol.39 No.1 [2007], pp. 191-215.
- 노동부(2000). 중·고등학생용 청소년 직업 흥미 검사.
- 소경희(2006). 학교지식의 변화요구에 따른 대안적 교육과정 설계방향 탐색. 교육과정 연구, 24(3), 39-59.
- 소경희(2007). 학교교육 맥락에서 본 '역량(competency)'의 의미와 교육과정적 함의. 교육과정연구, 25(3), pp. 1-21.
- 신명훈·이동임·김상진·김덕기·이현수·김광용·정일용(1999). 직업능력인증제 도입을 위한 외국의 운영실태 분석.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양미경(1997). 교과 통합지도의 의의 및 방법적 원리 탐색. 교육학연구, Vol.35 No.4, pp. 111-132.

- 유현숙·김안나·김태준·김남희·이만희·장수명(2002). 국가수준 생애능력 표준 설정 및 학습체제 질관리 연구(I).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유현숙·김태준·이석재·송선영(2004). 국가수준 생애능력 표준설정 및 학습체제 질관리 연구(III).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윤명희·김진화(2007). 청소년의 생활역량 진단척도 개발과 프로그램 설계를 통한 효과분석. 서울: 한국학술진흥재단.
- 윤명희·김진화(2008). 청소년의 생활역량 진단척도 개발과 프로그램 설계를 통한 효과분석. 한국청소년연구, 제49호, pp. 173~197.
- 이동임 외(2000). 직업능력인증제 운영방안.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미경·박선화·손원숙·남민우(2006). 2006년도 OECD 학업성취도 국제비교 연구 (PISA): PISA 2006 본검사 시행.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석재 외(2003). 생애능력 측정도구 개발연구: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용환·이무근·나승일·정철영·이종성·정태화·배진한·최애경(1997). 직업능력 인증제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 직업 교육 연구, Vol.16 No.2,
- 임언·최동선·최지희·오은진(2004). 성인의 직업기초능력 조사 연구: OECD ALL 조사 절차 및 자료 처리 지침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임언·최동선·오은진(2005). 성인의 직업기초능력 실태: OECD ALL Project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임언·최동선·오은진(2005). 한국의 성인직업기초능력.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정철영·나승일·서우석·송병국·이종성(1998). 직업기초능력의 연역 분류 및 하위 요소 추출. 17(2), pp.15-38.
- 정철영·나승일·서우석·송병국·이종성(1998). 직업기초 능력에 관한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 분석.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조용래(2004). 한국판 불안민감성 지표의 요인구조: 위계적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23(1): pp. 207~20.
- 진미석·이수영·채창균·유한구·박천수·이성·최동선·옥준필(2007). 대학생 직업 기초능력 선정 및 문항개발 연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최선미(2001). 장기실업노동자의 사회적 배제 극복을 위한 임파워먼트 모델개발. 부산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국고용정보원(2000). 청소년 직업 흥미 검사.
- 한승희 외(2004). 교육학의 새로운 지표로서 내러티브. 교육학연구 38(4) 259-282.

- Assessment and Qualifications Alliance(2000). Key Skills.
- Bandura, Albert(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Englewood Cliffs : Prentice-Hall.
-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2005). Proposal for a Recommend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Key Competencies for Lifelong Learning.
- EURYDICE(2002). Key Competencies.
- Gerten, Annette.(2000). Guidelines for Intervention with Children and Adolescents Diagnosed with Conduct Disorder. Social Works in Education, pp.132-144.
- Gilomen, Heinz(2003). Desired outcomes: A successful life and a well-functioning society: Meeting important challenges in life: Key Competencies, Key Competencies for a Successful Life and a Well-Function Society. Cambridge: Hogrefe & Huber Publishers.
- Guglielmino, L. M.(1977). Development of the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Georgia.
- Knowles, M. S.(1975). Self-directed learning: A guide for learner and teacher. NY: Association Press.
- Mahoney, M. J. and Thoresen, C. E.(1974). Self-control: Power to the person. CA: Books/Cole.
- McClelland, D. C.(1973). Testing for competency rather than for "intelligence", American Psychologist, 28(1), 1-14
- McLagan, P.(1980). Models for HRD Practice, Alexandria, VA: The American Society for Training and Development.
- Mirable, R. J.(1997). Everything you wanted to know about competency modeling Training and Development, 51(8), 73-77.
- Mulder, Martin(2007). Competence - the essence and use of the concept in ICVT. Journal of Vocational Training, issue 40, pp. 5-21.
- Murray, T. Scott(2003). Reflection on international Competence assessments: Meeting important challenges in life: Key Competencies, Key Competencies for a Successful Life and a Well-Function Society. Cambridge: Hogrefe & Huber Publishers.
- OECD(2001). 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es(DeSeCo).
- \_\_\_\_\_(2001). DeSeCo Country Contribution Process(CCP).
- \_\_\_\_\_(2005a). 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 \_\_\_\_\_(2005b) Learning a Living: First Result of the Adult Literacy and Life Skills Survey.

- \_\_\_\_\_(2007). Assessing Scientific Reading and Mathematical Literacy. A Framework for PISA 2006.
- Parry, S. B.(1996). The quest for competencies: Competency studies can help you make HR decision, but the results are only as good as the study. *Training*, 33(7), 48-56
- Perrenoud, D. and Gogniat, T. and Olmstead, W(2001). *DERMATOLOGIE IN BERUF UND UMWELT*, Vol.49 No.1, pp. 88-90.
- Rychen, Dominique Simon and Slganik, Laura Hersh(2001). *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Cambridge: Hogrefe & Huber Publishers.
- \_\_\_\_\_(2002). DeSeCo Symposium: Discussion Paper. OECD.
- Rychen, Dominique Simon(2002). *Key Competencies for the knowledge Society*, DeSeCo Symposium: Discussion Paper. OECD.
- \_\_\_\_\_(2002). *Key Competencies for the Knowledge Society. Life long Learning and the Knowledge Economy*, Conference in Stuttgart, October 10-11.
- \_\_\_\_\_(2003). An overarching frame of reference for key competencies - is the OECD Perspective relevant for the South?: Working Group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Skills Development. 28-29 April 03.
- \_\_\_\_\_(2003). *Key competencies: Meeting important challenges in life: Key Competencies, Key Competencies for a Successful Life and a Well-Functiong Society*. Cambridge: Hogrefe & Huber Publishers.
- \_\_\_\_\_(2004). An overarching conceptual framework for assessing key competences in an international context: Lesson from an interdisciplinary and policy-oriented approach. Luxembourg: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pp. 315-328.
- Rychen, Dominique Simon and Slganik, Laura Hersh(2003). *A holistic model of competence: Key Competencies, Key Competencies for a Successful Life and a Well-Functiong Society*. Cambridge: Hogrefe & Huber Publishers.
- \_\_\_\_\_(2003). *Highlights from the OECD Project Definition and Selection Competencies: Theoretical and Conceptual Foundations (DeSeCo)*.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in Chicago.
- \_\_\_\_\_(2003). *Key Competencies for a*

- Successful Life and a Well-Functioning Society. Cambridge: Hogrefe & Huber Publishers.
- Schleicher, Andreas(2003). Developing a long-term strategy for international assessments: Meeting important challenges in life: Key Competencies, Key Competencies for a Successful Life and a Well-Functioning Society. Cambridge: Hogrefe & Huber Publishers.
- Schunk, Dale H. and Zimmerman, Barry J(1989). Self-regulated learning and academic achievement :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New York : Springer.
- Sink, C. A. et al.(1991). Self-regulated learning and academic performance in middle school children,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ED 334270).
- Spencer, L. and Spencer, S.(1993). Competence at work: Models for superior performance,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Inc.
- Siganik, Laura Hersch and Maria, Steephens(2003). Competence priorities in policy and practice: Key Competencies, Key Competencies for a Successful Life and a Well-Functioning Society. Cambridge: Hogrefe & Huber Publishers.
- Trier, Uri Peter(2001). 12 Countries Contributing to DeSeCo - A Summary Report. OECD.
- Wood, R. and Payne, T.(1998). Competency Based Recruitment and selection, A practical Guide. NY: John Wiley.
- Zimmerman, B. J.(1989). Model of self-regulated learning and academic achievement. In B. J. Zimmerman, and D. H. Schunk(eds). Self regulated learning and academic achievement: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pp.1-25. New York: Springer-Verlag.



## 부 록

1. 청소년기 핵심역량 진단조사(초등용)
2. 청소년기 핵심역량 진단조사(중등용)





## 1. 청소년기 핵심역량 진단조사(초등용)



이 설문에서 얻어진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  
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  
도록 통계법(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ID  -  -  -

### 청소년기 핵심역량 진단 조사 ( 초등용 )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아동·청소년관련 각종 조사 연구와 정책개발 업무를 담당·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위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핵심역량 수준을 진단하고 이후 역량기반 학습체계 추진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입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응답해 주신 조사내용을 선생님이나 학교에서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유롭고 성의 있는 의견은 여러분을 위한 실질적인 아동·청소년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본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 6.

|                                               |                                                 |
|-----------------------------------------------|-------------------------------------------------|
| 조사주관기관: 국무총리산하<br>담당연구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br>김기현 박사 | 실사진행기관: (주)메트릭스코퍼레이션<br>조 사 문 의 처: 02-2017-1811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7-715) 서울특별시 서초구 테봉로 114  
<http://www.nyp.re.kr>

1. 다음은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번호에 √표 해 주세요.

1. 성별은? \_\_\_\_\_ ① 남자 \_\_\_\_\_ ② 여자

2.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표시하여 주세요.

※ 같이 살고 있지 않지만, 다른 지방의 직장·학교에 다니는 등의 이유로 같이 살지 않는 가족은 포함(단,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지 않은 형제자매는 제외).

1) (외)할아버지      2) (외)할머니      3) 아버지      4) 어머니  
5) 형제 또는 자매      6) 기타 친척      7) 기타 \_\_\_\_\_      8) 없음

3. 형제자매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_\_\_\_\_ 남 \_\_\_\_\_ 녀 중 \_\_\_\_\_ 짝      (예) 1 남 1 녀 중 첫 짝)

4.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세요.

(단, 중퇴도 졸업으로 간주함)

|         | 학 교<br>안다님 | 초등학교<br>졸업 | 중 학 교<br>졸업 | 고등학교<br>졸업 | 2-3년제<br>대학 졸업 | 4년제<br>대학교 졸업 | 대학원 졸업<br>(석사·박사) |
|---------|------------|------------|-------------|------------|----------------|---------------|-------------------|
| (1) 아버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2) 어머니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5. 부모님께서 현재 직업을 갖고 계신가요?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세요.

| 구분      | 현재 직업을 갖고 있는지 여부 |    |
|---------|------------------|----|
|         | 없음               | 있음 |
| (1) 아버지 | ①                | ②  |
| (2) 어머니 | ①                | ②  |

6. 가정형편(경제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나요?

| 매우 못 산다      <----- 보통 수준 ----->      매우 잘 산다 |   |   |   |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7.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어디인가요?

( )시/도 ( )시/군/구 ( )구 ( )동/읍/면

※ 살고 있는 곳이 서울시 서초구라면 (서울)시/도 (서초)시/군/구 (우면)동/읍/면 으로 표기

※ 살고 있는 곳이 충청남도 아산시라면 (충청남)시/도 (아산)시/군/구 (배방)동/읍/면 으로 표기

8. 반에서의 학업성적(2009년 1학기)은 대략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나요?

※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세요.

※ **영어를 배우지 않았다면 '배우지 않음'에** ○표 해 주세요.

| 성 적      | 매우 못하는 수준 | 못하는 수준 | 중간 | 잘하는 수준 | 매우 잘하는 수준 | 배우지 않음 |
|----------|-----------|--------|----|--------|-----------|--------|
| (1) 국 어  | ①         | ②      | ③  | ④      | ⑤         |        |
| (2) 영 어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3) 수 학  | ①         | ②      | ③  | ④      | ⑤         |        |
| (4) 사회영역 | ①         | ②      | ③  | ④      | ⑤         |        |
| (5) 과학영역 | ①         | ②      | ③  | ④      | ⑤         |        |

9. 지금 집에는 다음과 같은 물건(장소)들이 얼마나 있나요?

9-1) 자동차

\_\_\_ ① 없음      \_\_\_ ② 1대      \_\_\_ ③ 2대      \_\_\_ ④ 3대 이상

9-2) 자기방 (혼자사용)

\_\_\_ ① 예      \_\_\_ ② 아니오

9-3) 책(잡지·신문·만화·교과서·참고서 등은 제외)

\_\_\_ ① 0~10권      \_\_\_ ② 11~25권      \_\_\_ ③ 26~100권  
\_\_\_ ④ 101~200권      \_\_\_ ⑤ 201~500권      \_\_\_ ⑥ 501권 이상

10. 다음과 같은 활동을 부모님과 함께 얼마나 자주 하나요?

| 구분                    | 거의 하지 않는다 | 일주일에 1-2회 | 일주일에 3-4회 | 일주일에 5-6회 | 매일 |
|-----------------------|-----------|-----------|-----------|-----------|----|
| (1) 나의 고민에 관한 대화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책, TV, 영화에 대한 대화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정치, 사회적 주제에 관한 대화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함께 여가 활동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함께 저녁식사           | ①         | ②         | ③         | ④         | ⑤  |

11. 현재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_\_\_ ① 매우 나쁘다      \_\_\_ ② 나쁘다      \_\_\_ ③ 보통이다  
\_\_\_ ④ 좋다      \_\_\_ ⑤ 매우 좋다      \_\_\_ ⑥ 모르겠다

12. 학교 체육 수업시간 외에 30분 이상 지속하는 운동은 일주일에 얼마나 하나요?

- \_\_\_\_\_ ① 거의 하지 않는다      \_\_\_\_\_ ② 일주일에 1~2회      \_\_\_\_\_ ③ 일주일에 3~4회  
\_\_\_\_\_ ④ 일주일에 5~6회      \_\_\_\_\_ ⑤ 매일

13. 매일 교과서나 참고서를 제외한 책을 읽는데 사용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 \_\_\_\_\_ ① 전혀 없다      \_\_\_\_\_ ② 30분 이내      \_\_\_\_\_ ③ 30분~1시간  
\_\_\_\_\_ ④ 1시간~2시간      \_\_\_\_\_ ⑤ 2시간 이상

**I. 다음은 학교 생활에 관한 결론입니다. 해당 번호에 √표 해 주세요.**

14.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생활에 어느정도 만족하고 있나요?

- \_\_\_\_\_ ① 매우 불만족스럽다      \_\_\_\_\_ ② 불만족스럽다      \_\_\_\_\_ ③ 보통이다  
\_\_\_\_\_ ④ 만족스럽다      \_\_\_\_\_ ⑤ 매우 만족스럽다

15. 다음은 학교를 다니면서 받는 느낌에 대한 결론입니다. 각 문항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 문항                        | 전<br>그렇지<br>않다 | 혀<br>그렇지<br>않다 | 그렇지<br>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br>우<br>그렇다 |
|---------------------------|----------------|----------------|-----------|------|-----|---------------|
| (1) 수업시간이 재미있다.           | ①              |                | ②         | ③    | ④   | ⑤             |
| (2) 우리들의 의견이 잘 반영된다.      | ①              |                | ②         | ③    | ④   | ⑤             |
| (3) 다른 학교로 전학가고 싶다.       | ①              |                | ②         | ③    | ④   | ⑤             |
| (4) 우리 학교는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다. | ①              |                | ②         | ③    | ④   | ⑤             |
| (5) 우리 학교는 교칙이 엄격하다.      | ①              |                | ②         | ③    | ④   | ⑤             |

16. 학교생활 중 최근 1년간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얼마나 했나요?

| 구분                            | 없었다 | 한 두 번 | 서너 번 | 다섯 번<br>이 상 |
|-------------------------------|-----|-------|------|-------------|
| (1) 휴학 경험                     | ①   | ②     | ③    | ④           |
| (2) 지각 경험                     | ①   | ②     | ③    | ④           |
| (3) 무단결석 경험                   | ①   | ②     | ③    | ④           |
| (4) (교내·외) 사회봉사 혹은 동교정지 등의 징계 | ①   | ②     | ③    | ④           |

17. 장래 얻고자 하는 구체적인 직업(장업포함)을 정해 놓았나요?

- \_\_\_\_\_ ① 아직 정해 놓은 직업이 없다  
 \_\_\_\_\_ ②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대략 생각해 놓은 직업이 있다  
 \_\_\_\_\_ ③ 구체적으로 확정해 놓은 직업이 있다

**Ⅲ. 다음은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 번호에 √표 해 주세요.**

18.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본인의 태도가 어떻다고 생각하나요? 각 문항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 문항                                                    | 전<br>그렇지<br>않 | 혀<br>그렇지<br>다 | 보통<br>이다 | 그렇<br>다 | 매<br>우<br>그렇<br>다 |
|-------------------------------------------------------|---------------|---------------|----------|---------|-------------------|
| (1) 나는 대화를 나눌 때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는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나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며 말을 들으려고 노력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나는 상대방의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정확하게 알기 위해 질문을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나는 내가 관심있게 듣고 있다는 것을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나는 상대방이 말할 때 눈을 맞추거나 상대방을 바라본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나는 상대방의 말을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들으며 말 몇 마디로 상대방을 평가하지 않는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나는 상대방의 몸짓이나 표정을 관찰하며 듣는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9.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이민 오는 것을 얼마나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각 문항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 문항                                     | 절대<br>안된다 | 아<br>주<br>약간만 | 어<br>느<br>정도 | 가능<br>한<br>한<br>이 | 모르<br>겠다 |
|----------------------------------------|-----------|---------------|--------------|-------------------|----------|
| (1) 외국에 있는 우리민족 후손들<br>(예: 고려인, 조선족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우리민족이 아닌 외국인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                        | ①         | ②             | ③            | ④                 | ⑤        |

20.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각 문항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주세요.

| 문항                                              | 전<br>그<br>렇<br>지<br>않 | 그<br>렇<br>지<br>않 | 보<br>통<br>이<br>다 | 그<br>렇<br>다 | 매<br>우<br>그<br>렇<br>다 |
|-------------------------------------------------|-----------------------|------------------|------------------|-------------|-----------------------|
| (1) 나는 문제가 생기면 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본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내가 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21. 친척과 얼마나 자주 만나 이야기를 하나요?

- \_\_\_\_\_ ① 전혀 만나지 않는다                      \_\_\_\_\_ ② 한달에 한번이 안된다  
 \_\_\_\_\_ ③ 한달에 한번 정도                      \_\_\_\_\_ ④ 한달에 여러 번  
 \_\_\_\_\_ ⑤ 일주일에 한번 정도                      \_\_\_\_\_ ⑥ 일주일에 여러 번  
 \_\_\_\_\_ ⑦ 매일                      \_\_\_\_\_ ⑧ 모르겠다

22.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회만 있으면 당신을 이용하려 한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정당하게 대우해 준다고 생각하나요?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주세요.

|                                 |         |   |   |   |   |   |   |   |   |   |                            |                                  |    |
|---------------------------------|---------|---|---|---|---|---|---|---|---|---|----------------------------|----------------------------------|----|
| 사람들은<br>기회만<br>있으면 나를<br>이용하려한다 | ◀-----▶ |   |   |   |   |   |   |   |   |   | 사람들은<br>정당하게<br>나를<br>대우한다 | 모르겠다<br><input type="checkbox"/> |    |
|                                 |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 10 |
|                                 |         |   |   |   |   |   |   |   |   |   |                            |                                  |    |

23. 정치에 얼마나 관심이 있나요?

- \_\_\_\_\_ ① 전혀 관심없다                      \_\_\_\_\_ ② 거의 관심없다                      \_\_\_\_\_ ③ 약간 관심있다  
 \_\_\_\_\_ ④ 매우 관심있다                      \_\_\_\_\_ ⑤ 모르겠다

24. 자신의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나요?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주세요.

|                |         |   |   |   |   |   |   |   |   |   |                |                                  |    |
|----------------|---------|---|---|---|---|---|---|---|---|---|----------------|----------------------------------|----|
| 매<br>우<br>불만이다 | ◀-----▶ |   |   |   |   |   |   |   |   |   | 매<br>우<br>만족한다 | 모르겠다<br><input type="checkbox"/> |    |
|                |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 10 |
|                |         |   |   |   |   |   |   |   |   |   |                |                                  |    |

25.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한가요?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주세요.

|                |         |   |   |   |   |   |   |   |   |   |                |                                  |    |
|----------------|---------|---|---|---|---|---|---|---|---|---|----------------|----------------------------------|----|
| 매<br>우<br>불행하다 | ◀-----▶ |   |   |   |   |   |   |   |   |   | 매<br>우<br>행복하다 | 모르겠다<br><input type="checkbox"/> |    |
|                |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 10 |
|                |         |   |   |   |   |   |   |   |   |   |                |                                  |    |

IV. 다음은 정보통신기술 이용 및 검색에 관한 결론입니다. 해당 번호에 √표 해주세요.

26. 평소 다음의 목적으로 얼마나 자주 컴퓨터를 사용하나요?

| 구분                                      | 전혀<br>사용안함 | 한 달에<br>1회 이상 | 일주일에<br>1회 이상 | 하루에<br>1회 이상 |
|-----------------------------------------|------------|---------------|---------------|--------------|
| (1) 한글프로그램(한글 등)을 이용한 문서 작성 및 편집        | ①          | ②             | ③             | ④            |
| (2) 엑셀 등을 이용한 계산표 작성                    | ①          | ②             | ③             | ④            |
| (3) 파워포인트, 포토샵 등을 이용한 그림자료 및 발표용 자료의 작성 | ①          | ②             | ③             | ④            |
| (4) 컴퓨터 언어로 프로그램 만들기                    | ①          | ②             | ③             | ④            |
| (5) 나의 일정 및 스케줄 관리하기                    | ①          | ②             | ③             | ④            |
| (6) CD나 DVD를 시청하거나 정보 얻기                | ①          | ②             | ③             | ④            |
| (7) 컴퓨터 게임하기(인터넷 게임은 제외)                | ①          | ②             | ③             | ④            |

27. 평소 다음의 목적으로 한 달에 얼마나 자주 인터넷을 사용하나요?

| 구분                                                    | 전혀<br>사용안함 | 한 달에<br>1회 이상 | 일주일<br>1회 이상 | 하루에<br>1회 이상 |
|-------------------------------------------------------|------------|---------------|--------------|--------------|
| (1) 친구, 선생님 등과 전자우편(이메일) 주고 받기                        | ①          | ②             | ③            | ④            |
| (2) 채팅, 메신저, 게시판 및 댓글 작성, 또는 온라인 토론에 참여(학급게시판 참여 포함)  | ①          | ②             | ③            | ④            |
| (3)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사거나 관련정보 검색                           | ①          | ②             | ③            | ④            |
| (4) 인터넷 학습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참여                              | ①          | ②             | ③            | ④            |
| (5) 음악(노래) 듣기 또는 다운로드 (인터넷을 통한 라디오 듣기 포함)             | ①          | ②             | ③            | ④            |
| (6) 인터넷 게임(게임 관련 자료 다운로드 포함)                          | ①          | ②             | ③            | ④            |
| (7) 영화, 동영상 보기 또는 다운로드 (인터넷을 통한 TV 시청 포함)             | ①          | ②             | ③            | ④            |
| (8) 신문, 잡지, 전자책(e-book) 읽기 또는 다운로드                    | ①          | ②             | ③            | ④            |
| (9) 숙제 및 학교 수업을 위한 인터넷 정보 검색                          | ①          | ②             | ③            | ④            |
| (10) 인터넷을 통한 일반적인 정보 검색<br>(학습 및 과제 수행을 위한 정보 검색은 제외) | ①          | ②             | ③            | ④            |
| (11) 동호회활동(카페·커뮤니티 포함)                                | ①          | ②             | ③            | ④            |
| (12) 개인 홈페이지, 블로그, 미니홈피 운영                            | ①          | ②             | ③            | ④            |
| (13)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또는 업그레이드                              | ①          | ②             | ③            | ④            |

28.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에 관한 각 문항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주세요.

| 구분                                          | 전혀<br>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
| (1) 나는 컴퓨터(또는 인터넷) 사용 및 활용 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2) 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쉽게 설치하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3) 컴퓨터와 인터넷은 내가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①            | ②      | ③   | ④         |
| (4) 컴퓨터와 인터넷은 유익한 정보를 쉽게 얻도록 도와준다.          | ①            | ②      | ③   | ④         |
| (5) 컴퓨터나 인터넷을 통해 학습능력이나 재능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된다.   | ①            | ②      | ③   | ④         |
| (6) 컴퓨터와 인터넷은 다른 사람과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①            | ②      | ③   | ④         |
| (7) 컴퓨터와 인터넷은 나의 미래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준다.       | ①            | ②      | ③   | ④         |



**V. 아래의 결문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29. 다음은 우리나라의 사회 변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 |             |               |                |            |
|-------------|---------------|----------------|------------|
| 1) 노인인구     | _____ 증가하고 있다 | _____ 감소하고 있다  | _____ 모르겠다 |
| 2) 출산율      | _____ 증가하고 있다 | _____ 감소하고 있다  | _____ 모르겠다 |
| 3) 평균수명     | _____ 길어지고 있다 | _____ 짧아지고 있다  | _____ 모르겠다 |
| 4) 학생수      | _____ 늘어나고 있다 | _____ 줄어든다고 있다 | _____ 모르겠다 |
| 5) 결혼연령     | _____ 늦어지고 있다 | _____ 빨라지고 있다  | _____ 모르겠다 |
| 6) 여성의 경제활동 | _____ 증가하고 있다 | _____ 감소하고 있다  | _____ 모르겠다 |
| 7) 다문화가정    | _____ 증가하고 있다 | _____ 감소하고 있다  | _____ 모르겠다 |

30. 다음은 우리나라의 인구변화가 가져올 여러 가지 결과 중의 하나입니다. 아래 빈칸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이를 적게 낳는다 ➡ ? ➡ 내가 내는 세금이 늘어난다

- |                      |                    |
|----------------------|--------------------|
| _____ ① 가정의 지출이 줄어든다 | _____ ② 학생들이 줄어든다  |
| _____ ③ 일할 사람이 줄어든다  | _____ ④ 아동인구가 줄어든다 |

**VI. 아래의 결문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31. 아래에 제시된 항목들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 문항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나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우리 사회의 관습에 대해 알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나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나는 우리 사회의 도덕적인 기준에 대하여 알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나는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나는 문제가 생겼을 때 몇 가지 다른 방법들을 비교한 후 행동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나는 앞날을 내다보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나는 미래를 생각하고 계획을 수정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8) 나는 행동을 할 때 현재보다는 미래에 도움이 되도록 행동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9) 나는 내 행동으로 인해 나타날 결과를 미리 생각해 본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0) 나는 내 행동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나쁜 결과도 생각해 본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1) 나는 내 행동이 남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2) 나는 뜻하지 않은 일로 오해를 살 때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32.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소리를 어느 정도 듣는지 각 문항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 문항                              | 매우 드물게 | 드물게 | 보통 | 자주 | 매우 자주 |
|---------------------------------|--------|-----|----|----|-------|
| (1) 나는 친구들로부터 어른스럽다는 소리를 듣는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나는 선생님으로부터 믿음직스럽다는 소리를 듣는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결이 없다는 소리를 듣는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33. 아래에 제시된 행동들을 어느 정도 하는지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 문항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나는 지금 이루고자 하는 삶의 목표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도움이 되는 자원(정보)을 활용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나는 목표를 세우기 전에 그 목표와 관련된 정보를 모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나는 할 일을 스스로 계획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나는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나는 아무리 어려워도 해야 할 일은 끝까지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8) 나는 무슨 일이든 내 일은 혼자 힘으로 해낸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9) 나는 오랫동안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편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0) 나는 계획한 일이 잘되었는지를 스스로 평가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1) 나는 내가 한 일의 결과가 내가 원하던 것인지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2) 나는 내가 한 일의 결과를 평가해보고 다음 할 일을 계획할 때 고려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34. 아래에 제시된 항목들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 문항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나는 내가 싫어하는 것(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나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나는 이 세상에는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일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나는 주장을 하기 전에 들어가는 상황과 흐름을 먼저 이해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나는 나의 당연한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8) 나는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나의 권리를 주장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9) 나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나의 권리를 주장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0) 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중하게 행동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1) 나는 주장을 하기 전에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를 찾아본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2) 나는 모두가 만족하는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빠진 문항이 있는지 살펴봐 주세요. 끝까지 용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2. 청소년기 핵심역량 진단조사(중등용)



이 설문에서 얻어진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  
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  
도록 통계법(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ID  -  -  -

### 청소년기 핵심역량 진단 조사 ( 중 등 용 )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아동·청소년관련 각종 조사 연구와 정책개발 업무를 담당·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위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핵심역량 수준을 진단하고 이후 역량기반 학습체계 추진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입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응답해 주신 조사내용을 선생님이나 학교에서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유롭고 성의 있는 의견은 여러분을 위한 실질적인 아동·청소년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본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 6.

|                                               |                                                 |
|-----------------------------------------------|-------------------------------------------------|
| 조사주관기관: 국무총리산하<br>담당연구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br>김기현 박사 | 실사진행기관: (주)메트릭스코퍼레이션<br>조 사 문 의 처: 02-2017-1811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7-715) 서울특별시 서초구 테봉로 114  
<http://www.nyp.re.kr>

I. 다음은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번호에 √표 해 주세요.

1. 성별은? \_\_\_\_\_ ① 남자 \_\_\_\_\_ ② 여자

2.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표시하여 주세요.

※ 같이 살고 있진 않지만, 다른 지방의 직장·학교에 다니는 등의 이유로 같이 살지 않는 가족은 포함(단,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지 않은 형제자매는 제외).

1) (외)할아버지      2) (외)할머니      3) 아버지      4) 어머니  
5) 형제 또는 자매      6) 기타 친척      7) 기타 \_\_\_\_\_      8) 없음

3. 형제자매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_\_\_\_\_남 \_\_\_\_\_녀 중 \_\_\_\_\_제 (예) 1남 1녀 중 첫 제)

4.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세요.

(단, 중퇴도 졸업으로 간주함)

|         | 학 교<br>안다님 | 초등학교<br>졸업 | 중 학교<br>졸업 | 고등학교<br>졸업 | 2-3년제<br>대학 졸업 | 4년제<br>대학교 졸업 | 대학원 졸업<br>(석사·박사) |
|---------|------------|------------|------------|------------|----------------|---------------|-------------------|
| (1) 아버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2) 어머니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5. 부모님께서 현재 직업을 갖고 계신가요?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세요.

| 구분      | 현재 직업을 갖고 있는지 여부 |    |
|---------|------------------|----|
|         | 없음               | 있음 |
| (1) 아버지 | ①                | ②  |
| (2) 어머니 | ①                | ②  |

6. 가정형편(경제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나요?

| 매우 못 산다 <----- 보통 수준 -----> 매우 잘 산다 |   |   |   |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7.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어디인가요?

( )시/도 ( )시/군/구 ( )구 ( )동/읍/면

※ 살고 있는 곳이 서울시 서초구라면 (서울)시/도 (서초)시/군/구 (우면)동/읍/면 으로 표기

※ 살고 있는 곳이 충청남도 아산시라면 (충청남)시/도 (아산)시/군/구 (배방)동/읍/면 으로 표기

8. 반에서의 학업성적(2009년 1학기)은 대략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나요?

※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세요.

※ 영어를 배우지 않았다면 '배우지 않음'에 ○표 해 주세요.

| 성 적      | 매<br>못하는수준 | 못하는<br>수 준 | 중간 | 잘하는<br>수 준 | 매<br>잘하는수준 | 배우지<br>않 음 |
|----------|------------|------------|----|------------|------------|------------|
| (1) 국 어  | ①          | ②          | ③  | ④          | ⑤          |            |
| (2) 영 어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3) 수 학  | ①          | ②          | ③  | ④          | ⑤          |            |
| (4) 사회영역 | ①          | ②          | ③  | ④          | ⑤          |            |
| (5) 과학영역 | ①          | ②          | ③  | ④          | ⑤          |            |

9. 지금 집에는 다음과 같은 물건(장소)들이 얼마나 있나요?

9-1) 자동차

\_\_\_① 없음      \_\_\_② 1대      \_\_\_③ 2대      \_\_\_④ 3대 이상

9-2) 자기방 (혼자사용)

\_\_\_① 예      \_\_\_② 아니오

9-3) 책(잡지·신문·만화·교과서·참고서 등은 제외)

\_\_\_① 0~10권      \_\_\_② 11~25권      \_\_\_③ 26~100권  
\_\_\_④ 101~200권      \_\_\_⑤ 201~500권      \_\_\_⑥ 501권 이상

10. 다음과 같은 활동을 부모님과 함께 얼마나 자주 하나요?

| 구 분                   | 거 의 하 지<br>않는 다 | 일 주 일 에<br>1-2회 | 일 주 일 에<br>3-4회 | 일 주 일 에<br>5-6회 | 매 일 |
|-----------------------|-----------------|-----------------|-----------------|-----------------|-----|
| (1) 나의 고민에 관한 대화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책, TV, 영화에 대한 대화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정치, 사회적 주제에 관한 대화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함께 여가 활동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함께 저녁식사           | ①               | ②               | ③               | ④               | ⑤   |

11. 현재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_\_\_① 매우 나쁘다      \_\_\_② 나쁘다      \_\_\_③ 보통이다  
\_\_\_④ 좋다      \_\_\_⑤ 매우 좋다      \_\_\_⑥ 모르겠다

12. 학교 체육 수업시간 외에 30분 이상 지속하는 운동은 일주일에 얼마나 하나요?

- \_\_\_\_\_ ① 거의 하지 않는다      \_\_\_\_\_ ② 일주일에 1~2회      \_\_\_\_\_ ③ 일주일에 3~4회  
\_\_\_\_\_ ④ 일주일에 5~6회      \_\_\_\_\_ ⑤ 매일

13. 매일 교과서나 참고서를 제외한 책을 읽는데 사용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 \_\_\_\_\_ ① 전혀 없다      \_\_\_\_\_ ② 30분 이내      \_\_\_\_\_ ③ 30분~1시간  
\_\_\_\_\_ ④ 1시간~2시간      \_\_\_\_\_ ⑤ 2시간 이상

14. 지난 1년간 다음의 그룹이나 단체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나요?

| 구분                                           | 아니오 | 예 | 응답 거부 |
|----------------------------------------------|-----|---|-------|
| (1) 스포츠 단체(농구팀, 테니스 클럽 등)                    | ①   | ② | ③     |
| (2) 문화 교육 또는 취미단체 (연극동아리, 독서클럽, 게임 동호회 클럽 등) | ①   | ② | ③     |
| (3) 봉사활동 동호회                                 | ①   | ② | ③     |
| (4) 지역모임, 지역공동체 모임                           | ①   | ② | ③     |
| (5) 종교단체 활동                                  | ①   | ② | ③     |
| (6) 정치단체 활동                                  | ①   | ② | ③     |
| (7) 그 밖의 다른 그룹이나 단체, 모임                      | ①   | ② | ③     |

15. 지난 1년간 다음의 무보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나요?

| 구분                                                    | 아니오 | 예 | 응답 거부 |
|-------------------------------------------------------|-----|---|-------|
| (1) 기금 모금                                             | ①   | ② | ③     |
| (2) 위원회의 무보수 위원으로 봉사                                  | ①   | ② | ③     |
| (3) 가르치기 또는 상담하기                                      | ①   | ② | ③     |
| (4) 자선활동을 위한 음식제공 봉사 또는 구조 물품 수집                      | ①   | ② | ③     |
| (5) 그 밖의 다른 활동<br>(행사기획 및 조직, 사무실 근무, 단체들을 위한 정보제공 등) | ①   | ② | ③     |

**II. 다음은 학교 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번호에 √표 해 주세요.**

16.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생활에 어느정도 만족하고 있나요?

- \_\_\_\_\_ ① 매우 불만족스럽다      \_\_\_\_\_ ② 불만족스럽다      \_\_\_\_\_ ③ 보통이다  
\_\_\_\_\_ ④ 만족스럽다      \_\_\_\_\_ ⑤ 매우 만족스럽다

17. 다음은 학교를 다니면서 받는 느낌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 문항                        | 전<br>그렇지<br>않다 | 하<br>그렇지<br>않다 | 그렇지<br>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br>우<br>그렇다 |
|---------------------------|----------------|----------------|-----------|------|-----|---------------|
| (1) 수업시간이 재미있다.           | ①              |                | ②         | ③    | ④   | ⑤             |
| (2) 우리들의 의견이 잘 반영된다.      | ①              |                | ②         | ③    | ④   | ⑤             |
| (3) 다른 학교로 전학가고 싶다.       | ①              |                | ②         | ③    | ④   | ⑤             |
| (4) 우리 학교는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다. | ①              |                | ②         | ③    | ④   | ⑤             |
| (5) 우리 학교는 교칙이 엄격하다.      | ①              |                | ②         | ③    | ④   | ⑤             |

18. 학교생활 중 최근 1년간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얼마나 했나요?

| 구분                            | 없었다 | 한 두 번 | 서너번 | 다섯 번<br>이상 |
|-------------------------------|-----|-------|-----|------------|
| (1) 휴학 경험                     | ①   | ②     | ③   | ④          |
| (2) 지각 경험                     | ①   | ②     | ③   | ④          |
| (3) 무단결석 경험                   | ①   | ②     | ③   | ④          |
| (4) (교내·외) 사회봉사 혹은 통교정지 등의 징계 | ①   | ②     | ③   | ④          |

19. 장래 업고자 하는 구체적인 직업(창업포함)을 정해 놓았나요?

- \_\_\_\_\_ ① 아직 정해 놓은 직업이 없다  
 \_\_\_\_\_ ②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대략 생각해 놓은 직업이 있다  
 \_\_\_\_\_ ③ 구체적으로 확정해 놓은 직업이 있다

Ⅲ. 다음은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 번호에 ✓표 해 주세요.

20.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본인의 태도가 어떻다고 생각하나요? 각 문항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  
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 문항                                                        | 전<br>그렇지<br>않다 | 하<br>그렇지<br>않다 | 그렇지<br>않다 | 보통<br>이다 | 그렇다 | 매<br>우<br>그렇다 |
|-----------------------------------------------------------|----------------|----------------|-----------|----------|-----|---------------|
| (1) 나는 대화를 나눌 때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br>집중해서 듣는다.                 | ①              |                | ②         | ③        | ④   | ⑤             |
| (2) 나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며 말을 들으<br>려고 노력한다.                  | ①              |                | ②         | ③        | ④   | ⑤             |
| (3) 나는 상대방의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정확하게<br>알기 위해 질문을 한다.             | ①              |                | ②         | ③        | ④   | ⑤             |
| (4) 나는 내가 관심있게 듣고 있다는 것을 말이나<br>행동으로 표현한다.                | ①              |                | ②         | ③        | ④   | ⑤             |
| (5) 나는 상대방이 말할 때 눈을 맞추거나 상대방<br>을 바라본다.                   | ①              |                | ②         | ③        | ④   | ⑤             |
| (6) 나는 상대방의 말을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들<br>으며 말 몇 마디로 상대방을 평가하지 않는다. | ①              |                | ②         | ③        | ④   | ⑤             |
| (7) 나는 상대방의 몸짓이나 표정을 관찰하며 듣는다.                            | ①              |                | ②         | ③        | ④   | ⑤             |



21.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이민 오는 것을 얼마나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각 문항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 문항                                 | 절대<br>안된다 | 아주<br>약간만 | 어느<br>정도 | 가능한<br>많이 | 모르겠다 |
|------------------------------------|-----------|-----------|----------|-----------|------|
| (1) 외국에 있는 우리민족 후손들(예; 고려인, 조선족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우리민족이 아닌 외국인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                    | ①         | ②         | ③        | ④         | ⑤    |

22. 다음질문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 22-1) 우리나라에 들어와 사는 외국인 이민자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전반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요?

| 나쁜<br>영향을<br>미친다 | ◀=====▶ |   |   |   |   |   |   |   |   |   | 좋은<br>영향을<br>미친다 | 모르겠다<br><input type="checkbox"/> |
|------------------|---------|---|---|---|---|---|---|---|---|---|------------------|----------------------------------|
|                  |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         |   |   |   |   |   |   |   |   |   |                  |                                  |

- 22-2) 외국인 이민자들이 우리나라 문화의 수준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우리문화를 더 풍성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나요?

| 문화<br>수준을<br>떨어뜨린다 | ◀=====▶ |   |   |   |   |   |   |   |   |   | 문화를<br>풍성하게<br>만든다 | 모르겠다<br><input type="checkbox"/> |
|--------------------|---------|---|---|---|---|---|---|---|---|---|--------------------|----------------------------------|
|                    |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         |   |   |   |   |   |   |   |   |   |                    |                                  |

- 22-3) 외국인 이민자들이 우리나라를 더 살기 좋게 만든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더 살기 힘들게 만든다고 생각하나요?

| 더 살기<br>힘들게<br>만든다 | ◀=====▶ |   |   |   |   |   |   |   |   |   | 더 살기<br>좋게<br>만든다 | 모르겠다<br><input type="checkbox"/> |
|--------------------|---------|---|---|---|---|---|---|---|---|---|-------------------|----------------------------------|
|                    |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         |   |   |   |   |   |   |   |   |   |                   |                                  |

23.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각 문항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 문항                                              | 전혀<br>그렇지<br>않다 | 그렇지<br>않다 | 보통<br>이다 | 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
| (1) 나는 문제가 생기면 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본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내가 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24.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회만 있으면 당신을 이용하려 한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정당하게 대우해 준다고 생각하나요?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 사람들은<br>기회만<br>있으면 나를<br>이용하려한다 | ◀=====▶ |   |   |   |   |   |   |   |   |   | 사람들은<br>정당하게<br>나를<br>대우한다 | 모르겠다<br><input type="checkbox"/> |
|---------------------------------|---------|---|---|---|---|---|---|---|---|---|----------------------------|----------------------------------|
|                                 |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         |   |   |   |   |   |   |   |   |   |                            |                                  |

25. 정치에 얼마나 관심이 있나요?

- ☐ ① 전혀 관심없다      ☐ ② 거의 관심없다      ☐ ③ 약간 관심있다  
☐ ④ 매우 관심있다      ☐ ⑤ 모르겠다

26. 아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믿을만 하다고 생각하나요?

| 구분 | 전혀<br>믿<br>않<br>는<br>다 |   |   |   |   |   |   |   |   |   | 보<br>통<br>이<br>다 |  |  |  |  |  |  |  |  |  | 매<br>우<br>믿<br>는<br>다 |  |  |  |  |  |  |  |  |  | 모<br>르<br>겠<br>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 각 문항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 구분                                                              | 매우 반대 | 약간 반대 | 보통 | 약간 찬성 | 매우 찬성 |
|-----------------------------------------------------------------|-------|-------|----|-------|-------|
| (1) 어떤 집단에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여럿이 의논하기 보다는 한 두 사람이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민주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잘살게 해주기만 하면 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28. 다음은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진술들입니다. 아래에 제시된 각각의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표시해 주세요(각 질문에는 ‘참’ 혹은 ‘거짓’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거짓 | 참 |
|----------------------------------------------------|----|---|
| (1)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만이 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①  | ② |
| (2) 사람들은 정부의 잘못을 이야기할 권리가 있다.                      | ①  | ② |
| (3) 나라에 세금을 내는 성인들만 투표할 자격이 있다.                    | ①  | ② |
| (4) 투표권을 가진 어른들은 법을 만드는 기관에서 만든 새로운 법에 투표할 권리가 있다. | ①  | ② |

29. 민주국가에서 하나 이상의 여러 정당이 있어야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_\_\_\_\_ 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_\_\_\_\_ ② 정치적 부패를 막기 위해  
 \_\_\_\_\_ ③ 사람들이 시위하거나 데모하는 것을 막기 위해  
 \_\_\_\_\_ ④ 경쟁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30. 정부가 가장 비민주적인 경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_\_\_\_\_ ① 사람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거나 금지될 때  
 \_\_\_\_\_ ② 정당들이 항상 서로를 비판할 때  
 \_\_\_\_\_ ③ 사람들이 세금을 아주 많이 내야만 할 때  
 \_\_\_\_\_ ④ 모든 시민들이 어떤 직업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없을 때

31. 자신의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나요?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            |         |   |   |   |   |   |   |   |   |   |            |           |    |
|------------|---------|---|---|---|---|---|---|---|---|---|------------|-----------|----|
| 매우<br>불만이다 | ◀=====▶ |   |   |   |   |   |   |   |   |   | 매우<br>만족한다 | 모르겠다<br>□ |    |
|            |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 10 |
|            |         |   |   |   |   |   |   |   |   |   |            |           |    |

32.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한가요?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            |         |   |   |   |   |   |   |   |   |   |            |           |    |
|------------|---------|---|---|---|---|---|---|---|---|---|------------|-----------|----|
| 매우<br>불행하다 | ◀=====▶ |   |   |   |   |   |   |   |   |   | 매우<br>행복하다 | 모르겠다<br>□ |    |
|            |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 10 |
|            |         |   |   |   |   |   |   |   |   |   |            |           |    |

33. 친척과 얼마나 자주 만나 이야기를 하나요?

- \_\_\_\_\_ ① 전혀 만나지 않는다 \_\_\_\_\_ ② 한달에 한번이 안된다  
 \_\_\_\_\_ ③ 한달에 한번 정도 \_\_\_\_\_ ④ 한달에 여러 번  
 \_\_\_\_\_ ⑤ 일주일에 한번 정도 \_\_\_\_\_ ⑥ 일주일에 여러 번  
 \_\_\_\_\_ ⑦ 매일 \_\_\_\_\_ ⑧ 모르겠다

34. 개인적인 비밀 문제를 상의할 사람이 있나요?

- \_\_\_\_\_ ① 없다 \_\_\_\_\_ ② 있다

35. 같은 나이 또래들과 비교했을 때,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활동에 얼마나 참여하나요?

- \_\_\_\_\_ ① 훨씬 적게 참여한다 \_\_\_\_\_ ② 적게 참여하는 편이다  
 \_\_\_\_\_ ③ 비슷하게 참여한다 \_\_\_\_\_ ④ 많이 참여한다  
 \_\_\_\_\_ ⑤ 매우 많이 참여한다 \_\_\_\_\_ ⑥ 모르겠다

36. 아래의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해 주세요.

최근에 철수는 감옥에서 석방되었다. 그는 남의 집 물건을 훔쳤기 때문에 3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 석방된 후 철수는 영희라는 사람의 옆집으로 이사를 했다. 영희는 “철수가 우리 집 물건을 훔쳐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옆집으로 이사 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다.

36-1) 철수가 영희의 옆집에 사는 것을 허락해야만 하는 가장 알맞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_\_\_\_\_ ① 철수는 자신의 죄 값을 치렀으므로 이웃이 될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_\_\_\_\_ ② 철수가 옆집 물건을 훔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_\_\_\_\_ ③ 만약 주변 사람들이 철수를 잘 대우해 준다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_\_\_\_\_ ④ 철수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영희에게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36-2) 철수가 옆집에 사는 것을 허락하기 위해 영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_\_\_\_\_ ① 철수의 권리가 영희 자신의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_\_\_\_\_ ② 철수의 권리가 영희 자신의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_\_\_\_\_ ③ 영희는 자신과 철수의 권리가 다른 사람들의 권리보다 덜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_\_\_\_\_ ④ 영희는 자신과 철수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37. 아래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해 주세요.

어느 날 한 노인이 교통 신호를 지키지 않고 길을 건너고 있었다. 교통경찰이 이를 발견하고 노인에게로 갔다. 그런데 그 노인은 그 경찰의 친한 친구 부모님이었다. 그 경찰은 다음의 두 가지 선택에 대해 갈등하고 있다.

37-1) ‘교통경찰이 친구의 노부모의 교통위반을 적발해서 **벌금을 매긴다면**’ 어떻다고 생각하나요?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

|         | -3 | -2 | -1 | 0 | +1 | +2 | +3 |       |
|---------|----|----|----|---|----|----|----|-------|
| 사적이다    |    |    |    |   |    |    |    | 공적이다  |
| 나쁘다     |    |    |    |   |    |    |    | 좋다    |
| 비인간적이다  |    |    |    |   |    |    |    | 인간적이다 |
| 비합리적이다  |    |    |    |   |    |    |    | 합리적이다 |
| 불인정하다   |    |    |    |   |    |    |    | 인정있다  |
| 불공정하다   |    |    |    |   |    |    |    | 공정하다  |
| 너그럽지 않다 |    |    |    |   |    |    |    | 너그럽다  |
| 무원칙적이다  |    |    |    |   |    |    |    | 원칙적이다 |

37-2) '교통경찰이 친구의 노부모의 교통위반을 모른 척 눈감아 준다면' 어떻다고 생각하나요?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

|         | -3 | -2 | -1 | 0 | +1 | +2 | +3 |       |
|---------|----|----|----|---|----|----|----|-------|
| 사적이다    |    |    |    |   |    |    |    | 공적이다  |
| 나쁘다     |    |    |    |   |    |    |    | 좋다    |
| 비인간적이다  |    |    |    |   |    |    |    | 인간적이다 |
| 비합리적이다  |    |    |    |   |    |    |    | 합리적이다 |
| 물인정하다   |    |    |    |   |    |    |    | 인정있다  |
| 불공정하다   |    |    |    |   |    |    |    | 공정하다  |
| 너그럽지 않다 |    |    |    |   |    |    |    | 너그럽다  |
| 무원칙적이다  |    |    |    |   |    |    |    | 원칙적이다 |

IV. 다음은 정보통신기술 이용 및 검색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번호에 √표 해 주세요.

38. 평소 다음의 목적으로 얼마나 자주 컴퓨터를 사용하나요?

| 구분                                      | 전혀<br>사용안함 | 한 달에<br>1회 이상 | 일주일에<br>1회 이상 | 하루에<br>1회 이상 |
|-----------------------------------------|------------|---------------|---------------|--------------|
| (1) 한글프로그램(한글 등)을 이용한 문서 작성 및 편집        | ①          | ②             | ③             | ④            |
| (2) 엑셀 등을 이용한 계산표 작성                    | ①          | ②             | ③             | ④            |
| (3) 파워포인트, 포토샵 등을 이용한 그림자료 및 발표용 자료의 작성 | ①          | ②             | ③             | ④            |
| (4) 컴퓨터 언어로 프로그램 만들기                    | ①          | ②             | ③             | ④            |
| (5) 나의 일정 및 스케줄 관리하기                    | ①          | ②             | ③             | ④            |
| (6) CD나 DVD를 시청하거나 정보 얻기                | ①          | ②             | ③             | ④            |
| (7) 컴퓨터 게임하기(인터넷 게임은 제외)                | ①          | ②             | ③             | ④            |

39. 평소 다음의 목적으로 한 달에 얼마나 자주 인터넷을 사용하나요?

| 구분                                                      | 전혀<br>사용안함 | 한 달에<br>1회 이상 | 일주일에<br>1회 이상 | 하루에<br>1회 이상 |
|---------------------------------------------------------|------------|---------------|---------------|--------------|
| (1) 친구, 선생님 등과 전자우편(이메일) 주고 받기                          | ①          | ②             | ③             | ④            |
| (2) 채팅, 메신저, 게시판 및 댓글 작성, 또는 온라인<br>토론에 참여(학급게시판 참여 포함) | ①          | ②             | ③             | ④            |
| (3)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사거나 관련정보 검색                             | ①          | ②             | ③             | ④            |
| (4) 인터넷 학습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참여                                | ①          | ②             | ③             | ④            |
| (5) 음악(노래) 듣기 또는 다운로드<br>(인터넷을 통한 라디오 듣기 포함)            | ①          | ②             | ③             | ④            |
| (6) 인터넷 게임(게임 관련 자료 다운로드 포함)                            | ①          | ②             | ③             | ④            |
| (7) 영화, 동영상 보기 또는 다운로드 (인터넷을 통한<br>TV 시청 포함)            | ①          | ②             | ③             | ④            |
| (8) 신문, 잡지, 전자책(e-book) 읽기 또는 다운로드                      | ①          | ②             | ③             | ④            |
| (9) 숙제 및 학교 수업을 위한 인터넷 정보 검색                            | ①          | ②             | ③             | ④            |
| (10) 인터넷을 통한 일반적인 정보 검색(학습 및 과제<br>수행을 위한 정보 검색은 제외)    | ①          | ②             | ③             | ④            |
| (11) 동호회활동(카페·커뮤니티 포함)                                  | ①          | ②             | ③             | ④            |
| (12) 개인 홈페이지, 블로그, 미니홈피 운영                              | ①          | ②             | ③             | ④            |
| (13)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또는 업그레이드                                | ①          | ②             | ③             | ④            |

40.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한 인터넷 사이트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 ☐ ① 날씨 - 기상청 사이트                      ☐ ② 학습자료 - 에듀넷 사이트  
☐ ③ IT 정보 - 전자신문 사이트                ☐ ④ 지역소식 - 여행사 사이트  
☐ ⑤ 연예소식 - 포털 사이트

41. 영수가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폭력의 문제점 및 영향'에 관한 신문기사를 모으는 과제를 준비하고자 할 때, 검색 사이트에서 어떠한 키워드(검색어)를 입력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나요?

- ☐ ① 텔레비전, 폭력, 문제  
☐ ② 방영, 폭력, 영향  
☐ ③ 텔레비전, 방영, 영향  
☐ ④ 폭력의 문제점  
☐ ⑤ 텔레비전의 영향

42. 영희는 다음 달에 가족과 함께 경주를 여행하고자 합니다. 경주에 어떠한 문화제가 있는지 찾고자 할 때, 검색 사이트에서 어떠한 키워드(검색어)를 입력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나요?

- \_\_\_\_\_ ① 경주 or 문화제  
 \_\_\_\_\_ ② 경주 not 문화제  
 \_\_\_\_\_ ③ 경주 nor 문화제  
 \_\_\_\_\_ ④ 경주 and 문화제  
 \_\_\_\_\_ ⑤ 경주 near 문화제

43. 철수는 본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웹서핑을 하다가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 웹사이트를 다음에 다시 활용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_\_\_\_\_ ① 그때마다 검색하여 해결한다.  
 \_\_\_\_\_ ② 즐겨찾기에 추가 또는 폴더를 만들어 북마크 한다.  
 \_\_\_\_\_ ③ 따로 기록하여 둔다.  
 \_\_\_\_\_ ④ 웹사이트의 주소를 기억해 둔다.  
 \_\_\_\_\_ ⑤ 따로 파일을 만들어 저장한다.

44. 형석이는 얼마전 누군가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 동호회 게시판에 음란한 자료를 올려 곤란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_\_\_\_\_ 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비밀번호는 자주 바꾸도록 한다.  
 \_\_\_\_\_ ② 자신의 비밀번호를 남에게 쉽게 가르쳐 주지 않는다.  
 \_\_\_\_\_ ③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만들 때 생일이나 전화번호 같이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_\_\_\_\_ ④ 의심스러운 사이트에서는 합부로 회원가입을 하지 않는다.  
 \_\_\_\_\_ ⑤ 여러 사이트에 가입한 아이디나 비밀번호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모두 같은 비밀번호로 통일한다.

45.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에 관한 각 문항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 구분                                          | 전<br>그렇지<br>않다 | 혀<br>그렇지<br>않다 | 그렇지<br>않다 | 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
| (1) 나는 컴퓨터(또는 인터넷) 사용 및 활용 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 (2) 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쉽게 설치하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 (3) 컴퓨터와 인터넷은 내가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①              | ②              | ③         | ④   |           |
| (4) 컴퓨터와 인터넷은 유익한 정보를 쉽게 얻도록 도와준다.          | ①              | ②              | ③         | ④   |           |
| (5) 컴퓨터나 인터넷을 통해 학습능력이나 재능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된다.   | ①              | ②              | ③         | ④   |           |
| (6) 컴퓨터와 인터넷은 다른 사람과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①              | ②              | ③         | ④   |           |
| (7) 컴퓨터와 인터넷은 나의 미래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준다.       | ①              | ②              | ③         | ④   |           |

Ⅶ. 아래의 질문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46. 다음은 우리나라의 사회 변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 |             |             |             |          |
|-------------|-------------|-------------|----------|
| 1) 노인인구     | ___ 증가하고 있다 | ___ 감소하고 있다 | ___ 모르겠다 |
| 2) 출산율      | ___ 증가하고 있다 | ___ 감소하고 있다 | ___ 모르겠다 |
| 3) 평균수명     | ___ 길어지고 있다 | ___ 짧아지고 있다 | ___ 모르겠다 |
| 4) 학생수      | ___ 늘어나고 있다 | ___ 줄어든다    | ___ 모르겠다 |
| 5) 결혼연령     | ___ 늦어지고 있다 | ___ 빨라지고 있다 | ___ 모르겠다 |
| 6) 여성의 경제활동 | ___ 증가하고 있다 | ___ 감소하고 있다 | ___ 모르겠다 |
| 7) 다문화가정    | ___ 증가하고 있다 | ___ 감소하고 있다 | ___ 모르겠다 |

47. 다음은 우리나라의 인구변화가 가져올 여러 가지 결과 중의 하나입니다. 아래 빈칸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이를 적게 낳는다 → ? → 내가 내는 세금이 늘어난다

- |                    |                  |
|--------------------|------------------|
| ___ ① 가정의 지출이 줄어든다 | ___ ② 학생들이 줄어든다  |
| ___ ③ 일 할 사람이 줄어든다 | ___ ④ 아동인구가 줄어든다 |

48. 다음은 노래 음반을 구입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과, 각각의 방법에 따른 이익과 손해를 나타낸 표입니다. 아래 표를 보고 질문에 답해 주세요.

| 음반을 구매하는 방법               | 장점                         | 단점                                           |
|---------------------------|----------------------------|----------------------------------------------|
| 음반가게나 온라인 매장에서 정품을 구입한다   | 품질이 보장된다<br>문제가 있으면 보상 받는다 | 비용이 많이 든다<br>원하는 노래만 구입하기 어렵다<br>오래 걸리고 불편하다 |
| 파일공유 사이트를 통해서 불법 다운로드를 한다 | 비용이 절감 된다<br>빨리 구매할 수 있다   | (1)                                          |

48-1) (1)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모두 √표 해 주세요.

- |                                 |
|---------------------------------|
| ___ ① 음질이 나쁘거나 바이러스 등에 감염될 수 있다 |
| ___ ② 양심에 걸린다                   |
| ___ ③ 좋은 음악을 만드는 가수들이 줄어든다      |
| ___ ④ 비용이 많이 든다                 |
| ___ ⑤ 얻는데 오래 걸리고 불편하다           |
| ___ ⑥ 음반 시장이 축소된다               |
| ___ ⑦ 고소당하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48-2) 아래 빈칸에 들어가기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음반을 사지 않고 불법 다운로드를 한다 → ? → 좋은 노래가 줄어들다

- ☐ ① 음반 판매량이 줄어든다      ☐ ② 파일 공유 업자가 늘어난다  
☐ ③ 불법복제 방지 기술이 발전한다      ☐ ④ 불법복제에 대한 법적 처벌이 커진다

Ⅶ. 아래의 질문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49 아래에 제시된 항목들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 문항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나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우리 사회의 관습에 대해 알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나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나는 우리 사회의 도덕적인 기준에 대하여 알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나는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나는 문제가 생겼을 때 몇 가지 다른 방법들을 비교한 후 행동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나는 앞날을 내다보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나는 미래를 생각하고 계획을 수정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8) 나는 행동을 할 때 현재보다는 미래에 도움이 되도록 행동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9) 나는 내 행동으로 인해 나타날 결과를 미리 생각해 본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0) 나는 내 행동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나쁜 결과도 생각해 본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1) 나는 내 행동이 남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2) 나는 뜻하지 않은 일로 오해를 살 때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50.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소리를 어느 정도 듣는지 각 문항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 문항                              | 매우 드물게 | 드물게 | 보통 | 자주 | 매우 자주 |
|---------------------------------|--------|-----|----|----|-------|
| (1) 나는 친구들로부터 어른스럽다는 소리를 듣는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나는 선생님으로부터 믿음직스럽다는 소리를 듣는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철이 없다는 소리를 듣는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51. 아래에 제시된 행동들을 어느 정도 하는지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 문항                                            | 전혀<br>그렇지<br>않다 | 그렇지<br>않다 | 보통<br>이다 | 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
| (1) 나는 지금 이루고자 하는 삶의 목표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도움이 되는 자원(정보)을 활용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나는 목표를 세우기 전에 그 목표와 관련된 정보를 모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나는 할 일을 스스로 계획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나는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나는 아무리 어려워도 해야 할 일은 끝까지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8) 나는 무슨 일이든 내 일은 혼자 힘으로 해낸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9) 나는 오랫동안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편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0) 나는 계획한 일이 잘되었는지를 스스로 평가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1) 나는 내가 한 일의 결과가 내가 원하던 것인지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2) 나는 내가 한 일의 결과를 평가해보고 다음 할 일을 계획할 때 고려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52. 아래에 제시된 항목들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 문항                                                   | 전혀<br>그렇지<br>않다 | 그렇지<br>않다 | 보통<br>이다 | 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
| (1)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나는 내가 싫어하는 것(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나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나는 이 세상에는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일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나는 주장을 하기 전에 돌아가는 상황과 흐름을 먼저 이해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나는 나의 당연한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8) 나는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나의 권리를 주장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9) 나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나의 권리를 주장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0) 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중하게 행동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1) 나는 주장을 하기 전에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를 찾아본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2) 나는 모두가 만족하는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빠진 문항이 없는지 살펴봐 주세요.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2009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 기관고유과제

- 09-R01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II : 1-6차년도 조사개요 보고서/ 이경상 · 안선영
- 09-R01-1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II : 생활긴장과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이경상 · 이순래
- 09-R01-2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II :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안선영 · 장원섭
- 09-R01-3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II : 아동 · 청소년패널조사 2010 기초연구 / 김지경 · 안선영 · 이계오 · 이미리 · 김성식 · 김명희 · 박일혁
- 09-R02 아동 · 청소년 정책평가모형 개발 연구 : 고객지향 평가모형을 중심으로 / 김형주 · 김영애 · 조선희
- 09-R03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을 위한 다기관 협력체제 구축방안 연구 / 김지연 · 김성언
- 09-R03-1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을 위한 다기관 협력체제 구축방안 연구 :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지침 개발 / 김지연
- 09-R04 지역사회 아동 · 청소년인프라 활용방안 연구 : 학교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 최창욱 · 송병국 · 김혁진
- 09-R05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 성운숙 · 박병식
- 09-R06 아동청소년안전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 물리적 위해를 중심으로 / 김영한 · 최은실
- 09-R07 위기가정 아동 · 청소년의 문제와 복지지원방안 연구 : 빈곤한 한부모 · 조손가정 아동 · 청소년을 중심으로 / 이해연 · 이윤교 · 이향란
- 09-R08 청소년 가출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연구 / 백혜정 · 방은령
- 09-R09 세대간 의식구조 비교를 통한 미래사회변동 전망II / 이종원 · 김영인
- 09-R10 아동 · 청소년 비만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 임희진 · 박형란
- 09-R11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가족단위 여가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 이기봉 · 설수영 · 원형중 · 설민신
- 09-R12 한국 청소년 지표조사IV : 청소년 진로 · 직업 지표 / 최인재 · 김봉환 · 황매향 · 허은영
- 09-R12-1 한국 청소년 지표조사IV : 아동 · 청소년 활동 · 문화 지표 / 임지연 · 김정주 · 김신영 · 김민
- 09-R13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IV : 생존 · 보호권 인권실태조사 / 모상현 · 김희진
- 09-R13-1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IV : 생존 · 보호권 정량지표 / 모상현 · 천정웅 · 신승배 · 이종섭
- 09-R14 미래 한국사회 다문화 역량강화를 위한 아동 · 청소년 중장기 정책방안 연구 I / 양계민 · 조혜영 · 이수정
- 09-R15-1 조기유학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정책방안 연구 I : 귀국 청소년의 정체성에 대한 질적 연구 / 문경숙 · 윤철경 · 임재훈
- 09-R15-2 조기유학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정책방안 연구 I : 청소년 조기유학의 결과와 정책방안 / 윤철경 · 문경숙 · 송민경

- 09-R16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총괄보고서 / 황진구 · 김진호 · 임성택 · 주동범
- 09-R16-1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 / 문성호 · 임영식 · 문호영 · 김남정 · 한지연
- 09-R16-2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장애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 / 박영균 · 김동일 · 김성희
- 09-R16-3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청소년의 역량개발 / 이민희 · 강병로
- 09-R16-4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연구 : 범죄청소년의 자립지원 방안 / 최순종 · 윤옥경 · 조남익
- 09-R17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비한 청소년인재개발전략에 관한 국제학술회의 / 이창호 · 오해섭

#### ■ 협동연구과제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1**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박영균 · 박은혜 · 이상훈 · 최은영 · Elmar Lange (자체번호 09-R18)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2**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장애아동·청소년 가족 지원방안 / 서정아 · 조홍식 · 김진우 (자체번호 09-R18-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3**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교수·학습활동 지원정책 / 박재국 · 정대영 · 황순영 · 김영미 · 김혜리 (자체번호 09-R18-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4**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장애아동·청소년의 심리사회, 정서, 신체적 발달 지원방안 / 현주 · 박현옥 · 이경숙 · 김민 (자체번호 09-R18-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5**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방안 / 김종인 · 김원경 · 고정욱 · 오이표 (자체번호 09-R18-4)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6**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재활복지서비스 제고방안 / 권선진 · 이근매 · 조용태 (자체번호 09-R18-5)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1**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II : 총괄보고서 / 김기현 · 맹영임 · 장근영 · 구정화 · 강영배 · 조문흠 (자체번호 09-R19)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2**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II : 지적 도구 활용 영역 / 최동선 · 김나라 · 김성남 (자체번호 09-R19-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3**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II :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 / 김태준 · 김남향 (자체번호 09-R19-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4**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II : 자율적 행동 영역 / 김기현 · 맹영임 · 장근영 · 구정화 · 강영배 · 조문흠 (자체번호 09-R19-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5**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II : 사고력 영역 / 조아미 · 김정희 · 설현수 · 정재천 (자체번호 09-R19-4)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6**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II : 총괄보고서 부록 / 김기현 · 맹영임 · 장근영 · 구정화 · 강영배 · 조문흠 (자체번호 09-R19-5)

## ■ 수시과제

- 09-R20 경제 위기에서 빈곤 아동·청소년의 생활실태 / 모상현·김영지·김희진·정익중
- 09-R21 한국 청소년정책 20년사 : 한국 청소년정책의 성과와 전망 /  
김광웅·이종원·천정웅·이용교·길은배·전명기·정효진
- 09-R22 청소년지도 전문인력 국가자격검정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한상철·서정아·길은배·  
김진호·김혜원·문성호·박철웅·방은령·송민경·송병국·오승근·유진이·조아미
- 09-R23 아동청소년 국가기초통계생성을 위한 기초 연구 /  
김기현·홍세희·설현수·유성렬·정익중
- 09-R24 청소년쉼터 운영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 / 백혜정·정익중·박현선·천창암·박현동
- 09-R25 녹색성장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인지도 조사 / 김승경·김지경·성운숙
- 09-R26 한·중·일 고교생의 학습환경 및 학업태도에 관한 국제비교조사 /  
김진숙·임희진·김현철 (2010년 발간)
- 09-R27 서머타임제 시행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시간 연구 / 김희진·진미정 (2010년 발간)
- 09-R28 교육봉사를 통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정책 시범연구 /  
모상현·김성희·박영숙·이명균 (2010년 발간)

## ■ 용역과제

- 09-R29 2009 취약위기 아동청소년 보호자립 실태조사 /  
이경상·임희진·안선영·김지연·강현철·김광혁·김기남·박창남
- 09-R30 2009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만족도조사 / 백혜정
- 09-R31 2009년 아동보호전문기관 평가 결과보고서 / 김영지·성운숙
- 09-R32 2009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연구 / 양계민·조혜영
- 09-R33 청소년 양성평등 인식조사 / 장근영·이종원
- 09-R34 대중매체를 통한 다문화사회 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 이창호
- 09-R35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 중장기발전방안 연구 / 오해섭·박진규·박정배
- 09-R36 2009년 지역아동센터 평가편람 개발연구 / 황진구·김미숙
- 09-R37 아동청소년의 생활패턴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 김기현·안선영·장상수·김미란·최동선
- 09-R38 통합 아동·청소년정책 추진전략연구 /  
윤철경·박영균·성운숙·문경숙·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등 30개 기관
- 09-R39 형사조정실무가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개발 / 최창욱·박수선
- 09-R40 2009 아동·청소년백서 / 김기현·김지경·임희진
- 09-R41 열린장학금 효과성 및 발전방안 연구 / 최창욱·이기봉·최인재
- 09-R42 청소년관련학과 현장실습 교육과정 표준 매뉴얼 개발 / 맹영임·전명기
- 09-R43 2009 서울시 청소년 문화·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평가 / 임지연·김형주 (2010년 발간)
- 09-R44 시립청소년수련관 운영체계 효율적 개선 방안 연구 /  
김영한·이혜연·서정아·홍연균·유진이·김영호·김광남·황성수(2010년 발간)
- 09-R45 청소년 사이버멘토링 효과성 연구 / 조혜영·양계민 (2010년 발간)
- 09-R46 공공-민간협력 비행청소년 멘토링 시범사업 / 김지연 (2010년 발간)

##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09-s01 지역아동청소년권리센터 시범사업지원단 4차 워크숍 (1/21)
- 09-s02 경제위기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주는 고통 (2/27)
- 09-s03 청소년 지도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방안 (3/12)
- 09-s04 아동·청소년 권리지표 및 지수개발을 위한 워크숍 (4/11)
- 09-s05 녹색성장 강화와 글로벌 인재개발 전략 (4/16)
- 09-s06 독일의 장애아동·청소년 지원 정책 (5/25)
- 09-s07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비한 청소년 인재개발전략 (6/25)
- 09-s08 2009년 한국청소년패널 콜로키움 자료집 (7/8)
- 09-s09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지침 및 운영체계 개발 (6/26)
- 09-s10 한국의 다문화주의와 아시안 아메리칸의 인종적 경험 (7/14)
- 09-s11 2009 서울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평가위원 워크숍 (7/20)
- 09-s12 아동청소년조기 유학 적응과 글로벌 역량개발 (7/21)
- 09-s13 아동청소년 생활 패턴과 역량강화 세미나 (7/22)
- 09-s14 선진국의 장애아동·청소년 지원정책 국제세미나 (8/28)
- 09-s15 2009년 한국청소년 패널 데이터 분석 방법론세미나 자료집 (8/26)
- 09-s16 다문화 청소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8/25)
- 09-s17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가족단위 여가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워크숍 (9/18)
- 09-s18 형사화해 조종실무가(조정위원)연수 자료집 (10/7)
- 09-s19 아동·청소년 활동문화 현황 과제 (10/15)
- 09-s20 한·일 청소년 연구포럼: 노동·교육 그리고 가족에 대한 한일 비교 (10/27)
- 09-s21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현황과 정책방향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 (10/29)
- 09-s22 한국 청소년 진로·직업 실태 및 향후 전망과 정책적 과제 (11/6)
- 09-s23 여성 청소년의 인터넷 성매매 방지를 위한 정책 방안 (11/10)
- 09-s24 2009년 한국청소년패널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 (11/18)
- 09-s25 청소년 관련학과 현장실습 매뉴얼(안) 개발 및 효율성 제고 방안 (11/18)
- 09-s26 청소년 가출 예방 및 지원방향과 과제 (11/19)
- 09-s27 제6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 대회 (11/27)
- 09-s28 2009년 한국청소년패널 제3차 콜로키움 자료집 (11/22)

## ■ 학술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1호(통권 제52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2호(통권 제53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3호(통권 제54호)

### ■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 ■ 기타 발간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타 발간물 01 「자녀의 성공을 위해 부모가 함께 읽어아할 73가지 이야기」, 다솔  
NYPI YOUTH REPORT 창간호 : 경제위기와 빈곤 (4월)

NYPI YOUTH REPORT 2호 : 다문화와 탈북청소년 (6월)

NYPI YOUTH REPORT 3호 : 글로벌 환경변화 청소년 (8월)

NYPI YOUTH REPORT 4호 : 글로벌 인재와 청소년 (10월)

NYPI YOUTH REPORT 5호 : 청소년 인권 (11월)

NYPI YOUTH REPORT 6호 : 청소년들의 정보이용 현황 (12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9-32-04  
연구보고 09-R19-3

**청소년 생애핵심역량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  
자율적 행동 영역**

인 쇄 09년 12월 22일

발 행 09년 12월 28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행인 이 명 숙

등 록 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예림피앤디 전화 (02)2263-0483 대표 한필연

사전 승인 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정보지원팀)

ISBN 978-89-7816-821-2(93330)

ISBN 978-89-7816-817-5(93330)(세트)

